

센터연구2022-02

#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기초조사

류유선 · 김성곤 · 오윤희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Daejeon Gender Equality & Family Policy Center

**연구책임**

• 류유선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공동연구**

• 김성곤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 오윤희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전문연구원

센터연구 2022-02

##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기초조사

발행인 김 영 진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50 팩스: 042-530-3559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대전문화사

전화 042-252-7208 팩스 042-255-72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차 례

1장 서론 .....	3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3
2. 연구내용과 추진과정 .....	4
1) 연구내용 및 방법 .....	4
2) 추진과정 .....	6
2장 20대 여성의 마음건강에 관한 현황과 정책 .....	9
1.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현황 .....	9
1) 스트레스 .....	9
2) 우울감 .....	11
3)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시도, 자살률 .....	14
2. 타 시도 마음건강 사업 현황 .....	18
3. 대전광역시 마음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	25
3장 설문조사 결과 .....	31
1. 설문조사 개요 .....	31
2. 대전지역 20대 여성 마음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36
1)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망 .....	38
2)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살에 관한 생각 .....	93
3)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예방 정책 수요 .....	150

4장 제언 ..... 165

부록 ..... 171

참고문헌 ..... 177

## 표 차례

[표 2-1] 스트레스 인지율(2017-2021) .....	9
[표 2-2] 성별·연령별 스트레스 정도 (2022) .....	10
[표 2-3] 대전 청년 대상 스트레스(PSS) 검사 결과 .....	11
[표 2-4] 대전 청년 우울증상 유병률(2017-2021) .....	11
[표 2-5] 통합적 한국판 우울증(CES-D) .....	12
[표 2-6] 성별·연령별 자살충동 사유 (2022) .....	15
[표 2-7] 대전 소재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 후 응급실 진료 현황 (2019-2021) .....	16
[표 2-8] 대전 연령대별 자살률 (2016년과 2021년 비교) .....	17
[표 3-1] 조사 내용 .....	36
[표 3-2] 조사개요 .....	37
[표 3-3] 응답자 특성 .....	39
[표 3-4]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 .....	43
[표 3-5] 삶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	44
[표 3-6] 대전 20대 여성 - 관계 유형별 대화(이야기) 정도 .....	46
[표 3-7] 배우자 또는 연인과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49
[표 3-8] 부(아버지)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52
[표 3-9] 모(어머니)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55
[표 3-10] 형제자매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58
[표 3-11] 친구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61
[표 3-12] 직장동료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64
[표 3-13] 대전 20대 여성 - 관계 유형별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65
[표 3-14] 배우자 또는 연인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68
[표 3-15] 부(아버지)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71

[표 3-16] 모(어머니)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74
[표 3-17] 형제자매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77
[표 3-18] 친구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80
[표 3-19] 직장동료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83
[표 3-20] 대전 20대 여성의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유무와 집단 유형 .....	84
[표 3-21]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유무와 집단 유형 : 응답자 특성별 .....	87
[표 3-22] 대전 20대 여성 - 사회적 관계의 원만한 정도 .....	88
[표 3-23] 가정 내 관계의 원만함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89
[표 3-24] 학교 또는 직장 내 관계의 원만함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93
[표 3-25] 전반적 사회관계의 원만함 정도 : 응답자 특성별 .....	96
[표 3-26]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빈도 .....	99
[표 3-27] 스트레스 빈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	101
[표 3-28] 우울감 빈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	102
[표 3-29]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도 .....	104
[표 3-30] 스트레스 정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	105
[표 3-31] 우울감 정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	106
[표 3-32]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	111
[표 3-33]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 응답자 특성별 .....	116
[표 3-34]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 응답자 특성별 .....	117
[표 3-35]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주된 해소 방법 .....	118
[표 3-36] 주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 : 응답자 특성별 .....	122
[표 3-37] 주된 우울감 해소 방법 : 응답자 특성별 .....	123
[표 3-38]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 .....	124
[표 3-39]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 .....	128
[표 3-40] 우울감을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 .....	129
[표 3-41]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	130
[표 3-42] 스트레스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 응답자 특성별 .....	131
[표 3-43] 우울감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 응답자 특성별 .....	132

[표 3-44]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133
[표 3-45]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137
[표 3-46] 우울감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138
[표 3-47] 대전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빈도와 가장 큰 원인 .....	139
[표 3-48]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빈도와 가장 큰 원인(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	141
[표 3-49] 대전 20대 여성 -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142
[표 3-50]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	143
[표 3-51] 대전 20대 여성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144
[표 3-52]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응답자 특성별 .....	147
[표 3-53] 우울감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응답자 특성별 .....	150
[표 3-54]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응답자 특성별 .....	153
[표 3-55]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상담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 .....	155
[표 3-56]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	159
[표 3-57] 대전 청년마인드링크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	160
[표 3-58] 대전 청년내일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	161
[표 3-59]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 .....	162
[표 3-60]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 : 응답자 특성별 .....	165

## 그림 차례

[그림 1-1] 추진과정 .....	6
[그림 2-1] 연간 키워드(우울증) 트렌드 분석 결과(1990-2022) .....	13
[그림 2-2] 연관 키워드(우울증) 분석 결과 .....	13
[그림 2-3] 자살충동여부 (2022) .....	14
[그림 2-4] 서울특별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기관 .....	18
[그림 2-5] 광주광역시 마인드링크 .....	21
[그림 2-6]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22
[그림 2-7]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	23
[그림 2-8] 청년마음단디 .....	24
[그림 2-9]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 .....	25

# 서론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 연구내용과 추진과정

## 1장



# 1장 서론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의 지속적 감소와 과도한 취업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커져만 가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음
- 청년 중 여성의 자살사망률이 지난 20년간 큰 증가폭으로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보다 크게 증가함(장숙량·백경훈, 2020). 또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청년 여성이 2회 이상의 자살시도 경험이 높고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자의적으로 퇴원할 확률도 높았음(김고은, 2021)
- 기존 연구에서 노년세대의 자살사망이 빈곤과 독거, 사회적 자원과 지지의 부족 등으로 인한 것이라 진단한 결과로 미뤄봤을 때 지금의 청년이 노년기에 이르면 생애과정 동안 겪어 왔을 다양한 삶의 궤적에 더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장숙량·백경훈, 2020). 즉 이들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위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의 현황 또한 자살률(2019년 기준 사망원인통계)을 전 연령으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대의 경우 여성의 자살률이 남성보다 높았음
- 대전광역시는 매년 사회조사를 통해 대전 시민의 사회적 만족감, 소통과 같은 기본적인 부분은 조사하고 있으나 청년여성의 정신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청년 여성 중에서도 자살률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20대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가 필요함

-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인식 수준, 경험 정도, 위협을 주고 있는 요인, 대응 방법 등을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 2. 연구내용과 추진과정

### 1) 연구내용 및 방법

- 대전지역 20대 여성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에 관한 기초분석을 위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개별면접/온라인 병행하여 실시함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제시함
- 이를 기초하여 대전광역시 20대 여성들의 마음건강 관련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기는 생애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취업, 학업,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살과 유의미한 관계이고(김민경, 2013), 특히 코로나 시대에 취업난과 스트레스, 우울 등으로 청년들이 고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장숙량, 2021)
- 설문조사의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관한 문항과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경험, 만족도 및 수요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함

- 또한 본 연구는 스트레스 및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울척도(CES-D), 스트레스평가(PSS) 등 기존 정신건강 관련 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인지 및 경험 유무 등 간소화된 질문으로 설문지를 구성함
- 연구 결과는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함
- 결과를 통해 대전광역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정책의 계획 및 수립방향에 대한 기초와 방향을 제시함

## 2) 추진과정

○ 본 연구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음

추진 단계	항목	내용
<p>문헌 연구 (4~5월)</p>	<p>선행연구 분석 통계자료 분석 행정자료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연구 검토</li> <li>▪ 청년여성의 마음건강 현황 분석</li> <li>▪ 청년여성의 마음건강 사업 사례 분석</li> </ul>
<p>설문 조사 및 분석</p>	<p>Step1. 연구 방법 및 설문 문항 자문 (6~7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분석 방법 및 설문조사지 개발 자문</li> </ul>
	<p>Step2. 설문조사 실시 (8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설문조사 실시</li> <li>1) 대상 : 대전지역 20대 여성</li> <li>2) 구조화된 설문지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li> </ul>
	<p>Step3. 설문조사 결과 분석 (9~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li> <li>1) 현황 분석</li> <li>2) 정책 수요 분석</li> </ul>
<p>결과 도출 (12월)</p>	<p>연구결과 공유 및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결과 공유</li> <li>▪ 대전시 청년여성 대상 마음건강 사업의 방향 제안</li> </ul>

[그림 1-1] 추진과정

# 20대 여성의 마음건강에 관한 현황과 정책

1.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현황
2. 타 시·도 마음건강 사업 현황
3. 대전광역시 마음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 2장



## 2장 20대 여성의 마음건강에 관한 현황과 정책

### 1.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현황

-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현황을 크게 1) 스트레스, 2) 우울감, 3)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시도, 자살률 로 나누어 봄

#### 1) 스트레스

- 2021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스트레스 인지율이 대전은 전국보다는 낮고, 대전 여성(23.2%)이 대전 남성(21.3%)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았음.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32.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40대, 50대, 20대 순이었음

[표 2-1] 스트레스 인지율(2017-2021)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26.9	26.4	25.2	26.2	26.2
대전		25.6	27.9	25.2	23.9	24.0
성별	여성	22.6	27.5	23.3	22.2	23.2
	남성	26.1	25.5	24.2	22.4	21.3
연령별	19-29세	26.7	27.7	27.2	22.3	21.8
	30-39세	30.9	34.8	30.6	29.1	32.5
	40-49세	31.1	30.4	26.5	28.7	25.7
	50-59세	18.7	22.6	21.1	22.6	22.0
	60-69세	15.3	19.7	19.1	15.5	14.0
	70세 이상	14.8	18.3	12.7	9.9	14.6

주: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낀다”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이다”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전국은 254개 시군구 중앙값임. 대전은 표준화율, 성별과 연령은 조율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대전은 전국보다 낮았음.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고, 대전 또한 비슷했지만 직장생활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음
- 연령별 스트레스 정도를 보면, 학교생활의 경우 20대(44.1%), 그 외는 40대(일상 55.2%, 가정 45.4%, 직장 72.3%)가 가장 높았음

**[표 2-2] 성별·연령별 스트레스 정도 (2022)**

(단위: %)

구분		전반적인 일상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전국	전체	44.9	34.9	35.6	62.1	
	여성	47.6	40.5	39.8	62.2	
	남성	42.3	29.4	31.9	62.1	
대전	전체	43.8	34.9	33.9	64.1	
	성별	여성	45.8	40.1	39.4	60.9
	남성	41.8	29.7	28.9	66.6	
연령별	13-19세	28.4	25.0	29.2	33.2	
	20-29세	41.2	25.6	<b>44.1</b>	68.1	
	30-39세	52.2	36.4	24.1	65.9	
	40-49세	<b>55.2</b>	<b>45.4</b>	43.2	<b>72.3</b>	
	50-59세	46.2	37.6	6.0	61.7	
	60세 이상	35.9	34.5	23.1	50.5	

주: 스트레스 정도는 지난 2주일간 스트레스 느낀 정도로 '매우 느낌'과 '느끼는 편임'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전지역의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높거나 중간 스트레스'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여성(82.6%)이 남성(64.2%)보다 18.4%p 높게 나타남

**[표 2-3] 대전 청년 대상 스트레스(PSS) 검사 결과**

(단위 : %, 점)

구분	사례수	낮은 스트레스 (0-13점)	중간 스트레스 (14-26점)	높은 스트레스 (27점 이상)	평균 점수	
전체	1,000	27.1	70.3	2.6	16.19	
성별	남성	527	35.9	61.7	2.5	15.01
	여성	473	17.3	79.9	2.7	17.50

자료 :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건강 조사보고서」

## 2) 우울감

- 2021년 질병관리본부의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대전 청년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대전 전체 연령(3.1%)보다 19-29세(3.0%), 30-39세(3.3%) 모두 높았고, 성별로 보면 여성(3.6%)이 남성(2.4%)보다 높았음

**[표 2-4] 대전 청년 우울증상 유병률(2017-2021)**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2.7	2.8	2.7	2.6	3.1	
대전	3.0	2.1	2.1	2.0	3.1	
성별	여성	3.4	2.9	2.7	2.5	3.6
	남성	2.6	1.6	1.3	1.3	2.4
연령별	19-29세	5.2	3.4	3.0	2.6	3.0
	30-39세	2.6	1.0	2.3	2.2	3.3
	40-49세	1.3	0.9	1.8	1.3	3.1
	50-59세	2.0	2.7	1.0	1.9	2.3
	60-69세	1.3	1.3	1.2	1.4	2.0
	70세 이상	7.1	5.1	3.0	2.0	4.9

주: 우울증상 유병률은 우울증선별도구(PHQ-9) 점수 총합이 10점 이상인 사람의 분율임  
전국은 254개 시군구 중앙값임. 대전은 표준화율, 성별과 연령은 조율임  
자료: 질병관리본부,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우울증상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2017년 19-29세(20대)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가 약 1~2%인 것에 비해 약 5%로 상당히 높았으며, 2021년도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임
- 또 다른 통계자료인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간한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건강 조사보고서의 통합적 한국판 우울증 검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1%가 '심한 우울'로 나타났으며, 8.5%가 '중한 우울'로 나타나 대전지역 청년의 29.5%가 중합 이상의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만25~29세', '대가족',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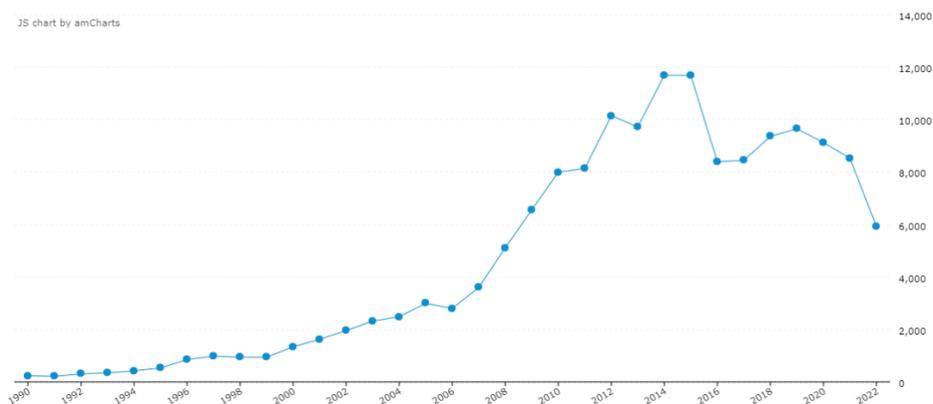
[표 2-5] 통합적 한국판 우울증(CES-D)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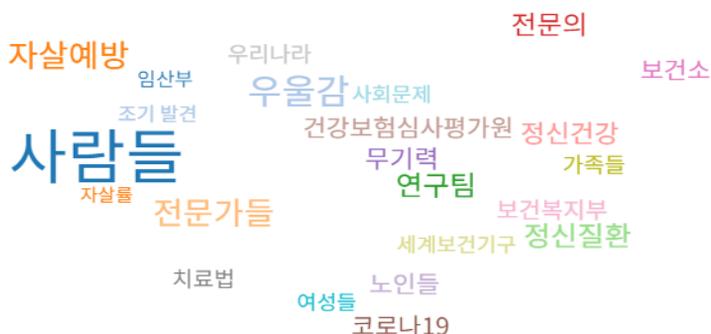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상 수준 (0-15점)	경미한 우울 (16-20점)	중한 우울 (21-24점)	심한 우울 (25점 이상)	평균 점수	
전체	1,000	56.8	13.7	8.5	21.0	15.60	
성별	남성	527	65.7	12.1	6.8	15.4	13.10
	여성	473	46.9	15.4	10.4	27.3	18.38
연령별	18-19세	93	58.1	14.0	5.4	22.6	15.95
	20-24세	305	60.3	12.5	8.5	18.7	14.50
	25-29세	327	53.2	13.1	10.4	23.2	16.54
	30-34세	275	56.7	15.6	7.3	20.4	15.57

자료 :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건강 조사보고서」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우울증'이란 키워드로 기간을 1990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0월 5일까지로 하여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 연간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는 '2014년'에 11,695건으로 가장 많았고, 11,686건, 10,150건 순으로 나타났음. 2)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1위는 '사람들'(가중치 72.96, 키워드 빈도수 423), 2위는 '우울감'(가중치 38.21, 키워드 빈도수 250), 3위는 '자살예방'(가중치 33.22, 키워드 빈도수 131) 순으로 결과가 나타남



[그림 2-1] 연간 키워드(우울증) 트렌드 분석 결과(1990-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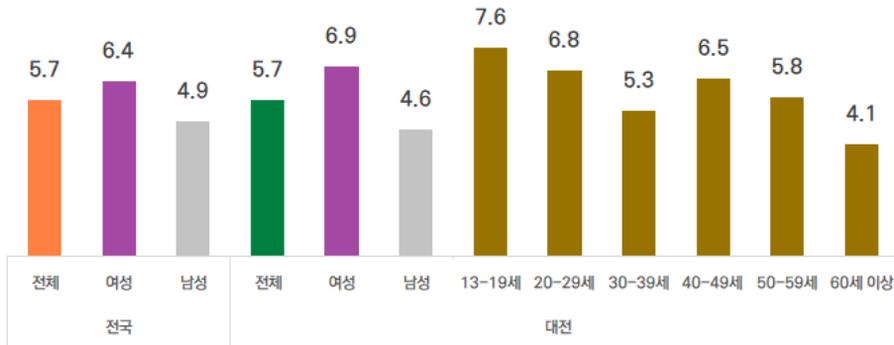
[그림 2-2] 연관 키워드(우울증) 분석 결과

### 3)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시도, 자살률

-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대전의 경우 5.7%로 전국과 같았고, 대전과 전국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보면 13-19세가 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6.8%)였음(전국의 경우 20대(6.0%)와 30대(6.2%)가 높았음)

[그림 2-3] 자살충동여부 (2022)

(단위: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자살충동 사유는 대전은 경제적 어려움, 전국은 질환·우울감·장애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 보면 대전 여성은 질환·우울감·장애가 가장 많았고, 대전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음
- 연령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0대, 20대, 30대, 60대 이상은 질환·우울감·장애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 특히, 2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실직, 미취업, 업무 스트레스 등 '직장문제'에 대한 비율이 크게 나타남

[표 2-6] 성별·연령별 자살충동 사유 (2022)

(단위: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대전	전체	경제적어려움 35.8	질한,우울감,장애 27.2	작장문제 7.5	외로움,고독 7.4	연애상대와 관계 8.3	
	여성	질한,우울감,장애 35.5	경제적어려움 22.2	외로움,고독 11.2	가정불화 9.5	작장문제 7.3	
	남성	경제적어려움 56.3	질한,우울감,장애 14.7	연애상대와 관계 14.7	외로움,고독 7.8	학교성적진학문제 2.8	
전국	전체	질한,우울감,장애 35.4	경제적어려움 27.6	작장문제 11.1	가정불화 8.9	외로움,고독 8.0	
	성별	여성	질한,우울감,장애 40.5	경제적어려움 21.8	작장문제 10.9	가정불화 10.1	외로움,고독 7.7
		남성	경제적어려움 35.3	질한,우울감,장애 28.5	작장문제 11.4	외로움,고독 8.3	가정불화 7.4
연령별	13-19세	질한,우울감,장애 34.2	학교성적진학문제 30.8	외로움,고독 11.2	가정불화 8.7	연애상대와 관계 3.6	
	20-29세	질한,우울감,장애 36.8	작장문제 22.9	경제적어려움 14.4	외로움,고독 7.6	가정불화 4.7	
	30-39세	질한,우울감,장애 29.8	경제적어려움 28.9	작장문제 18.3	가정불화 9.7	외로움,고독 5.9	
	40-49세	경제적어려움 33.1	질한,우울감,장애 31.3	가정불화 13.1	작장문제 10.9	외로움,고독 6.3	
	50-59세	경제적어려움 36.3	질한,우울감,장애 29.3	가정불화 10.8	작장문제 10.0	외로움,고독 6.9	
	60세 이상	질한,우울감,장애 44.9	경제적어려움 30.3	외로움,고독 10.7	가정불화 6.9	작장문제 2.8	

주. 표에 제시한 사유는 자살충동 사유에 대한 5순위까지 결과값임

자살충동사유는 자살충동을 느낀 자만 응답했기 때문에 대전의 경우 연령별 자료의 조사 응답자 수가 적으므로 상대표준오차(RSE)가 커져 신뢰도가 낮을 수 있어 전국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 보건복지부, 국가응급정보망(NEDIS)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전소재 응급의료기관의 연령대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2019년 492건(30.8%), 2020년 488건(29.2%)에서 2021년 530건(32.7%)으로 크게 증가함
- 2021년 성별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여성 1,027건(63.3%), 남성 596건(36.7%)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1.7배 높음

**[표 2-7] 대전 소재 응급실 자해·자살 시도 후 응급실 진료 현황 (2019-2021)**

(단위 : 몇, %)

구분	전체 (전 연령)	성별 (전 연령)		연령대별								
		여성	남성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2019	건수	1,595	974	621	204	492	231	227	202	103	66	70
	비율	100.0	61.1	38.9	12.8	30.8	14.5	14.2	12.7	6.5	4.1	4.4
2020	건수	1,672	1,030	642	236	488	234	275	225	90	67	57
	비율	100.0	61.6	38.4	14.1	29.2	14.0	16.4	13.5	5.4	4.0	3.4
2021	건수	1,623	1,027	596	238	530	246	216	165	105	69	54
	비율	100.0	63.3	36.7	14.7	32.7	15.2	13.3	10.2	6.5	4.3	3.3

주. 진료 정보(NEDIS 구축)를 전송한 대전지역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5개소의 자료임  
응급실 진료결과 치료대상이 되지 않는 DOA(Dead On Arrival)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국가응급정보망(NEDIS) 통계연보」

-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인구 십만 명당 대전의 자살률은 29.3명이며, 여성은 18.8명 남성은 39.8명으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높음. 연령대별 자살률을 보면, 30-34세(43.7명)가 가장 높고 다음은 65세 이상임. 성별로 보면 여성은 25-29세(33.6명), 남성은 30-34세(67.4명)가 가장 높음

-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15세부터 39세의 자살률 증가가 두드러지며, 특히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의 증가폭이 큼. 여성은 20대 중후반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남성의 경우 30대 초중반의 증가폭이 가장 컸음
- 단순히 자살로 인한 사망률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지만 20대와 30대의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함

[표 2-8] 대전 연령대별 자살률 (2016년과 2021년 비교)

(단위 : 10만명당 명, %p)

구분	전체			여성			남성		
	2016	2021	2016-2021 차이	2016	2021	2016-2021 차이	2016	2021	2016-2021 차이
계	24.8	29.3	4.5	15.3	18.8	3.5	34.4	39.8	5.4
10-14세	1.3	7.2	5.9	2.7	8.9	6.2	-	5.6	-
15-19세	6.8	12.1	5.3	8.1	8.4	0.3	5.6	15.5	9.9
20-24세	12.4	22.6	10.2	7.5	20.2	12.7	16.7	24.9	8.2
25-29세	19.4	34.1	14.7	15.3	33.6	18.3	23.0	34.5	11.5
30-34세	27.0	43.7	16.7	22.9	16.4	-6.5	31.0	67.4	36.4
35-39세	24.0	32.3	8.3	15.4	28.9	13.5	32.6	35.5	2.9
40-44세	35.1	31.8	-3.3	21.7	18.1	-3.6	48.6	45.7	-2.9
45-49세	37.2	33.5	-3.7	16.2	21.2	5.0	58.4	46.0	-12.4
50-54세	29.2	33.9	4.7	10.0	25.1	15.1	48.2	42.7	-5.5
55-59세	27.6	36.6	9.0	10.2	17.8	7.6	45.4	55.6	10.2
60-64세	25.9	36.1	10.2	9.7	18.1	8.4	42.7	55.1	12.4
65세 이상	55.7	37.3	-18.4	38.7	20.0	-18.7	78.3	59.4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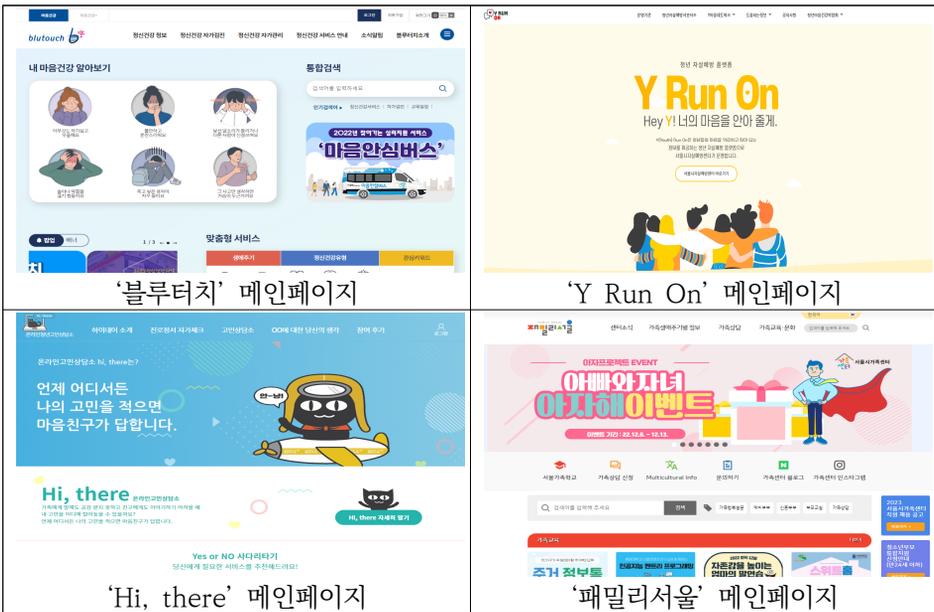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2. 타 시·도 마음건강 사업 현황

- 20대 여성 마음건강 관련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광역·기초 정신 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봄

### 1) 서울특별시

- 17개 시·도 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지원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임. 22년 12월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의 마음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은 ‘블루터치’, ‘Y Run On’, ‘Hi, there’, ‘패밀리서울’ 등이 있음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그림 2-4] 서울특별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기관

□ 블루터치 (<https://blutouch.net>)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루터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신건강지원 플랫폼으로 서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함
- 플랫폼 내에서는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전반적 상황과 내용,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서울시 25개 구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음
- 정신건강질환의 종류와 관리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가검진 테스트, 정신건강 지원 정책 및 기관의 안내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함
- 특히 플랫폼 이용자는 생애주기, 정신건강유형, 관심 키워드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정신건강 정보 및 지원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자가 검진 결과 확인 후 바로 온라인 관리 서비스 이용 및 오프라인 지원 기관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자가 진단만으로 그치지 않고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놓음
- 또한 정신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마음건강)와 전문적인 자료(마음건강+)를 분리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Y Run On (<http://www.suicide.or.kr>)

- ‘Y(Youth) Run On’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청년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Y-생명지기’, 정신건강 정보와 청년 관련 정책, 기관, 단체들의 정보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볼 수 있는 ‘Y 마음 레시피’,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들을 소개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Y 마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무료 심리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 진로 컨설팅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여성청년의 자살을 증가에 주목하여 여성청년 중심의 청년 자살 예방 활동가들의 모임 ‘시스터스키퍼스’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3기청년자살예방 활동가를 양성하여 청년이 직접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제안을 창출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 네트워크 자살예방 사업인 ‘청년자살예방 서포터즈’를 202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함

□ Hi, there (<https://hi-ther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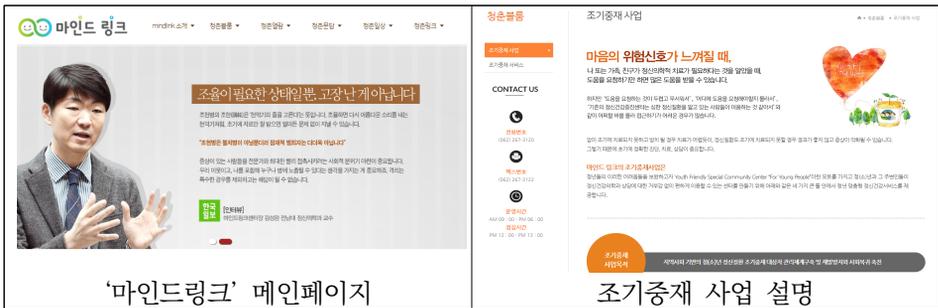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hi, there’는 서울시 청년이 일상적으로 마음을 돌보고, 고민이나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임
- ‘하이테어’는 청년의 진로·정서의 강점과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체크 프로그램과 쉽게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고민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상담해주는 ‘고민상담소’, 특정 주제에 대한 내 생각과 다른 참여자의 생각들을 비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대상만 청년층일 뿐 다른 지원 기관들과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부분이 매우 아쉬움. 2022년 12월 31일부로 ‘하이테어’ 운영 중단이 예정되어 있음

□ 패밀리서울 (<https://familyseoul.or.kr/one>)

-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패밀리 서울’은 가족센터의 특성답게 주로 가족 내 갈등과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과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인 가구 및 청년을 위한 상담 및 정책 정보 제공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교육 대상 유형별, 성별, 연령별, 생애주기별, 거주지역별로 선택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족 상담 신청시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상담 유형, 상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상담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점이 돋보임
- 패밀리 서울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관리보다는 갈등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 갈등의 원인과 해소가 마음건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 사례로 포함하였음

## 2) 광주광역시

- 마인드링크 (<http://www.mindlink.or.kr>)
- 광주광역시는 규모면에서는 서울특별시에 비해 작지만 청년계층의 정신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음
- 2016년 청(소)년 특화 정신건강센터인 ‘mindlink’를 시작한 최초의 자치단체이며 현재는 전국 150여개 기관에서 사용할 정도로 효과를 인정 받고 있음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대상의 한 부분으로 청년계층을 설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광주광역시의 마인드링크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는 별개의 체계를 갖추고 만 15세에서 30세의 청(소)년과 그 가족만을 특정지어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 관리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자료 : 마인드링크 홈페이지(<http://www.mindlin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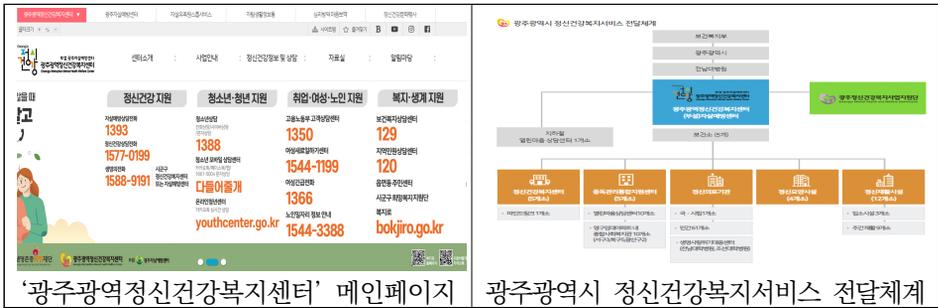
[그림 2-5] 광주광역시 마인드링크

- ‘마인드링크’는 청(소)년과 가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신건강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자가검진 및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자발적 상담과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광주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친족이 검사 및 치료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http://www.gmhc.kr>)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청년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광주 전역의 정신건강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음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메인페이지

광주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gmhc.kr>)

[그림 2-6]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주권역 내의 모든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을 통합 조정하는 중간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통계, 설문조사 결과, 지표, 가이드 북 발간 등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는 것임. 광주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동행정보지센터, 광주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자립생활지원과 주거지원, 당사자가 족지원에 대한 사업의 안내와 함께 취업을 위한 정보도 구별로 제공하고 있었음

### 3) 울산광역시

-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http://usmindlink.or.kr>)
- ‘울산청년 마인드링크’는 17개 시·도 중 가장 최근에 설립된 기관임. 2022년 7월에 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개소하였음
- 울산청년 마인드링크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조기중재사업, 마음건강상담, 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그룹프로그램, 홍보 및 인식개선임
- 이용대상자는 만15세~34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자가진단 등을 통해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청년 계층을 타겟으로 한 점에서 참고사례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공개되어 있는 사업일정들은 주로 홍보와 관련된 것들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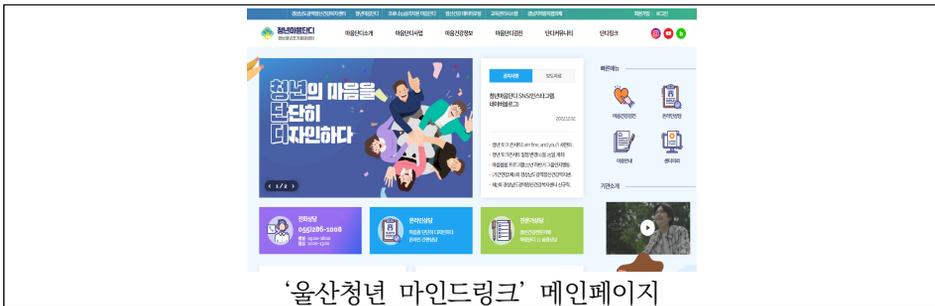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메인페이지

자료 :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홈페이지(<http://usmindlink.or.kr>)

[그림 2-7] 울산청년 마인드링크

#### 4) 경상남도

- 청년마음단디 (<http://minddandi.or.kr>)
- ‘청년마음단디’는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경남청년조기중재센터임. 2021년 11월에 개소하였으며 이용대상은 경남내 거주 중학생~만34세 청(소)년과 그 가족임
- ‘청년의 마음을 단단히 디자인하다’라는 의미로 학업, 취업문제 등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사업을 목적으로 특화된 기관임<sup>1)</sup>
- 이용방법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는 타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청년 계층에 집중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서 선별하였음



자료 : 청년마음단디 홈페이지(<http://minddandi.or.kr>)

[그림 2-8] 청년마음단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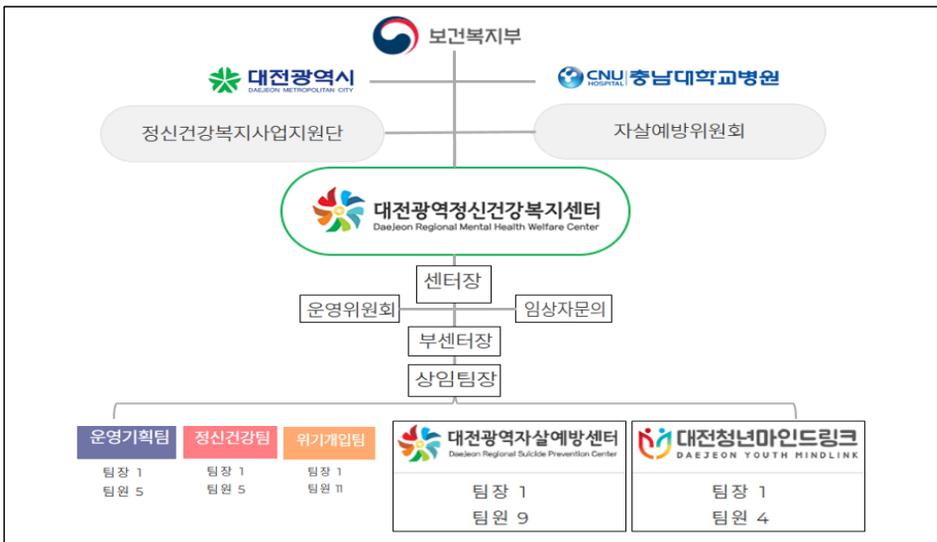
1) 청년마음단디센터 보도자료(2022.2.28.)

### 3. 대전광역시 마음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 대전광역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대전시민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있음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을지대학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각 구의 보건소를 운영주체로, 지역 거점 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기초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 위기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3대 사업을 중심으로 대동소이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1) 체계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운영주체이며 2022년 1월부터 충남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함. 운영기획팀, 정신건강팀, 위기개입팀과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 대전청년마인드링크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djpmhc.or.kr>) 자료 재구성

[그림 2-9]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체계

## 2) 마음건강 관련 주요사업

### □ 마음톡톡(talk talk) 버스 운영

- 마음톡톡버스는 대전시민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임
- 2021년 기준, 심리지원 상담 총 82회, 연 1,674건을 진행하였음<sup>2)</sup>
- 마음톡톡버스 지원대상은 대전시민 및 지역 내 공공기관, 정신건강분야 및 사회복지 관련 유관기관, 직장인 시설, 주택단지 등이며, 버스 내부의 상담공간에서 스트레스, 우울, 음주 등 자가 검진 척도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사와 전문요원의 심층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정보를 제공함

### □ 코로나 19 재난심리지원사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전시민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의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 심리지원 전용 홈페이지인 '마음기상청'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심리지원 제도와 기관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가검진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방역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리적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대응인력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21년 한 해 동안 총 9회, 137명이 참여하였음

### □ 자살예방 홍보사업

- 대전지역의 대표 주류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주병라벨에 자살예방상담 전화를 표기하여 20만병을 배포하였음
- 지역내 공사현장 중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와 공사기간을 검토하여 4곳

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2022). 「2021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사업보고서」

의 공사현장 울타리에 자살예방문구 및 정신건강 상담전화, 지원기관 등을 알리는 광고물을 부착하였음

#### □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자살유족 등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춰 캠페인 및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의 지속적인 심리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조모임 및 힐링 프로그램을 ‘상록수’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음

#### □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사업 (마인드링크)

- 청년층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전청년 마인드 링크’를 2021년 6월부터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시기의 정신질환 교육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음
- 조기중재가 필요한 대상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입경로의 다변화를 구축하고 대중매체 및 언론을 위한 홍보, 기관의 업무 협약, 청년 관련 기관 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기관 내 실무자의 자질 및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선별평가 및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 사회 내 청년층 정신건강 사업 실무자에게도 전문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함
- 마음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선별검사, 그룹인지행동치료, 개인/집단 상담, 집중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수준 및 문제 경험 정도, 관련 서비스 요구도 등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층의 정신질환 예방 및 만성화 방지 정책 수

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를 수행함 (대전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전청년내일센터)**

-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대전청년내일센터는 청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다양한 ‘내 일’을 만들고 대전의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sup>3)</sup>
- 대전청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다양한 문제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임
-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인당 최대 7회 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청년내일센터에서 지정한 대전지역내 3개의 전문상담기관 중 원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음

---

3) 대전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 기관 중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장



# 3장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조사 개요

### 1) 설문조사 목적 및 개요

#### (1) 설문조사 목적

-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과 경험 및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위한 기초분석으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는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제시하고,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여부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이들에 따른 정책 수요 현황을 재구성함
- 이 결과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정책의 계획 및 수립방향에 대한 기초와 방향을 제시함

#### (2) 조사 개요

##### ① 조사 내용

- 대전지역 20대 여성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에 대한 원인과 경험 및 관련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함
- 응답자 내부의 다층적인 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추가하였고, [표 3-1]과 같이 요약됨
- 또한 정신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게 분석 방법 및 설문조사지 개발 자문을 통해 조사 내용의 신뢰도를 높임

[표 3-1] 조사 내용

분 야	조사 항목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만족도</li> <li>▪ 구조적 · 인지적 사회관계망에 대한 생각</li> <l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와 인원</li> </ul>	
스트레스와 우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도 및 빈도</li> <li>▪ 원인</li> <li>▪ 해소방법</li> <li>▪ 상담경험</li> <li>▪ 상담 미경험 이유</li> </ul>	
자살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인</li> <li>▪ 해소방법</li> <li>▪ 상담경험</li> <li>▪ 상담 미경험 이유</li> </ul>	
청년여성 마음건강 예방 정책에 대한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산하 정신건강 상담 기관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의 예방 및 진단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li> <li>▪ 인지도</li> <li>▪ 경험 여부</li> <li>▪ 만족도</li> <li>▪ 가장 필요한 서비스</li> </ul>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령</li> <li>▪ 거주지역</li> <li>▪ 동거가족</li> <li>▪ 혼인상태</li> <li>▪ 자녀유무</li> <li>▪ 교육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소득계층(주관적 인식)</li> <li>▪ 가구의 소득계층(주관적 인식)</li> <li>▪ 지난 해와 현재 직업 유무</li> <li>▪ 현재 경제활동 상태</li> <li>▪ 본인의 월평균 소득</li> <li>▪ 본인의 근로시간</li> </ul>

③ 조사 대상 (모집단 정의/표본추출방법/모집단 현황 및 표본배분)

- 본 조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임
- 본 조사의 목표 표본수는 500명이며, 시민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성실한 응답 등을 제외한 515부를 대상으로 분석함
- 층화표본추출방법 사용, 연령대를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층의 표본 수를 균등 배분함. 이를 통해 20대 내부에서도 연령대를 세 집단으로 나누는 후 그 집단이 균등하게 응답할 수 있게 하였음

- 조사 시 20대 초반/20대 중반/20대 후반 균등하게 응답자 비율 맞춤
  - 특히, 20대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한 응답자 비율을 맞춰 수집함(20대 초반 중 30%, 20대 중반 중 40%, 20대 후반 중 50%)
- ④ 조사 방법
- 조사 방법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500명 이상의 조사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뢰성 있는 외부 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
  - 본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문조사업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과 개별면접조사를 병행하였음
  - 수집된 자료는 편집과 코딩화, 클리닝 과정을 거쳐 SPSS Statistics 24 프로그램으로 통계 처리됨
  - 본 조사의 조사개요는 [표 3-2]와 같음

**[표 3-2]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20대 여성)</li> <li>- 주민등록상 주소지, 학교 또는 직장이 대전인 경우</li> <li>- 1992년 9월부터 2002년 7월에 태어난 자</li> </ul>
표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명 내외</li> </ul>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또는 온라인 조사</li> </ul>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8월 (30일)</li> </ul>

⑤ 응답자 특성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515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3]과 같음
- 연령대는 20대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뉘어 각 33%로 분포되어 있고, 자치구는 '서구'가 28.9%로 가장 많고, 다음은 '유성구'(28.3%)임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자가 7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15.4%)였으며 무응답 3건이 존재함. 비혼여부는 '비혼'이 91.7%로 많았고, 자녀여부는 '없다'가 94.8%였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학교 재학'(31.3%)였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 경우 '중'이라고 응답한 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가구를 기준으로 한 경우 또한 '중'이라고 응답한 자가 82.3%로 많았음
- 현재 직업 여부는 '있다'라고 응답한 자가 296명(57.5%)였고, 이들의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63.2%로 가장 많았음
- 현재 경제활동 상태는 '근로자'가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학생(휴학생 포함)'으로 30.3%였고, 지난해와 현재 직업의 변화는 '계속 직업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9.9%였고, 다음은 '계속 직업이 없었다'로 41.2%였음
- 직업여부에 '있다'라고 응답한 296명 중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95.9%로 많았음

[표 3-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N)	퍼센트 (%)	구분		사례수 (N)	퍼센트 (%)
연령대	20대 초반	170	33.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40.8
	20대 중반	172	33.4		중	288	55.9
	20대 후반	173	33.6		상	17	3.3
자차구	동구	64	12.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55	10.7
	중구	95	18.4		중	424	82.3
	서구	149	28.9		상	36	7.0
	유성구	146	28.3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85	28.7
	대덕구	61	11.8		200-300만원 미만	187	63.2
동거 가족 (무응답 2건)	혼자	79	15.4	현재 직업 여부	300만원 이상	24	8.1
	부모와 함께 동거	383	74.8		직업 없음	219	42.5
	배우자와 함께 동거	42	8.2	직업 있음	296	57.5	
	기타	9	1.6	현재 직업 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56	30.3
비혼 여부	비혼	472	91.7		구직활동/창업준비	37	7.2
	비혼 외	43	8.3		구직/창업 포기	1	0.2
자녀 여부	있다	27	5.2		주부	25	4.9
	없다	488	94.8		근로자	271	52.6
교육 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66	12.8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5	4.9	
	대학교 재학 (휴학포함)	161	31.3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212	41.2
	대학교 졸업	278	54.0		없음 - 있음	39	7.6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0	1.9		있음 - 없음	7	1.4
			있음 - 있음		257	49.9	
			근로 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2	4.1	
				주간 8시간 이상	284	95.9	

## 2. 대전지역 20대 여성 마음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한 눈에 보는 '대전 20대 여성 마음건강 기초조사'

구분	분석
삶의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중간(평균 3.43점) 수준임</li> <li>▪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특히 낮은 편임</li> <li>▪ 그 외 혼자 거주하거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일 경우 또한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특이점으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보다 가구 기준일 경우 계층 간 삶의 만족도 차이가 더 두드러짐</li> </ul>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20대 여성에게 '배우자 또는 연인'이 타인과의 이야기 빈도와 타인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모두 가장 높은 상대임</li> <li>▪ 본인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이거나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인 경우 이야기 빈도와 신뢰정도가 낮았고, 특히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타인의 나에 대한 신뢰정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남</li> <li>▪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응답한 비율은 1/3에 못 미쳤고, 그 유형은 취미모임이 대부분이었음</li> <li>▪ 사회적 관계의 원만함은 중간(3.65점)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었고, 학교 또는 직장에서의 원만함 정도보다 가정에서의 원만함 정도가 높았음</li> </ul>
스트레스 및 우울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대 여성의 스트레스는 중간(평균 2.93점) 수준이고, 그 보다 우울감(평균 2.54점)은 낮았음</li> <li>▪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주된 원인은 모두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었지만, 두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는 경제적 어려움, 우울감은 외로움과 고독으로 달랐음</li> <li>▪ 특히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 '구직활동/창업준비', '주부'인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편이었음</li> <li>▪ 우울감의 원인이 외로움과 고독인 집단은 20대 초반, 학생, 직업 없음, 혼자, 부모와 함께 동거였는데, 동거가족의 유형 중 '혼자'와 '부모와 함께' 모두 우울감의 원인을 외로움과 고독을 높게 꼽았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함</li> <li>▪ 주된 해소 방법으로 스트레스는 음주(술), 우울감은 참는 것이었고, 해소할 때 주로 함께 있는 사람은 친구였고, 다음은 혼자였는데, 혼자의 비중이 스트레스보다 우울감이 컸음. 특히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를 하는 자의 경우 혼자 해소하고, 참거나 자는 등 소극적인 해소 방법을 취함</li> <li>▪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자는 스트레스 3.5%, 우울감 4.6%였고,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가 다수였음. 단,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이용방법을 모름, 20대 후반, 배우자와 동거, 주부의 경우 주위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편임</li> </ul>

## 한 눈에 보는 '대전 20대 여성 마음건강 기초조사'

구분	분석
자살에 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년 이내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자는 전체의 8.5%였고,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혼자',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구직활동/창업준비'의 응답비율이 타집단보다 높았음</li> <li>▪ 자살생각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었고, 두 번째 원인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음</li> <li>▪ 원인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의 비중이 스트레스는 약 5%, 우울감은 약 20%, 자살생각은 약 27%로 점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에 주목해야 함</li> <li>▪ 자살생각으로 전문가 상담을 한 경험은 5.8%였고, 자살생각을 한 적 있으나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다수였음</li> </ul>
마음건강 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음건강 관련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자의 비율은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순이었고,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약 80~90%인 것에 비해 자살생각의 경우 약 50%로 상당히 낮은 편임</li> <li>▪ 도움을 주는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살생각 모두 친구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스트레스(21.7%)와 우울감(19.1%)과 달리 자살생각은 부모(32.5%)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li> </ul>
마음건강 예방정책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 20대 여성에게 대전시 기관별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의 인지도는 상당히 낮은 편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내일센터가 약 15%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마인드 링크사업은 약 10%였음</li> <li>▪ 이용경험 또는 약 1~2%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li> <li>▪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로 오프라인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이었음</li> <li>▪ 응답자 특성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거가족이 없는 혼자의 경우 '자가검진'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고, 특히 타집단에 비해 '오프라인 제공 서비스'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당히 낮았음</li> <li>- 20대 후반, 주 8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온라인 상담 제공'에 대한 필요가 높았음</li> <li>- 비혼이 아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또는 주부일 경우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남</li> </ul> </li> </ul>

## 1)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망

### 분석 요약

#### (삶의 만족도)

-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3.43점이었고,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현재 직업종류가 '구직활동/창업준비'인 경우 삶의 만족도가 특히 낮았고, 그 외 '혼자' 살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기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음. 본인 기준의 경우 삶의 만족도는 다른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구 기준의 경우 하가 3.00점으로 다른 집단(중 3.49점, 상 3.42점)에 비해 상당히 낮았음

#### (사회적 관계망)

- 상대와 이야기 하는 빈도가 배우자 또는 연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구, 어머니, 형제자매, 아버지, 직장동료 순이었음
- 상대에게 신뢰받고 있는 정도가 배우자 또는 연인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친구,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직장동료 순이었음
-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3%였고, 그 유형으로는 취미모임(86.0%)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함. 취미모임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인 경우가 많았음
- 사회적 관계의 원만함 정도는 전반적 사회관계는 3.65점이었고, '가정'에서의 원만함이 '학교 또는 직장'에서의 원만함보다 높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이야기 빈도의 경우 '본인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인 경우가 타 집단에 비해 낮았고,
- 신뢰정도 또한 이야기 빈도와 마찬가지로 '본인 소득 200만원 이하',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인 경우가 타 집단에 비해 낮음이 두드러졌고, 차이점은 '구직활동/창업준비'이 낮게 나타남

**(1)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

- 현재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만족이 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통(30.9%)이었음. 평균은 3.43점으로 보통 수준임

**[표 3-4] 대전 20대 여성의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평균 (표준편차)
515 (100.0)	7 (1.4)	67 (13.0)	159 (30.9)	260 (50.5)	22 (4.3)	3.43 (.821)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5]와 같음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자녀여부’,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직업 종류’, ‘근로시간’임
  - ‘자녀여부’는 두 집단 모두 만족이 가장 많았고,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자녀가 없는 경우 51.2%, 자녀가 있는 경우 37.0%로 차이가 있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는 보통(36.4%)이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만족(각각 55.0%, 36.1%)에 가장 많이 응답해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 종류’는 구직/창업 포기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만족이 가장 많았고,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학생(휴학생 포함), 근로자,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의 경우 각각 55.1%, 50.6%, 50.5%이 반면 주부는 44.0%, 구직활동/창업준비는 35.1%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모두 만족이 가장 많았고,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주 8시간 미만과 8시간 이상 각각 58.3%, 50.4%로 차이를 보임

[표 3-5] 삶의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1(0.6)	26(15.3)	39(22.9)	95(55.9)	9(5.3)	14.231 (.076)	3.50
	20대 중반	3(1.7)	23(13.4)	60(34.9)	76(44.2)	10(5.8)		3.39
	20대 후반	3(1.7)	18(10.4)	60(34.7)	89(51.4)	3(1.7)		3.41
자취구	동구	3(4.7)	9(14.1)	22(34.4)	27(42.2)	3(4.7)	24.513 (.079)	3.28
	중구	0(0.0)	16(16.8)	36(37.9)	39(41.1)	4(4.2)		3.33
	서구	2(1.3)	19(12.8)	40(26.8)	85(57.0)	3(2.0)		3.46
	유성구	2(1.4)	17(11.6)	39(26.7)	82(56.2)	6(4.1)		3.50
	대덕구	0(0.0)	6(9.8)	22(36.1)	27(44.3)	6(9.8)		3.54
동거가족	혼자	0(0.0)	11(13.9)	33(41.8)	30(38.0)	5(6.3)	30.576 (.002)	3.37
	부모와 함께 동거	4(1.0)	50(13.1)	109(28.5)	208(54.3)	12(3.1)		3.45
	배우자와 함께 동거	2(4.8)	4(9.5)	14(33.3)	17(40.5)	5(11.9)		3.45
	기타	1(12.5)	2(25.0)	1(12.5)	4(50.0)	0(0.0)		3.00
비혼여부	비혼	4(0.8)	63(13.3)	145(30.7)	243(51.5)	17(3.6)	18.489 (.001)	3.44
	비혼 외	3(7.0)	4(9.3)	14(32.6)	17(39.5)	5(11.6)		3.40
자녀여부	있다	3(11.1)	1(3.7)	10(37.0)	10(37.0)	3(11.1)	26.324 (.000)	3.33
	없다	4(0.8)	66(13.5)	149(30.5)	250(51.2)	19(3.9)		3.44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5(7.6)	11(16.7)	19(28.8)	26(39.4)	5(7.6)	27.459 (.007)	3.23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0.6)	22(13.7)	47(29.2)	85(52.8)	6(3.7)		3.45
	대학교 졸업	1(0.4)	33(11.9)	89(32.0)	144(51.8)	11(4.0)		3.4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1(10.0)	4(40.0)	5(50.0)	0(0.0)		3.4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4(1.9)	30(14.3)	59(28.1)	105(50.0)	12(5.7)	11.878 (.157)	3.43
	중	3(1.0)	33(11.5)	93(32.3)	151(52.4)	8(2.8)		3.44
	상	0(0.0)	4(23.5)	7(41.2)	4(23.5)	2(11.8)		3.2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3.6)	16(29.1)	20(36.4)	14(25.5)	3(5.5)	31.536 (.000)	3.00
	중	5(1.2)	45(10.6)	126(29.7)	233(55.0)	15(3.5)		3.49
	상	0(0.0)	6(16.7)	13(36.1)	13(36.1)	4(11.1)		3.42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12(14.1)	36(42.4)	36(42.4)	1(1.2)	12.497 (.130)	3.31
	200-300만원 미만	1(0.5)	19(10.2)	58(31.0)	101(54.0)	8(4.3)		3.51
	300만원 이상	0(0.0)	1(4.2)	7(29.2)	13(54.2)	3(12.5)		3.75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6(2.7)	35(16.0)	58(26.5)	110(50.2)	10(4.6)	10.390 (.034)	3.38
	직업 있음	1(0.3)	32(10.8)	101(34.1)	150(50.7)	12(4.1)		3.47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0.6)	21(13.5)	41(26.3)	86(55.1)	7(4.5)	53.417 (.000)	3.49
	구직활동/창업준비	3(8.1)	12(32.4)	9(24.3)	13(35.1)	0(0.0)		2.86
	구직/창업 포기	0(0.0)	0(0.0)	1(100.0)	0(0.0)	0(0.0)		3.00
	주부	2(8.0)	2(8.0)	7(28.0)	11(44.0)	3(12.0)		3.44
	근로자	1(0.4)	31(11.4)	93(34.3)	137(50.6)	9(3.3)		3.45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1(4.0)	8(32.0)	13(52.0)	3(12.0)		3.72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6(2.8)	33(15.6)	56(26.4)	107(50.5)	10(4.7)	16.697 (.161)	3.39
	없음 - 있음	0(0.0)	4(10.3)	14(35.9)	17(43.6)	4(10.3)		3.54
	있음 - 없음	0(0.0)	2(28.6)	2(28.6)	3(42.9)	0(0.0)		3.14
	있음 - 있음	1(0.4)	28(10.9)	87(33.9)	133(51.8)	8(3.1)		3.46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1(8.3)	3(25.0)	7(58.3)	0(0.0)	24.694 (.000)	3.33
	주간 8시간 이상	0(0.0)	31(10.9)	98(34.5)	143(50.4)	12(4.2)		3.48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의 경우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이 3.50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중반(3.39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3.54점으로 가장 높고, 동구가 3.2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3.45점으로 높고, 기타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37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인 경우가 3.44점으로 비혼 외(3.40점)보다 높았으며,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3.44점으로 있는 경우(3.33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3.47점으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23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중인 경우가 3.44점으로 가장 높고, 상인 경우가 3.24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중인 경우가 3.49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3.75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31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가 3.47점으로 없는 경우(3.38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가 3.72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2.86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직업이 없다가 있게 된 경우가 3.54점으로 가장 높고, 직업이 있다가 없어진 경우가 3.14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48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33점)보다 높았음

**(2) 대전 20대 여성 - 관계 유형별 대화(이야기) 정도**

- 주변 사람 중 항목별로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비율로 보면,
  - ‘배우자 또는 연인’과 ‘친구’는 ‘매우 자주 이야기함’으로 각각 54.7%, 44.4%였고, ‘부’, ‘모’, ‘형제자매’는 ‘약간 이야기함’으로 각각 40.0%, 43.1%, 41.4%였음
  - ‘직장동료’는 보통이 40.3%로 가장 많았음
- 평균 점수로 보면, ‘배우자 또는 연인’이 4.45점으로 가장 높고, ‘직장 동료’가 3.43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6] 대전 20대 여성 - 관계 유형별 대화(이야기)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또는 연인	225 (100.0)	- -	1 (0.4)	19 (8.4)	82 (36.4)	123 (54.7)	4.45 (0.667)
부	507 (100.0)	9 (1.8)	81 (16.0)	151 (29.8)	203 (40.0)	63 (12.4)	3.45 (0.961)
모	511 (100.0)	4 (0.8)	48 (9.4)	119 (23.3)	220 (43.1)	120 (23.5)	3.79 (0.934)
형제자매	474 (100.0)	8 (1.7)	61 (12.9)	111 (23.4)	196 (41.4)	98 (20.7)	3.66 (0.999)
친구	513 (100.0)	3 (0.6)	6 (1.2)	57 (11.1)	219 (42.7)	228 (44.4)	4.29 (0.755)
직장동료	305 (100.0)	6 (2.0)	36 (11.8)	123 (40.3)	100 (32.8)	40 (13.1)	3.43 (0.930)

주. 항목별 ‘해당없음’에 응답한 자는 제외한 결과임

① 배우자 또는 연인과의 대화(이야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임

- '연령대'는 20대 초반은 약간 이야기함(54.1%)이 가장 많았고, 20대 중반과 후반은 매우 자주 이야기함이 각각 54.2%, 65.2%로 가장 많이 응답해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매우 자주 이야기함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83.3%, 부모와 함께 51.8%, 혼자 38.5%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매우 자주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상 90.9% 중 51.9%, 하 40.0%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약간 이야기함(50.0%)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매우 자주 이야기함(각각 67.9%, 84.6%)이 가장 많았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후반이 4.62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초반(4.31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4.67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4.29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4.81점으로 높고, 기타가 4.00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4.10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4.81점)가 비혼(4.37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4.69점으로 없는 경우(4.42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5점으로 가장 높고, 대학교 재학(휴학포함)이 4.23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가 4.80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4.35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도 상인 경우가 4.91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4.1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85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91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가 4.48점으로 있는 경우(4.43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가 5.00점으로 가장 높고, 학생(휴학생 포함)이 4.32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활동/창업준비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주부인 경우가 4.76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어진 경우가 5.00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4.42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직업이 있다가 없게 된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없다가 있게 된 경우가 4.64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4.48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4.41점)보다 높았음

[표 3-7] 배우자 또는 연인과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카이 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1(1.6)	3(4.9)	33(54.1)	24(39.3)	26.199 (.000)	4.31
	20대 중반	0(0.0)	13(18.1)	20(27.8)	39(54.2)		4.36
	20대 후반	0(0.0)	3(3.3)	29(31.5)	60(65.2)		4.62
차지구	동구	0(0.0)	1(3.4)	8(27.6)	20(69.0)	21.658 (.042)	4.66
	중구	0(0.0)	5(11.4)	14(31.8)	25(56.8)		4.45
	서구	0(0.0)	8(12.7)	29(46.0)	26(41.3)		4.29
	유성구	0(0.0)	5(8.1)	25(40.3)	32(51.6)		4.44
	대덕구	1(3.7)	0(0.0)	6(22.2)	20(74.1)		4.67
동거가족	혼자	0(0.0)	11(28.2)	13(33.3)	15(38.5)	43.856 (.000)	4.10
	부모와 함께 동거	1(0.7)	6(4.3)	61(43.3)	73(51.8)		4.46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1(2.4)	6(14.3)	35(83.3)		4.81
	기타	0(0.0)	0(0.0)	2(100.0)	0(0.0)		4.00
비혼여부	비혼	1(0.5)	18(9.8)	76(41.5)	88(48.1)	17.198 (.001)	4.37
	비혼 외	0(0.0)	1(2.4)	6(14.3)	35(83.3)		4.81
자녀여부	있다	0(0.0)	1(3.8)	6(23.1)	19(73.1)	4.131 (.248)	4.69
	없다	1(0.5)	18(9.0)	76(38.2)	104(52.3)		4.4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0)	4(13.8)	5(17.2)	20(69.0)	17.094 (.047)	4.55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7(12.3)	30(52.6)	20(35.1)		4.23
	대학교 졸업	1(0.7)	8(5.8)	46(33.6)	82(59.9)		4.5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1(50.0)	1(50.0)		4.5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0)	11(11.1)	39(39.4)	48(48.5)	6.366 (.383)	4.35
	중	0(0.0)	8(6.9)	41(35.3)	67(57.8)		4.51
	상	0(0.0)	0(0.0)	2(20.0)	8(80.0)		4.8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0(0.0)	6(30.0)	6(30.0)	8(40.0)	25.354 (.000)	4.10
	중	1(0.5)	13(7.1)	74(40.4)	95(51.9)		4.44
	상	0(0.0)	0(0.0)	2(9.1)	20(90.9)		4.91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	13(29.5)	22(50.0)	9(20.5)	39.974 (.000)	3.91
	200-300만원 미만	-	2(2.5)	24(29.6)	55(67.9)		4.65
	300만원 이상	-	0(0.0)	2(15.4)	11(84.6)		4.85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1.1)	4(4.6)	34(39.1)	48(55.2)	4.349 (.226)	4.48
	직업 있음	0(0.0)	15(10.9)	48(34.8)	75(54.3)		4.43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1.8)	3(5.3)	30(52.6)	23(40.4)	22.738 (.030)	4.32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0(0.0)	0(0.0)	5(100.0)		5.00
	주부	0(0.0)	1(4.0)	4(16.0)	20(80.0)		4.76
	근로자	0(0.0)	14(11.2)	45(36.0)	66(52.8)		4.42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1(7.7)	3(23.1)	9(69.2)		4.62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1(1.2)	4(4.7)	34(40.0)	46(54.1)	7.759 (.559)	4.47
	없음 - 있음	0(0.0)	1(9.1)	2(18.2)	8(72.7)		4.64
	있음 - 없음	0(0.0)	0(0.0)	0(0.0)	2(100.0)		5.00
	있음 - 있음	0(0.0)	14(11.0)	46(36.2)	67(52.8)		4.42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	0(0.0)	1(12.5)	7(87.5)	3.853 (.146)	4.88
	주간 8시간 이상	-	15(11.5)	47(36.2)	68(52.3)		4.41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② 부(아버지)와 대화(이야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대 초반 48.5%, 20대 중반과 후반은 각각 34.7%, 36.9%로 분포의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혼자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44.2%)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약간 이야기함(각각 44.2%, 46.3%)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상 62.5% 중 43.2%, 하 34.0%로 차이를 보임.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43.4%)이 가장 많은 반면에 상과 중은 약간 이야기함(각각 61.8%, 39.9%)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43.4%)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약간 이야기함(각각 39.1%, 54.1%)이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은 두 집단 모두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주간 8시간 미만의 58.3%, 주간 8시간 이상은 35.5%였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이 3.56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3.32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3.77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24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3.66점으로 높고, 기타가 2.75점으로 가장 낮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3.62점)가 비혼(3.44점)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3.62점으로 없는 경우(3.44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11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가 3.94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16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도 상인 경우가 3.79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2.69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3.92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2.87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3.50점)가 있는 경우(3.42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3.75점)가 가장 높고, 구직/창업 포기(3.00점)가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창업준비(3.11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어진 경우가 3.60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3.41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직업이 있다가 없게 된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3.50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42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33점)보다 높았음

[표 3-8] 부(아버지)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2(1.2)	16(9.5)	53(31.4)	82(48.5)	16(9.5)	28.746 (.000)	3.56
	20대 중반	3(1.8)	45(26.5)	40(23.5)	59(34.7)	23(13.5)		3.32
	20대 후반	4(2.4)	20(11.9)	58(34.5)	62(36.9)	24(14.3)		3.49
자치구	동구	2(3.3)	5(8.2)	16(26.2)	32(52.5)	6(9.8)	22.172 (.138)	3.57
	중구	2(2.1)	17(18.1)	27(28.7)	35(37.2)	13(13.8)		3.43
	서구	4(2.7)	32(21.8)	47(32.0)	52(35.4)	12(8.2)		3.24
	유성구	1(0.7)	23(15.9)	43(29.7)	58(40.0)	20(13.8)		3.50
	대덕구	0(0.0)	4(6.7)	18(30.0)	26(43.3)	12(20.0)		3.77
동거가족	혼자	2(2.6)	34(44.2)	20(26.0)	15(19.5)	6(7.8)	75.247 (.000)	2.86
	부모와 함께 동거	4(1.1)	39(10.3)	120(31.7)	167(44.2)	48(12.7)		3.57
	배우자와 함께 동거	2(4.9)	4(9.8)	8(19.5)	19(46.3)	8(19.5)		3.66
	기타	1(12.5)	3(37.5)	2(25.0)	1(12.5)	1(12.5)		2.75
비혼여부	비혼	7(1.5)	76(16.3)	143(30.8)	184(39.6)	55(11.8)	6.4730 (.166)	3.44
	비혼 외	2(4.8)	5(11.9)	8(19.0)	19(45.2)	8(19.0)		3.62
자녀여부	있다	2(7.7)	2(7.7)	6(23.1)	10(38.5)	6(23.1)	9.515 (.049)	3.62
	없다	7(1.5)	79(16.4)	145(30.1)	193(40.1)	57(11.9)		3.44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6)	20(30.8)	14(21.5)	23(35.4)	5(7.7)	32.104 (.001)	3.11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0.6)	25(15.6)	48(30.0)	73(45.6)	13(8.1)		3.45
	대학교 졸업	5(1.8)	36(13.2)	85(31.3)	105(38.6)	41(15.1)		3.52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4(40.0)	2(20.0)	4(40.0)		4.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58(28.2)	64(31.1)	70(34.0)	12(5.8)	52.541 (.000)	3.16
	중	7(2.5)	22(7.7)	85(29.8)	123(43.2)	48(16.8)		3.6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상	0(0.0)	1(6.3)	2(12.5)	10(62.5)	3(18.8)	71.416 (.000)	3.94
	하	1(1.9)	28(53.8)	9(17.3)	14(26.9)	0(0.0)		2.69
	중	8(1.9)	51(12.1)	135(32.1)	168(39.9)	59(14.0)		3.52
본인 월평균 소득	상	0(0.0)	2(5.9)	7(20.6)	21(61.8)	4(11.8)	64.516 (.000)	3.79
	200만원 미만	1(1.2)	36(43.4)	22(26.5)	21(25.3)	3(3.6)		2.87
	200-300만원 미만	3(1.6)	14(7.6)	66(35.9)	72(39.1)	29(15.8)		3.60
현재 직업여부	300만원 이상	1(4.2)	1(4.2)	3(12.5)	13(54.2)	6(25.0)	3.994 (.407)	3.92
	직업 없음	4(1.9)	30(13.9)	60(27.8)	97(44.9)	25(11.6)		3.50
현재 직업종류	직업 있음	5(1.7)	51(17.5)	91(31.3)	106(36.4)	38(13.1)	31.997 (.043)	3.42
	학생(휴학생 포함)	2(1.3)	14(9.0)	48(31.0)	77(49.7)	14(9.0)		3.56
	구직활동/창업준비	2(5.6)	12(33.3)	7(19.4)	10(27.8)	5(13.9)		3.11
	구직/창업 포기	0(0.0)	0(0.0)	1(100.0)	0(0.0)	0(0.0)		3.00
	주부	0(0.0)	4(16.7)	4(16.7)	10(41.7)	6(25.0)		3.75
	근로자	5(1.9)	46(17.2)	84(31.5)	97(36.3)	35(13.1)		3.42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5(20.8)	7(29.2)	9(37.5)	3(12.5)	14.189 (.289)	3.42
	없음 - 없음	4(1.9)	30(14.2)	58(27.5)	94(44.5)	25(11.8)		3.50
	없음 - 있음	1(2.6)	2(5.3)	18(47.4)	12(31.6)	5(13.2)		3.47
	있음 - 없음	0(0.0)	0(0.0)	2(40.0)	3(60.0)	0(0.0)		3.60
근로시간	있음 - 있음	4(1.6)	49(19.4)	73(28.9)	94(37.2)	33(13.0)	20.850 (.000)	3.41
	주간 8시간 미만	2(16.7)	1(8.3)	1(8.3)	7(58.3)	1(8.3)		3.33
	주간 8시간 이상	3(1.1)	50(17.9)	90(32.3)	99(35.5)	37(13.3)	3.42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③ 모(어머니)와 대화(이야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교육정도',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현재 직업여부', '현재 직업종류'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20대 초반 60.9%, 20대 중반과 후반은 각각 32.0%, 36.4%로 분포의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혼자사는 보통(32.1%)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약간 이야기함(각각 46.7%, 46.3%)이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대학교 재학이 56.9%로 가장 컸음.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21.9%로 다른 집단이 7%대인 것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상 47.1% 중 39.2%, 하 48.1%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상이 55.6%로 가장 컸음. 특히 하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29.1%로 다른 집단(7.4%, 2.8%)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본인 월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300만원 이상이 52.2%로 가장 컸음. 특히 200만원 미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23.5%로 다른 집단이 4%대인 것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 비율을 보면 직업 없음은 54.4%, 있음은 34.7%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 비율을 보면 학생이 61.9%인 반면 구직활동/창업준비는 32.4%로 차이를 보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후반이 3.83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초반(3.76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4.15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62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가 3.91점으로 높고, 기타가 2.88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32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3.80점)이 아님(3.74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3.79점)가 있는 경우(3.73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34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가 4.12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56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도 상인 경우가 4.03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29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26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34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3.81점)가 있는 경우(3.78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가 3.84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73점으로 가장 낮았음.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3.87점)가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3.76점)가 가장 낮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4.00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3.77점)보다 높았음

[표 3-9] 모(어머니)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1(0.6)	13(7.7)	32(18.9)	103(60.9)	20(11.8)	40.145 (.000)	3.76
	20대 중반	1(0.6)	22(13.0)	41(24.3)	54(32.0)	51(30.2)		3.78
	20대 후반	2(1.2)	13(7.5)	46(26.6)	63(36.4)	49(28.3)		3.83
자취구	동구	23(2.2)	3(4.8)	8(12.7)	37(58.7)	13(20.6)	34.233 (.005)	3.89
	중구	0(0.0)	11(11.6)	25(26.3)	36(37.9)	23(24.2)		3.75
	서구	2(1.4)	17(11.6)	40(27.2)	64(43.5)	24(16.3)		3.62
	유성구	0(0.0)	16(11.0)	33(22.6)	61(41.8)	36(24.7)		3.80
	대덕구	0(0.0)	1(1.7)	13(21.7)	22(36.7)	24(40.0)		4.15
동거가족	혼자	1(1.3)	19(24.4)	25(32.1)	20(25.6)	13(16.7)	60.368 (.000)	3.32
	부모와 함께 동거	1(0.3)	23(6.0)	82(21.5)	178(46.7)	97(25.5)		3.91
	배우자와 함께 동거	1(2.4)	3(7.3)	9(22.0)	19(46.3)	9(22.0)		3.78
	기타	1(12.5)	3(37.5)	1(12.5)	2(25.0)	1(12.5)		2.88
비혼여부	비혼	3(0.6)	44(9.4)	110(23.5)	201(42.9)	111(23.7)	1.695 (.792)	3.80
	비혼 외	1(2.4)	4(9.5)	9(21.4)	19(45.2)	9(21.4)		3.74
자녀여부	있다	1(3.8)	2(7.7)	7(26.9)	9(34.6)	7(26.9)	4.115 (.391)	3.73
	없다	3(0.6)	46(9.5)	112(23.1)	211(43.5)	113(23.3)		3.79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1)	14(21.9)	17(26.6)	22(34.4)	9(14.1)	47.921 (.000)	3.34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0.6)	12(7.5)	35(21.9)	91(56.9)	21(13.1)		3.74
	대학교 졸업	1(0.4)	22(7.9)	65(23.5)	104(37.5)	85(30.7)		3.9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2(20.0)	3(30.0)	5(50.0)		4.3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32(15.4)	48(23.1)	100(48.1)	26(12.5)	35.164 (.000)	3.56
	중	2(0.7)	15(5.2)	69(24.1)	112(39.2)	88(30.8)		3.94
	상	0(0.0)	1(5.9)	2(11.8)	8(47.1)	6(35.3)		4.12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8)	16(29.1)	12(21.8)	18(32.7)	8(14.5)	32.876 (.000)	3.29
	중	3(0.7)	31(7.4)	101(24.0)	182(43.3)	103(24.5)		3.84
	상	0(0.0)	1(2.8)	6(16.7)	20(55.6)	9(25.0)		4.03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20(23.5)	26(30.6)	29(34.1)	10(11.8)	39.113 (.000)	3.34
	200-300만원 미만	1(0.5)	9(4.8)	55(29.6)	61(32.8)	60(32.3)		3.91
	300만원 이상	0(0.0)	1(4.3)	1(4.3)	12(52.2)	9(39.1)		4.26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3(1.4)	18(8.3)	37(17.1)	118(54.4)	41(18.9)	23.136 (.000)	3.81
	직업 있음	1(0.3)	30(10.2)	82(27.9)	102(34.7)	79(26.9)		3.78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2(1.3)	8(5.2)	27(17.4)	96(61.9)	22(14.2)	45.455 (.000)	3.83
	구직활동/창업준비	1(2.7)	7(18.9)	5(13.5)	12(32.4)	12(32.4)		3.73
	주부	0(0.0)	3(12.0)	5(20.0)	10(40.0)	7(28.0)		3.84
	근로자	1(0.4)	27(10.0)	77(28.6)	91(33.8)	73(27.1)		3.77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3(12.0)	5(20.0)	11(44.0)	6(24.0)		3.80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3(1.4)	18(8.5)	35(16.6)	115(54.5)	40(19.0)	31.133 (.002)	3.81
	없음 - 있음	1(2.6)	2(5.1)	12(30.8)	10(25.6)	14(35.9)		3.87
	있음 - 없음	0(0.0)	0(0.0)	2(33.3)	3(50.0)	1(16.7)		3.83
	있음 - 있음	0(0.0)	28(11.0)	70(27.5)	92(36.1)	65(25.5)		3.76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1(9.1)	1(9.1)	6(54.5)	3(27.3)	2.800 (.592)	4.00
	주간 8시간 이상	1(0.4)	29(10.2)	81(28.6)	96(33.9)	76(26.9)		3.77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④ 형제자매와 대화(이야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동거가족’,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현재 직업종류’, ‘근로시간’임

- ‘동거가족’은 혼자사는 보통(39.7%)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약간 이야기함(각각 44.6%, 41.5%)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상 41.2%, 중 39.7%, 하 43.8%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42.0%)이 가장 많았고, 중, 상은 약간 이야기함(각각 41.8%, 44.4%)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37.3%)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약간 이야기함(각각 39.2%, 54.2%)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 종류’는 주부는 보통(44.0%)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집단은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음. 응답비율을 보면 학생(휴학생 포함)은 52.8%, 구직활동/창업준비는 32.4%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두 집단 모두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주간 8시간 미만의 50.0%, 주간 8시간 이상은 36.8%였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후반이 3.72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중반(3.60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3.77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56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가 3.82점으로 높고, 혼자가 3.01점으로 가장 낮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3.68점)이 아닌(3.48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3.67점)가 있는 경우(3.63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27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가 3.94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38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도 상인 경우가 4.08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06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17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04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3.68점)가 없는 경우(3.64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가 3.82점으로 가장 높고, 주부가 3.2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가 3.95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3.64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69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50점)보다 높았음

[표 3-10] 형제자매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2(1.3)	12(7.8)	41(26.6)	78(50.6)	24.108 (.002)	3.68	
	20대 중반	3(1.8)	33(20.1)	30(18.3)	58(35.4)		3.60	
	20대 후반	3(1.9)	16(10.3)	40(25.6)	60(38.5)		3.72	
자차구	동구	2(3.3)	4(6.6)	16(26.2)	28(45.9)	17.063 (.382)	3.69	
	중구	2(2.2)	14(15.6)	23(25.6)	34(37.8)		3.56	
	서구	2(1.6)	22(17.2)	21(16.4)	58(45.3)		3.64	
	유성구	0(0.0)	17(12.6)	37(27.4)	50(37.0)		3.70	
	대덕구	2(3.3)	4(6.7)	14(23.3)	26(43.3)		3.77	
동가가족	혼자	3(4.4)	27(39.7)	12(17.6)	18(26.5)	71.314 (.000)	3.01	
	부모와 함께 동거	3(0.8)	29(8.2)	80(22.6)	158(44.6)		3.82	
	배우자와 함께 동거	1(2.4)	3(7.3)	15(36.6)	17(41.5)		3.54	
	가타	1(12.5)	1(12.5)	3(37.5)	2(25.0)	1(12.5)	3.13	
비혼여부	비혼	6(1.4)	58(13.4)	96(22.2)	179(41.4)	8.453 (.076)	3.68	
	비혼 외	2(4.8)	3(7.1)	15(35.7)	17(40.5)		3(11.9)	3.48
자녀여부	있다	1(3.7)	0(0.0)	10(37.0)	13(48.1)	8.228 (.084)	3.63	
	없다	7(1.6)	61(13.6)	101(22.6)	183(40.9)		95(21.3)	3.67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2)	13(20.6)	23(36.5)	16(25.4)	31.157 (.002)	3.27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0.7)	16(11.3)	36(25.4)	71(50.0)		18(12.7)	3.63
	대학교 졸업	5(1.9)	32(12.4)	51(19.7)	104(40.2)		67(25.9)	3.76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1(10.0)	5(50.0)		4(40.0)	4.3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3(1.6)	41(22.2)	42(22.7)	81(43.8)	38.823 (.000)	3.38	
	중	5(1.8)	19(7.0)	65(23.9)	108(39.7)		75(27.6)	3.84
	상	0(0.0)	1(5.9)	4(23.5)	7(41.2)		5(29.4)	3.9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2.0)	21(42.0)	6(12.0)	18(36.0)	49.627 (.000)	3.06	
	중	7(1.8)	39(10.1)	98(25.3)	162(41.8)		82(21.1)	3.70
	상	0(0.0)	1(2.8)	7(19.4)	16(44.4)		12(33.3)	4.0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3)	28(37.3)	19(25.3)	21(28.0)	55.238 (.000)	3.04	
	200-300만원 미만	2(1.2)	10(5.8)	42(24.6)	67(39.2)		50(29.2)	3.89
	300만원 이상	0(0.0)	1(4.2)	2(8.3)	13(54.2)		8(33.3)	4.17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5(2.5)	22(10.8)	48(23.5)	95(46.6)	7.589 (.108)	3.64	
	직업 있음	3(1.1)	39(14.4)	63(23.3)	101(37.4)		64(23.7)	3.68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0.7)	9(6.3)	34(23.9)	75(52.8)	42.627 (.000)	3.77	
	구직활동/창업준비	3(8.1)	10(27.0)	3(8.1)	12(32.4)		9(24.3)	3.38
	주부	1(4.0)	3(12.0)	11(44.0)	8(32.0)		2(8.0)	3.28
	근로자	3(1.2)	36(14.5)	59(23.8)	92(37.1)		58(23.4)	3.67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3(13.6)	4(18.2)	9(40.9)	6(27.3)	3.82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5(2.5)	22(11.1)	46(23.2)	92(46.5)	14.822 (.251)	3.64	
	없음 - 있음	1(2.7)	2(5.4)	8(21.6)	13(35.1)		13(35.1)	3.95
	있음 - 없음	0(0.0)	0(0.0)	2(3.3)	3(5.0)		1(1.6)	3.83
	있음 - 있음	2(0.9)	37(15.9)	55(23.6)	88(37.8)		51(21.9)	3.6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2(16.7)	0(0.0)	2(16.7)	6(50.0)	30.197 (.000)	3.50	
	주간 8시간 이상	1(0.4)	39(15.1)	61(23.6)	95(36.8)		62(24.0)	3.6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⑤ 친구와 대화(이야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현재 직업종류'임

- '연령대'는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은 매우 자주 이야기함(각각 49.4%, 45.9%)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20대 후반은 약간 이야기함(48.0%)이 가장 많음
- '동거가족'은 혼자서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약간 이야기함(각각 39.2%, 52.4%)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는 매우 자주 이야기함(47.6%)이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는 약간 이야기함(42.6%)이 가장 많았고, 중, 상은 매우 자주 이야기함(각각 46.1%, 66.7%)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37.3%)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약간 이야기함(각각 39.2%, 54.2%)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 종류'는 주부는 약간 이야기함(64.0%)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집단은 매우 자주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음. 응답 비율을 보면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52.0%, 구직활동/창업준비는 37.8%로 차이를 보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이 4.46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중반(4.20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유성구와 대덕구가 4.33점으로 높고, 서구가 4.17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가 4.36점으로 높고, 기타가 3.57점으로

-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4.10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4.31점)이 아닌(4.12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4.31점)가 있는 경우(4.04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휴학포함)이 4.34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02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중인 경우가 4.39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4.17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도 상인 경우가 4.58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3.69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54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99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4.29점이었고,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휴학생 포함)이 4.44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86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가 4.51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없는 경우가 4.14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4.26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4.29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4.25점)보다 높았음

[표 3-11] 친구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1(0.6)	4(2.4)	81(47.6)	84(49.4)	39.675 (.000)	4.46
	20대 중반	3(1.7)	1(0.6)	33(19.2)	56(32.6)	79(45.9)		4.20
	20대 후반	0(0.0)	4(2.3)	20(11.7)	82(48.0)	65(38.0)		4.22
자취구	동구	2(3.1)	1(1.6)	2(3.1)	31(48.4)	28(43.8)	29.117 (.023)	4.28
	중구	0(0.0)	1(1.1)	7(7.4)	39(41.1)	48(50.5)		4.41
	서구	0(0.0)	3(2.0)	26(17.6)	62(41.9)	57(38.5)		4.17
	유성구	0(0.0)	0(0.0)	15(10.3)	67(46.2)	63(43.4)		4.33
	대덕구	1(1.6)	1(1.6)	7(11.5)	20(32.8)	32(52.5)		4.33
동거가족	혼자	1(1.3)	0(0.0)	18(22.8)	31(39.2)	29(36.7)	46.681 (.000)	4.10
	부모와 함께 동거	1(0.3)	6(1.6)	30(7.9)	163(42.7)	182(47.6)		4.36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0(0.0)	6(14.3)	22(52.4)	14(33.3)		4.19
	기타	1(14.3)	0(0.0)	2(28.6)	2(28.6)	2(28.6)	3.57	
비혼여부	비혼	2(0.4)	6(1.3)	51(10.9)	197(41.9)	214(45.5)	5.603 (.231)	4.31
	비혼 외	1(2.3)	0(0.0)	6(14.0)	22(51.2)	14(32.6)		4.12
자녀여부	있다	1(3.7)	0(0.0)	5(18.5)	12(44.4)	9(33.3)	7.294 (.121)	4.04
	없다	2(0.4)	6(1.2)	52(10.7)	207(42.6)	219(45.1)		4.31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0)	2(3.0)	15(22.7)	21(31.8)	26(39.4)	25.919 (.011)	4.02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1(0.6)	12(7.5)	79(49.1)	69(42.9)		4.34
	대학교 졸업	1(0.4)	3(1.1)	28(10.1)	116(42.0)	128(46.4)		4.3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2(20.0)	3(30.0)	5(50.0)		4.3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0.5)	2(1.0)	32(15.3)	100(47.8)	74(35.4)	18.543 (.018)	4.17
	중	2(0.7)	3(1.0)	24(8.4)	111(38.7)	147(51.2)		4.39
	상	0(0.0)	1(5.9)	1(5.9)	8(47.1)	7(41.2)		4.2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9)	2(3.7)	19(35.2)	23(42.6)	9(16.7)	54.529 (.000)	3.69
	중	2(0.5)	3(0.7)	37(8.7)	186(44.0)	195(46.1)		4.35
	상	0(0.0)	1(2.8)	1(2.8)	10(27.8)	24(66.7)		4.5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0(0.0)	22(25.9)	42(49.4)	21(24.7)	29.580 (.000)	3.99
	200-300만원 미만	2(1.1)	1(0.5)	17(9.1)	67(36.0)	99(53.2)		4.40
	300만원 이상	0(0.0)	0(0.0)	1(4.2)	9(37.5)	14(58.3)		4.54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0.5)	5(2.3)	17(7.8)	101(46.3)	94(43.1)	9.269 (.055)	4.29
	직업 있음	2(0.7)	1(0.3)	40(13.6)	118(40.0)	134(45.4)		4.29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0(0.0)	1(0.6)	5(3.2)	74(47.7)	75(48.4)	64.552 (.000)	4.44
	구직활동/창업준비	1(2.7)	4(10.8)	8(21.6)	10(27.0)	14(37.8)		3.86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1(100.0)	0(0.0)		4.00
	주부	0(0.0)	0(0.0)	4(16.0)	16(64.0)	5(20.0)		4.04
	근로자	2(0.7)	1(0.4)	35(13.0)	111(41.1)	121(44.8)		4.29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5(20.0)	7(28.0)	13(52.0)	4.32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1(0.5)	5(2.4)	16(7.6)	97(46.0)	92(43.6)	15.366 (.222)	4.30
	없음 - 있음	0(0.0)	0(0.0)	4(10.3)	11(28.2)	24(61.5)		4.51
	있음 - 없음	0(0.0)	0(0.0)	1(14.3)	4(57.1)	2(28.6)		4.14
	있음 - 있음	2(0.8)	1(0.4)	36(14.1)	107(41.8)	110(43.0)		4.26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0(0.0)	2(16.7)	1(8.3)	8(66.7)	15.323 (.004)	4.25
	주간 8시간 이상	1(0.4)	1(0.4)	38(13.4)	117(41.3)	126(44.5)		4.2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⑥ 직장동료와 대화(이야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임
  - '연령대'는 20대 초반은 약간 이야기함(50.0%)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20대 중반과 20대 후반은 보통(각각 45.5%, 41.7%)이 가장 많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와 중은 보통(각각 45.2%, 39.1%)이 가장 많았고, 상은 매우 자주 이야기함(50.0%)이 가장 많았음. 특히 하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26.2%로 다른 집단(6.5%, 0.0%)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와 중은 보통(각각 52.5%, 39.8%)이 가장 많았고, 상은 약간 이야기함(50.0%)이 가장 많았음. 특히 하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32.5%로 다른 집단(9.2%, 0.0%)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보통(각각 57.1%, 37.8%)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약간 이야기함(66.7%)이 가장 많았음. 특히 200만원 미만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음이 25.0%로 다른 집단(7.2%, 0.0%)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후반이 3.52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중반(3.33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3.57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3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3.94점으로 높고, 기타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16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3.76점)가 비혼(3.41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3.56점)가 없는 경우(3.43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3.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휴학포함)이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가 4.33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2.95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도 상인 경우가 4.21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가 2.7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00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2.90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3.44점)가 없는 경우(3.35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휴학생 포함)이 3.54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창업포기가 2.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3.43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가 3.68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없는 경우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거나 있는 경우가 각각 3.40점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3.50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3.43점)보다 높았음

[표 3-12] 직장동료와 대화(이야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함	매우 자주 이야기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4(11.8)	3(8.8)	5(14.7)	17(50.0)	5(14.7)	44.839 (.000)	3.47
	20대 중반	1(0.8)	23(17.4)	60(45.5)	27(20.5)	21(15.9)		3.33
	20대 후반	1(0.7)	10(7.2)	58(41.7)	56(40.3)	14(10.1)		3.52
자차구	동구	1(2.9)	2(5.7)	14(40.0)	17(48.6)	1(2.9)	18.002 (.324)	3.43
	중구	1(1.7)	5(8.5)	22(37.3)	25(42.4)	6(10.2)		3.51
	서구	2(2.3)	15(17.0)	36(40.9)	25(28.4)	10(11.4)		3.30
	유성구	1(1.2)	10(11.6)	38(44.2)	22(25.6)	15(17.4)		3.47
	대덕구	1(2.7)	4(10.8)	13(35.1)	11(29.7)	8(21.6)		3.57
동거가족	혼자	1(1.3)	17(22.7)	31(41.3)	21(28.0)	5(6.7)	29.017 (.004)	3.16
	부모와 함께 동거	4(1.9)	17(8.3)	86(41.7)	67(32.5)	32(15.5)		3.51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0(0.0)	4(25.0)	9(56.3)	3(18.8)		3.94
	기타	1(16.7)	1(16.7)	1(16.7)	3(50.0)	0(0.0)		3.00
비혼여부	비혼	5(1.7)	36(12.5)	119(41.3)	91(31.6)	37(12.8)	7.300 (.121)	3.41
	비혼 외	1(5.9)	0(0.0)	4(23.5)	9(52.9)	3(17.6)		3.76
자녀여부	있다	1(11.1)	0(0.0)	3(33.3)	3(33.3)	2(22.2)	5.736 (.220)	3.56
	없다	5(1.7)	36(12.2)	120(40.5)	97(32.8)	38(12.8)		3.43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2)	7(15.6)	13(28.9)	18(40.0)	6(13.3)	10.406 (.580)	3.47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4.2)	5(20.8)	12(50.0)	5(20.8)	1(4.2)		3.00
	대학교 졸업	4(1.7)	23(10.0)	95(41.5)	74(32.3)	33(14.4)		3.48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1(14.3)	3(42.9)	3(42.9)	0(0.0)		3.29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3(3.6)	22(26.2)	38(45.2)	18(21.4)	3(3.6)	41.374 (.000)	2.95
	중	3(1.4)	14(6.5)	84(39.1)	80(37.2)	34(15.8)		3.60
	상	0(0.0)	0(0.0)	1(16.7)	2(33.3)	3(50.0)		4.33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2.5)	13(32.5)	21(52.5)	4(10.0)	1(2.5)	38.894 (.000)	2.78
	중	5(2.0)	23(9.2)	100(39.8)	89(35.5)	34(13.5)		3.49
	상	0(0.0)	0(0.0)	2(14.3)	7(50.0)	5(35.7)		4.21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2.4)	21(25.0)	48(57.1)	9(10.7)	4(4.8)	57.404 (.000)	2.90
	200-300만원 미만	2(1.1)	13(7.2)	68(37.8)	67(37.2)	30(16.7)		3.61
	300만원 이상	0(0.0)	0(0.0)	4(16.7)	16(66.7)	4(16.7)		4.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11.8)	2(11.8)	3(17.6)	8(47.1)	2(11.8)	12.225 (.016)	3.35
	직업 있음	4(1.4)	34(11.8)	120(41.7)	92(31.9)	38(13.2)		3.44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2(15.4)	0(0.0)	2(15.4)	7(53.8)	2(15.4)	30.659 (.015)	3.54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1(33.3)	1(33.3)	1(33.3)	0(0.0)		3.00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0(0.0)	0(0.0)	0(0.0)		2.00
	근로자	3(1.1)	30(11.4)	113(43.0)	84(31.9)	33(12.5)		3.43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4.0)	4(16.0)	7(28.0)	8(32.0)	5(20.0)		3.48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2(13.3)	1(6.7)	3(20.0)	7(46.7)	2(13.3)	20.143 (.064)	3.40
	없음 - 있음	0(0.0)	2(5.4)	15(40.5)	13(35.1)	7(18.9)		3.68
	있음 - 없음	0(0.0)	1(50.0)	0(0.0)	1(50.0)	0(0.0)		3.00
	있음 - 있음	4(1.6)	32(12.7)	105(41.8)	79(31.5)	31(12.4)		3.4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1(8.3)	3(25.0)	5(41.7)	2(16.7)	5.795 (.215)	3.50
	주간 8시간 이상	3(1.1)	33(12.0)	117(42.4)	87(31.5)	36(13.0)		3.43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3) 대전 20대 여성 - 관계 유형별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주변 사람 중 항목별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 가장 많이 응답한 비율로 보면,
  - ‘배우자 또는 연인’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으로 52.4%였고, ‘부’, ‘모’, ‘형제자매’는 ‘약간 신뢰받고 있음’으로 각각 53.1%, 54.6%, 50.6%였음
  - ‘직장동료’는 보통이 42.6%로 가장 많았음
- 평균 점수로 보면, ‘배우자 또는 연인’이 4.41점으로 가장 높고, ‘직장 동료’가 3.52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13] 대전 20대 여성 - 관계 유형별 나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계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평균 (표준편차)
배우자 또는 연인	225 (100.0)	-	-	25 (11.1)	82 (36.4)	118 (52.4)	4.41 (0.683)
부	507 (100.0)	6 (1.2)	21 (4.1)	66 (13.0)	269 (53.1)	145 (28.6)	4.04 (0.830)
모	511 (100.0)	4 (0.8)	16 (3.1)	45 (8.8)	279 (54.6)	167 (32.7)	4.15 (0.767)
형제자매	474 (100.0)	4 (0.8)	17 (3.6)	98 (20.7)	240 (50.6)	115 (24.3)	3.94 (0.816)
친구	513 (100.0)	2 (0.4)	6 (1.2)	75 (14.6)	240 (46.8)	190 (37.0)	4.19 (0.751)
직장동료	305 (100.0)	1 (0.3)	29 (9.5)	130 (42.6)	100 (32.8)	45 (14.8)	3.52 (0.870)

주. 항목별 ‘해당없음’에 응답한 자는 제외한 결과임

① 배우자 또는 연인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비혼여부', '본인 월평균 소득'임

- '연령대'는 20대 초반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50.8%)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20대 중반과 20대 후반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각각 41.7%, 66.3%)이 가장 많음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매우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85.7%, 부모와 함께 동거 47.5%, 혼자 38.5%로 차이를 보임. 특히 혼자는 보통이 35.9%로 다른 집단(7.1%, 2.4%)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비혼여부'는 두 집단 모두 매우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비혼은 44.8%, 비혼이 아닌 경우는 85.7%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47.7%)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각각 59.3%, 84.6%)이 가장 많았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후반이 4.60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중반(4.19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4.67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4.25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4.83점으로 높고, 기타가 4.00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4.03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이 아닌 경우(4.83점)가 비혼(4.32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4.77점)가 없는 경우(4.37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2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4.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휴학포함)이 4.26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70점으로 가장 높고, 중과 하가 4.4점이었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4.77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4.35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85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89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4.53점)가 있는 경우(4.34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가 4.80점으로 가장 높고, 근로자가 4.34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가 4.55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4.32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4.75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4.32점)보다 높았음

[표 3-14] 배우자 또는 연인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보통	약간 신뢰받고있음	매우 신뢰받고있음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3(4.9)	31(50.8)	27(44.3)	23.223 (.000)	4.39
	20대 중반	16(22.2)	26(36.1)	30(41.7)		4.19
	20대 후반	6(6.5)	25(27.2)	61(66.3)		4.60
자치구	동구	1(3.4)	11(37.9)	17(58.6)	14.274 (.075)	4.55
	중구	5(11.4)	12(27.3)	27(61.4)		4.50
	서구	8(12.7)	31(49.2)	24(38.1)		4.25
	유성구	10(16.1)	21(33.9)	31(50.0)		4.34
	대덕구	1(3.7)	7(25.9)	19(70.4)		4.67
동거가족	혼자	14(35.9)	10(25.6)	15(38.5)	52.164 (.000)	4.03
	부모와 함께 동거	10(7.1)	64(45.4)	67(47.5)		4.40
	배우자와 함께 동거	1(2.4)	5(11.9)	36(85.7)		4.83
	기타	0(0.0)	2(100.0)	0(0.0)		4.00
비혼여부	비혼	24(13.1)	77(42.1)	82(44.8)	22.974 (.000)	4.32
	비혼 외	1(2.4)	5(11.9)	36(85.7)		4.83
자녀여부	있다	1(3.8)	4(15.4)	21(80.8)	9.471 (.009)	4.77
	없다	24(12.1)	78(39.2)	97(48.7)		4.37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5(17.2)	4(13.8)	20(69.0)	15.368 (.018)	4.52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7(12.3)	28(49.1)	22(38.6)		4.26
	대학교 졸업	13(9.5)	48(35.0)	76(55.5)		4.46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2(100.0)	0(0.0)		4.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4(14.1)	31(31.3)	54(54.5)	4.723 (.317)	4.40
	중	11(9.5)	48(41.4)	57(49.1)		4.40
	상	0(0.0)	3(30.0)	7(70.0)		4.7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4(20.0)	5(25.0)	11(55.0)	9.148 (.058)	4.35
	중	21(11.5)	72(39.3)	90(49.2)		4.38
	상	0(0.0)	5(22.7)	17(77.3)		4.77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31.8)	21(47.7)	9(20.5)	28.197 (.000)	3.89
	200-300만원 미만	7(8.6)	26(32.1)	48(59.3)		4.51
	300만원 이상	0(0.0)	2(15.4)	11(84.6)		4.85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4(4.6)	33(37.9)	50(57.5)	6.186 (0.045)	4.53
	직업 있음	21(15.2)	49(35.5)	68(49.3)		4.34
현재 직업종류	학생/유학생 포함	3(5.3)	29(50.9)	25(43.9)	19.985 (.010)	4.39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1(20.0)	4(80.0)		4.80
	주부	1(4.0)	3(12.0)	21(84.0)		4.80
	근로자	19(15.2)	45(36.0)	61(48.8)		4.34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15.4)	4(30.8)	7(53.8)		4.38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4(4.7)	32(37.6)	49(57.6)	9.965 (.126)	4.53
	없음 - 있음	2(18.2)	1(9.1)	8(72.7)		4.55
	있음 - 없음	0(0.0)	1(50.0)	1(50.0)		4.50
	있음 - 있음	19(15.0)	48(37.8)	60(47.2)		4.32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2(25.0)	6(75.0)	2.697 (.260)	4.75
	주간 8시간 이상	21(16.2)	47(36.2)	62(47.7)		4.32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과 t 또는 ANOVA의 경우 괄호의 값은 유의확률임

② 부(아버지)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교육정도',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현재 직업종류'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20대 초반은 62.7%, 20대 중반 49.4%, 20대 후반 47.0%로 차이를 보임.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부모와 함께 동거는 56.1%, 배우자와 함께 동거 43.9%, 혼자 44.2%로 차이를 보임. 특히 혼자는 보통이 24.7%로 다른 집단(10.8%, 7.3%)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대학교 재학이 63.8%, 대학교 졸업은 49.6%,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7.7%로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이 15.4%로 다른 집단(1.9%, 2.9%)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상 50.0% 중 49.5%, 하 58.3%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이야기함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상 58.8% 중 53.4%, 하 46.2%로 차이를 보임. 특히 하는 보통이 36.5%로 다른 집단(10.9%, 2.9%)에 비해 컸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각각 65.1%, 47.3%)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54.2%)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는 매우 신뢰받고 있음(41.7%)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집단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음. 응답 비율을 보면 학생이 61.9%인 반면 구직활동/창업준비는 38.9%로 차이를 보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중반이 4.08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3.98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4.13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9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4.09점)가 높고, 기타(3.25점)가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3.92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비혼여부’는 비혼(4.05점)이 비혼 외(3.88점) 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4.05점)가 있는 경우(3.88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4.70점)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3.60점)가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31점으로 가장 높고, 중과 하가 3.84점이었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4.26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3.42점으로 가장 낮았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29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94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4.09점)가 없는 경우(3.96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 포기(5점)가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3.39점)가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4.17점)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4.20점)가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3.92점)가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4.12점)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4.11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67점)보다 높았음

[표 3-15] 부(아버지)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5(3.0)	20(11.8)	106(62.7)	38(22.5)	25.582 (.000)	4.05
	20대 중반	1(0.6)	12(7.1)	16(9.4)	84(49.4)	57(33.5)		4.08
	20대 후반	5(3.0)	4(2.4)	30(17.9)	79(47.0)	50(29.8)		3.98
자치구	동구	2(3.3)	2(3.3)	4(6.6)	33(54.1)	20(32.8)	18.703 (.284)	4.10
	중구	1(1.1)	5(5.3)	10(10.6)	49(52.1)	29(30.9)		4.06
	서구	2(1.4)	7(4.8)	24(16.3)	85(57.8)	29(19.7)		3.90
	유성구	0(0.0)	6(4.1)	18(12.4)	77(53.1)	44(30.3)		4.10
	대덕구	1(1.7)	1(1.7)	10(16.7)	25(41.7)	23(38.3)		4.13
동가족	혼자	2(2.6)	1(1.3)	19(24.7)	34(44.2)	21(27.3)	38.685 (.000)	3.92
	부모와 함께 동거	1(0.3)	15(4.0)	41(10.8)	212(56.1)	109(28.8)		4.09
	배우자와 함께 동거	2(4.9)	4(9.8)	3(7.3)	18(43.9)	14(34.1)		3.93
	기타	1(12.5)	1(12.5)	2(25.0)	3(37.5)	1(12.5)		3.25
비혼여부	비혼	4(0.9)	16(3.4)	63(13.5)	251(54.0)	131(28.2)	14.088 (.007)	4.05
	비혼 외	2(4.8)	5(11.9)	3(7.1)	18(42.9)	14(33.3)	3.88	
자녀여부	있다	2(7.7)	3(11.5)	1(3.8)	10(38.5)	10(38.5)	17.234 (.002)	3.88
	없다	4(0.8)	18(3.7)	65(13.5)	259(53.8)	135(28.1)	4.0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1)	10(15.4)	11(16.9)	31(47.7)	11(16.9)	52.579 (.000)	3.60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3(1.9)	19(11.9)	102(63.8)	36(22.5)		4.07
	대학교 졸업	4(1.5)	8(2.9)	35(12.9)	135(49.6)	90(33.1)		4.10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1(10.0)	1(10.0)	8(80.0)		4.7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13(6.3)	36(17.5)	120(58.3)	35(17.0)	29.862 (.000)	3.84
	중	4(1.4)	7(2.5)	30(10.5)	141(49.5)	103(36.1)	4.16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상	0(0.0)	1(6.3)	0(0.0)	8(50.0)	7(43.8)	43.163 (.000)	4.31
	하	2(3.8)	4(7.7)	19(36.5)	24(46.2)	3(5.8)		3.42
	중	4(1.0)	16(3.8)	46(10.9)	225(53.4)	130(30.9)		4.10
본인 월평균 소득	상	0(0.0)	1(2.9)	1(2.9)	20(58.8)	12(35.3)	30.134 (.000)	4.26
	200만원 미만	0(0.0)	2(2.4)	14(16.9)	54(65.1)	13(15.7)		3.94
	200-300만원 미만	2(1.1)	4(2.2)	26(14.1)	87(47.3)	65(35.3)		4.14
현재 직업여부	300만원 이상	2(8.3)	0(0.0)	0(0.0)	9(37.5)	13(54.2)	4.29	
	직업 없음	2(0.9)	15(6.9)	26(12.0)	119(55.1)	54(25.0)	9.623 (.047)	3.96
현재 직업종류	직업 있음	4(1.4)	6(2.1)	40(13.7)	150(51.5)	91(31.3)	62.372 (.000)	4.09
	학생(휴학생 포함)	1(0.6)	3(1.9)	17(11.0)	96(61.9)	38(24.5)		4.08
	구직활동/창업준비	1(2.8)	8(22.2)	8(22.2)	14(38.9)	5(13.9)		3.39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0(0.0)	1(100.0)		5.00
	주부	0(0.0)	4(16.7)	1(4.2)	9(37.5)	10(41.7)		4.04
	근로자	4(1.5)	6(2.2)	36(13.5)	138(51.7)	83(31.1)		4.09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4(16.7)	12(50.0)	8(33.3)	15.663 (.207)	4.17
	없음 - 없음	2(0.9)	15(7.1)	25(11.8)	117(55.5)	52(24.6)		3.96
	없음 - 있음	1(2.6)	0(0.0)	8(21.1)	21(55.3)	8(21.1)		3.92
	있음 - 없음	0(0.0)	0(0.0)	1(20.0)	2(40.0)	2(40.0)		4.20
근로시간	있음 - 있음	3(1.2)	6(2.4)	32(12.6)	129(51.0)	83(32.8)	4.12	
	주간 8시간 미만	1(8.3)	2(16.7)	1(8.3)	4(33.3)	4(33.3)	18.447 (.001)	3.67
	주간 8시간 이상	3(1.1)	4(1.4)	39(14.0)	146(52.3)	87(31.2)	4.11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③ 모(어머니)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비혼여부’, ‘교육정도’,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현재 직업여부’, ‘현재 직업종류’, ‘근로시간’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20대 초반은 67.5%, 20대 중반 48.5%, 20대 후반 48.0%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부모와 함께 동거는 56.2%, 혼자 53.8%, 배우자와 함께 동거 43.9%로 차이를 보임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대학교 재학이 66.9%, 대학교 졸업은 50.2%,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8.4%로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이 14.1%로 다른 집단(1.9%, 1.4%)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50.0%)이 가장 많았고, 중과 하는 약간 신뢰받고 있음(각각 49.5%, 58.3%)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각각 74.1%, 44.6%)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60.9%)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 외 집단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을 보면 학생이 65.2%인 반면 구직활동/창업준비는 43.2%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두 집단 모두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주간 8시간 미만의 45.5%, 주간 8시간 이상은 51.9%였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중반이 4.27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4.07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4.28점)가 가장 높고, 서구(4.08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4.19점)가 가장 높고, 기타(3.25점)가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동거인 경우(4.02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인 경우(4.17점)가 비혼이 아닌(3.98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4.16점)가 있는 경우(4.00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4.27점)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3.59점)가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47점으로 가장 높고, 하(4.01점)인 경우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4.33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3.82점으로 가장 낮았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39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4.07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4.22점)가 없는 경우(4.06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가 4.24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65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가 4.33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4.05점)가 가장 낮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4.11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67점)보다 높았음

[표 3-16] 모(어머니)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4(2.4)	11(6.5)	114(67.5)	40(23.7)	35.287 (.000)	4.12
	20대 중반	0(0.0)	8(4.7)	9(5.3)	82(48.5)	70(41.4)		4.27
	20대 후반	4(2.3)	4(2.3)	25(14.5)	83(48.0)	57(32.9)		4.07
자차구	등구	2(3.2)	2(3.2)	1(1.6)	38(60.3)	20(31.7)	21.044 (.177)	4.14
	중구	0(0.0)	4(4.2)	8(8.4)	53(55.8)	30(31.6)		4.15
	서구	1(0.7)	6(4.1)	14(9.5)	85(57.8)	41(27.9)		4.08
	유성구	0(0.0)	4(2.7)	15(10.3)	78(53.4)	49(33.6)		4.18
	대덕구	1(1.7)	0(0.0)	7(11.7)	25(41.7)	27(45.0)		4.28
동거가족	혼자	1(1.3)	0(0.0)	11(14.1)	42(53.8)	24(30.8)	36.132 (.000)	4.13
	부모와 함께 동거	1(0.3)	11(2.9)	28(7.3)	214(56.2)	127(33.3)		4.19
	배우자와 함께 동거	1(2.4)	4(9.8)	3(7.3)	18(43.9)	15(36.6)		4.02
	기타	1(12.5)	1(12.5)	2(25.0)	3(37.5)	1(12.5)		3.25
비혼여부	비혼	3(0.6)	11(2.3)	42(9.0)	261(55.7)	152(32.4)	14.171 (.007)	4.17
	비혼 외	1(2.4)	5(11.9)	3(7.1)	18(42.9)	15(35.7)		3.98
자녀여부	있다	1(3.8)	3(11.5)	1(3.8)	11(42.3)	10(38.5)	11.271 (.024)	4.00
	없다	3(0.6)	13(2.7)	44(9.1)	268(55.3)	157(32.4)		4.16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1)	9(14.1)	12(18.8)	31(48.4)	10(15.6)	75.674 (.000)	3.59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3(1.9)	7(4.4)	107(66.9)	43(26.9)		4.19
	대학교 졸업	2(0.7)	4(1.4)	22(7.9)	139(50.2)	110(39.7)		4.2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4(40.0)	2(20.0)	4(40.0)		4.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9(4.3)	17(8.2)	137(65.9)	43(20.7)	30.325 (.000)	4.01
	중	2(0.7)	6(2.1)	28(9.8)	136(47.6)	114(39.9)		4.24
	상	0(0.0)	1(5.9)	0(0.0)	6(35.3)	10(58.8)		4.47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3.6)	2(3.6)	9(16.4)	33(60.0)	9(16.4)	17.631 (.024)	3.82
	중	2(0.5)	13(3.1)	34(8.1)	229(54.5)	142(33.8)		4.18
	상	0(0.0)	1(2.8)	2(5.6)	17(47.2)	16(44.4)		4.33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2(2.4)	5(5.9)	63(74.1)	15(17.6)	36.325 (.000)	4.07
	200-300만원 미만	1(0.5)	1(0.5)	23(12.4)	83(44.6)	78(41.9)		4.27
	300만원 이상	1(4.3)	0(0.0)	2(8.7)	6(26.1)	14(60.9)		4.39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0.9)	13(6.0)	15(6.9)	127(58.5)	60(27.6)	15.466 (.004)	4.06
	직업 있음	2(0.7)	3(1.0)	30(10.2)	152(51.7)	107(36.4)		4.22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0.6)	3(1.9)	8(5.2)	101(65.2)	42(27.1)	56.652 (.000)	4.16
	구직활동/창업준비	1(2.7)	6(16.2)	6(16.2)	16(43.2)	8(21.6)		3.65
	주부	0(0.0)	4(16.0)	1(4.0)	10(40.0)	10(40.0)		4.04
	근로자	2(0.7)	3(1.1)	27(10.0)	139(51.7)	98(36.4)		4.22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3(12.0)	13(52.0)	9(36.0)		4.24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2(0.9)	13(6.2)	15(7.1)	123(58.3)	58(27.5)	20.706 (.055)	4.05
	없음 - 있음	1(2.6)	0(0.0)	6(15.4)	20(51.3)	12(30.8)		4.08
	있음 - 없음	0(0.0)	0(0.0)	0(0.0)	4(66.7)	2(33.3)		4.33
	있음 - 있음	1(0.4)	3(1.2)	24(9.4)	132(51.8)	95(37.3)		4.2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2(18.2)	1(9.1)	5(45.5)	3(27.3)	33.422 (.000)	3.82
	주간 8시간 이상	2(0.7)	1(0.4)	29(10.2)	147(51.9)	104(36.7)		4.2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④ 형제자매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교육정도’,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직업여부’, ‘현재 직업종류’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20대 초반은 61.0%, 20대 중반 49.4%, 20대 후반 41.7%로 차이를 보임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대학교 재학이 62.0%, 대학교 졸업은 47.5%,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42.9%로 차이를 보임. 특히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이 11.1%로 다른 집단이 약 2%인 것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상 58.8%, 중 45.6%, 하 57.3%로 차이를 보임. 특히 응답 빈도가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이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하는 보통(27.6%)이었고, 중과 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각각 34.6%, 35.3%)이었음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 비율을 보면 직업 없음은 55.9%, 46.7%로 분포의 차이를 보임. 특히 응답 빈도가 두 번째로 많은 항목이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직업이 없는 경우 보통(23.0%)이었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매우 신뢰받고 있음(31.9%)이었음
  - ‘현재 직업종류’는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 비율은 학생이 59.2%인 반면 구직활동/창업준비는 40.5%로 차이를 보임. 특히 구직활동/창업준비와 주부는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이 각각 16.2%, 12.0%로 다른 집단이 약 2%인 것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중반이 4.10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초반(3.79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4.12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75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가 3.98점으로 높고, 기타가 3.50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3.78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3.96점)이 아닌 경우(3.71점)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3.95점)가 있는 경우(3.74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4.20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3.44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24점으로 가장 높고, 중과 하가 3.65점이었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4.14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3.66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25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87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4.07점)가 없는 경우(3.76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가 4.23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46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4.09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3.76점으로 가장 낮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4.09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67점)보다 높았음

[표 3-17] 형제자매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5(3.2)	39(25.3)	94(61.0)	16(10.4)	35.586 (.000)	3.79
	20대 중반	2(1.2)	6(3.7)	20(12.2)	81(49.4)	55(33.5)		4.10
	20대 후반	2(1.3)	6(3.8)	39(25.0)	65(41.7)	44(28.2)		3.92
자차구	등구	2(3.3)	2(3.3)	13(21.3)	36(59.0)	8(13.1)	28.034 (.031)	3.75
	중구	1(1.1)	4(4.4)	14(15.6)	55(61.1)	16(17.8)		3.90
	서구	1(0.8)	7(5.5)	32(25.0)	61(47.7)	27(21.1)		3.83
	유상구	0(0.0)	2(1.5)	30(22.2)	59(43.7)	44(32.6)		4.07
	대덕구	0(0.0)	2(3.3)	9(15.0)	29(48.3)	20(33.3)		4.12
동거가족	혼자	1(1.5)	3(4.4)	16(23.5)	28(41.2)	20(29.4)	22.737 (.030)	3.93
	부모와 함께 동거	2(0.6)	10(2.8)	71(20.1)	182(51.4)	89(25.1)		3.98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3(7.3)	8(19.5)	25(61.0)	5(12.2)		3.78
	기타	1(12.5)	0(0.0)	2(25.0)	4(50.0)	1(12.5)		3.50
비혼여부	비혼	3(0.7)	14(3.2)	90(20.8)	215(49.8)	110(25.5)	6.594 (.159)	3.96
	비혼 외	1(2.4)	3(7.1)	8(19.0)	25(59.5)	5(11.9)		3.71
자녀여부	있다	1(3.7)	1(3.7)	5(18.5)	17(63.0)	3(11.1)	5.741 (.219)	3.74
	없다	3(0.7)	16(3.6)	93(20.8)	223(49.9)	112(25.1)		3.9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2)	7(11.1)	21(33.3)	27(42.9)	6(9.5)	59.765 (.000)	3.44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3(2.1)	34(23.9)	88(62.0)	17(12.0)		3.84
	대학교 졸업	2(0.8)	7(2.7)	40(15.4)	123(47.5)	87(33.6)		4.1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3(30.0)	2(20.0)	5(50.0)		4.2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1)	11(5.9)	51(27.6)	106(57.3)	15(8.1)	50.879 (.000)	3.65
	중	2(0.7)	5(1.8)	47(17.3)	124(45.6)	94(34.6)		4.11
	상	0(0.0)	1(5.9)	0(0.0)	10(58.8)	6(35.3)		4.2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4.0)	1(2.0)	16(32.0)	24(48.0)	7(14.0)	20.020 (.010)	3.66
	중	2(0.5)	14(3.6)	81(20.9)	193(49.7)	98(25.3)		3.96
	상	0(0.0)	2(5.6)	1(2.8)	23(63.9)	10(27.8)		4.14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1(1.3)	18(24.0)	46(61.3)	10(13.3)	20.134 (.010)	3.87
	200-300만원 미만	2(1.2)	3(1.8)	30(17.5)	71(41.5)	65(38.0)		4.13
	300만원 이상	0(0.0)	1(4.2)	3(12.5)	9(37.5)	11(45.8)		4.25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1.0)	12(5.9)	47(23.0)	114(55.9)	29(14.2)	23.157 (.000)	3.76
	직업 있음	2(0.7)	5(1.9)	51(18.9)	126(46.7)	86(31.9)		4.07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0(0.0)	3(2.1)	34(23.9)	84(59.2)	21(14.8)	57.040 (.000)	3.87
	구직활동/창업준비	2(5.4)	6(16.2)	8(21.6)	15(40.5)	6(16.2)		3.46
	주부	0(0.0)	3(12.0)	5(20.0)	15(60.0)	2(8.0)		3.64
	근로자	2(0.8)	5(2.0)	47(19.0)	117(47.2)	77(31.0)		4.06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4(18.2)	9(40.9)	9(40.9)		4.23
직업의 변화 (지난해 - 현재)	없음 - 없음	2(1.0)	12(6.1)	46(23.2)	110(55.6)	28(14.1)	28.234 (.005)	3.76
	없음 - 있음	0(0.0)	0(0.0)	11(29.7)	17(45.9)	9(24.3)		3.95
	있음 - 없음	0(0.0)	0(0.0)	1(16.7)	4(66.7)	1(16.7)		4.00
	있음 - 있음	2(0.9)	5(2.1)	40(17.2)	109(46.8)	77(33.0)		4.09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0(0.0)	5(41.7)	2(16.7)	4(33.3)	15.886 (.003)	3.67
	주간 8시간 이상	1(0.4)	5(1.9)	46(17.8)	124(48.1)	82(31.8)		4.09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⑤ 친구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비혼여부’, ‘교육정도’,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현재 직업여부’, ‘현재 직업종류’, ‘근로시간’임

- ‘연령대’는 20대 초반과 20대 후반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각각 54.7%, 53.2%)이 가장 많았고, 20대 중반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41.9%)이 가장 많았음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 52.4%, 부모와 함께 동거는 47.4%, 혼자 40.5%로 차이를 보임. 특히 혼자인 경우 보통에 응답 비율이 29.1%로 다른 집단(11.5%, 11.9%)에 비해 컸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대학교 재학이 54.7%, 대학교 졸업은 45.3%,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37.9%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61.1%)이 가장 많았고, 중과 하는 약간 신뢰받고 있음(각각 48.5%, 42.6%)이 가장 많았음.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각각 51.8%, 42.5%)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58.3%)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두 집단 모두 약간 이야기함에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응답 비율을 보면 직업 없음은 50.5%, 직업 있음은 44.1%로 차이를 보임.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포기 외 집단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을 보면 주부가 56.0%인 반면 구직 활동/창업준비는 32.4%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은 매우 신뢰받고 있음(58.3%)이 가장 많았고, 주간 8시간 이상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45.2%)이 가장 많았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4.39점)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4.04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중구(4.26점)가 가장 높고, 서구(4.08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4.25점)가 가장 높고, 기타(3.29점)가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4.01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비혼여부’는 비혼인 경우(4.20점)가 비혼이 아닌(4.07점)인 경우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4.20점)가 있는 경우(4.04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4.30점)이 가장 높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3.86점)가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4.24점)이 가장 높고, 하(4.11점)가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4.53점)이 가장 높고, 하(3.74점)가 가장 낮았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46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80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4.27점)가 없는 경우(4.13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휴학생 포함)이 4.41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창업 포기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86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직업의 변화’는 직업이 계속 없거나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가 4.28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4.00점)가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직업이 계속 있었던 경우가 4.11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4.17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4.13점)보다 높았음

[표 3-18] 친구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2(1.2)	2(1.2)	93(54.7)	73(42.9)	53.182 (.000)	4.39
	20대 중반	1(0.6)	2(1.2)	41(23.8)	56(32.6)	72(41.9)		4.14
	20대 후반	1(0.6)	2(1.2)	32(18.7)	91(53.2)	45(26.3)		4.04
자취구	동구	1(1.6)	2(3.1)	3(4.7)	33(51.6)	25(39.1)	22.569 (.126)	4.23
	중구	0(0.0)	0(0.0)	16(16.8)	38(40.0)	41(43.2)		4.26
	서구	0(0.0)	3(2.0)	29(19.6)	69(46.6)	47(31.8)		4.08
	유성구	0(0.0)	1(0.7)	19(13.1)	72(49.7)	53(36.6)		4.22
	대덕구	1(1.6)	0(0.0)	8(13.1)	28(45.9)	24(39.3)		4.21
동거가족	혼자	0(0.0)	0(0.0)	23(29.1)	32(40.5)	24(30.4)	63.094 (.000)	4.01
	부모와 함께 동거	0(0.0)	6(1.6)	44(11.5)	181(47.4)	151(39.5)		4.25
	배우자와 함께 동거	1(2.4)	0(0.0)	5(11.9)	22(52.4)	14(33.3)		4.14
	기타	1(14.3)	0(0.0)	2(28.6)	4(57.1)	0(0.0)		3.29
비혼여부	비혼	0(0.0)	6(1.3)	70(14.9)	218(46.4)	176(37.4)	23.143 (.000)	4.20
	비혼 외	2(4.7)	0(0.0)	5(11.6)	22(51.2)	14(32.6)		4.07
자녀여부	있다	1(3.7)	0(0.0)	3(11.1)	16(59.3)	7(25.9)	10.499 (.033)	4.04
	없다	1(10.2)	6(1.2)	72(14.8)	224(46.1)	183(37.7)		4.20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4(6.1)	17(25.8)	25(37.9)	19(28.8)	41.568 (.000)	3.86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1(0.6)	11(6.8)	88(54.7)	61(37.9)		4.30
	대학교 졸업	1(10.4)	1(10.4)	43(15.6)	125(45.3)	106(38.4)		4.21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4(40.0)	2(20.0)	4(40.0)		4.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1(0.5)	38(18.2)	99(47.4)	69(33.0)	12.240 (.141)	4.11
	중	0(0.0)	4(1.4)	36(12.5)	133(46.3)	114(39.7)		4.24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상	0(0.0)	1(5.9)	1(5.9)	8(47.1)	7(41.2)	36.875 (.000)	4.24
	하	1(1.9)	1(1.9)	19(35.2)	23(42.6)	10(18.5)		3.74
	중	1(10.2)	4(40.9)	55(13.0)	205(48.5)	158(37.4)		4.22
본인 월평균 소득	상	0(0.0)	1(2.8)	1(2.8)	12(33.3)	22(61.1)	31.384 (.000)	4.53
	200만원 미만	0(0.0)	0(0.0)	29(34.1)	44(51.8)	12(14.1)		3.80
	200-300만원 미만	1(10.5)	1(10.5)	28(15.1)	79(42.5)	77(41.4)		4.24
현재 직업여부	300만원 이상	0(0.0)	0(0.0)	3(12.5)	7(29.2)	14(58.3)	21.610 (.000)	4.46
	직업 없음	1(10.5)	5(2.3)	15(6.9)	110(50.5)	87(39.9)		4.27
현재 직업종류	직업 있음	1(10.3)	1(10.3)	60(20.3)	130(44.1)	103(34.9)	82.570 (.000)	4.13
	학생(휴학생 포함)	0(0.0)	1(0.6)	2(1.3)	84(54.2)	68(43.9)		4.41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4(10.8)	9(24.3)	12(32.4)	12(32.4)		3.86
	구직/창업 포기	0(0.0)	0(0.0)	1(100.0)	0(0.0)	0(0.0)		3.00
	주부	1(4.0)	0(0.0)	3(12.0)	14(56.0)	7(28.0)		4.04
	근로자	1(10.4)	1(10.4)	54(20.0)	119(44.1)	95(35.2)		4.13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6(24.0)	11(44.0)	8(32.0)	30.850 (.002)	4.08
	없음 - 없음	1(10.5)	5(2.4)	13(6.2)	107(50.7)	85(40.3)		4.28
	없음 - 있음	0(0.0)	1(2.6)	6(15.4)	13(33.3)	19(48.7)		4.28
	있음 - 없음	0(0.0)	0(0.0)	2(28.6)	3(42.9)	2(28.6)		4.00
근로시간	있음 - 있음	1(10.4)	0(0.0)	54(21.1)	117(45.7)	84(32.8)	27.805 (.000)	4.11
	주간 8시간 미만	1(18.3)	0(0.0)	2(16.7)	2(16.7)	7(58.3)		4.17
	주간 8시간 이상	0(0.0)	1(0.4)	58(20.5)	128(45.2)	96(33.9)	4.13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⑥ 직장동료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동거가족’, ‘비혼여부’, ‘자녀여부’,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본인 월평균 소득’, ‘근로시간’임

- ‘동거가족’은 혼자서 부모와 함께 동거는 보통(각각 45.3%, 42.7%)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약간 신뢰받고 있음(56.3%)이 가장 많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은 보통(43.8%)이 가장 많았고, 비혼이 아닌 경우는 약간 신뢰받고 있음(52.9%)이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보통(43.2%)이 가장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약간 신뢰받고 있음(44.4%)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와 중은 보통(각각 45.2%, 41.9%)이 가장 많았고, 상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50.0%)이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와 중은 보통(각각 55.0%, 42.2%)이 가장 많았고, 상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71.4%)이 가장 많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보통(각각 60.7%, 39.4%)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45.8%)이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은 보통(45.7%)이 가장 많았고, 주간 8시간 미만은 약간 신뢰받고 있음(50.0%)이 가장 많았음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이 3.94점으로 가장 높고, 20대 중반(3.43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3.68점으로 가장 높고, 서구가 3.32점으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가 3.94점으로 높고, 기타가 3.00점으로

-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24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이 아닌 경우(3.76점)가 비혼(3.51점)보다 높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3.67점)가 없는 경우(3.52점)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졸업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휴학포함)이 3.25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3.83점으로 가장 높고, 하가 3.10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4.00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2.9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3.96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2.99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3.76점)가 있는 경우(3.51점)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이 4.08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창업 포기가 2.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자(3.49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3.87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3.47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51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42점)보다 높았음

[표 3-19] 직장동료의 나에 대한 신뢰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2(5.9)	5(14.7)	20(58.8)	7(20.6)	27.509 (.001)	3.94
	20대 중반	1(0.8)	14(10.6)	67(50.8)	27(20.5)	23(17.4)		3.43
	20대 후반	0(0.0)	13(9.4)	58(41.7)	53(38.1)	15(10.8)		3.50
자차구	동구	1(2.9)	1(2.9)	13(37.1)	17(48.6)	3(8.6)	34.930 (.004)	3.57
	중구	0(0.0)	3(5.1)	26(44.1)	23(39.0)	7(11.9)		3.58
	서구	0(0.0)	16(18.2)	36(40.9)	28(31.8)	8(9.1)		3.32
	유성구	0(0.0)	6(7.0)	42(48.8)	18(20.9)	20(23.3)		3.60
	대덕구	0(0.0)	3(8.1)	13(35.1)	14(37.8)	7(18.9)		3.68
동거가족	혼자	0(0.0)	16(21.3)	34(45.3)	16(21.3)	9(12.0)	75.114 (.000)	3.24
	부모와 함께 동거	0(0.0)	12(5.8)	88(42.7)	73(35.4)	33(16.0)		3.62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0(0.0)	4(25.0)	9(56.3)	3(18.8)		3.94
	기타	1(16.7)	0(0.0)	3(50.0)	2(33.3)	0(0.0)		3.00
비혼여부	비혼	0(0.0)	29(10.1)	126(43.8)	91(31.6)	42(14.6)	22.525 (.000)	3.51
	비혼 외	1(5.9)	0(0.0)	4(23.5)	9(52.9)	3(17.6)		3.76
자녀여부	있다	1(11.1)	0(0.0)	2(22.2)	4(44.4)	2(22.2)	35.411 (.000)	3.67
	없다	0(0.0)	29(9.8)	128(43.2)	96(32.4)	43(14.5)		3.5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2)	5(11.1)	17(37.8)	18(40.0)	4(8.9)	14.553 (.267)	3.42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5(20.8)	11(45.8)	5(20.8)	3(12.5)		3.25
	대학교 졸업	0(0.0)	18(7.9)	98(42.8)	76(33.2)	37(16.2)		3.58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1(14.3)	4(57.1)	1(14.3)	1(14.3)		3.29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2)	20(23.8)	38(45.2)	20(23.8)	5(6.0)	37.264 (.000)	3.10
	중	0(0.0)	9(4.2)	90(41.9)	77(35.8)	39(18.1)		3.68
	상	0(0.0)	0(0.0)	2(33.3)	3(50.0)	1(16.7)		3.83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2.5)	8(20.0)	22(55.0)	9(22.5)	0(0.0)	31.568 (.000)	2.98
	중	0(0.0)	21(8.4)	106(42.2)	81(32.3)	43(17.1)		3.58
	상	0(0.0)	0(0.0)	2(14.3)	10(71.4)	2(14.3)		4.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18(21.4)	51(60.7)	13(15.5)	2(2.4)	53.238 (.000)	2.99
	200-300만원 미만	1(0.6)	7(3.9)	71(39.4)	69(38.3)	32(17.8)		3.69
	300만원 이상	0(0.0)	0(0.0)	7(29.2)	11(45.8)	6(25.0)		3.96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0(0.0)	4(23.5)	1(5.9)	7(41.2)	5(29.4)	12.491 (.014)	3.76
	직업 있음	1(0.3)	25(8.7)	129(44.8)	93(32.3)	40(13.9)		3.51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0(0.0)	2(15.4)	0(0.0)	6(46.2)	5(38.5)	26.823 (.043)	4.08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1(33.3)	1(33.3)	1(33.3)	0(0.0)		3.00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0(0.0)	0(0.0)	0(0.0)		2.00
	근로자	1(0.4)	23(8.7)	118(44.9)	87(33.1)	34(12.9)		3.49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2(8.0)	11(44.0)	6(24.0)	6(24.0)		3.64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0(0.0)	3(20.0)	1(6.7)	6(40.0)	5(33.3)	23.544 (.023)	3.87
	없음 - 있음	0(0.0)	1(2.7)	12(32.4)	19(51.4)	5(13.5)		3.76
	있음 - 없음	0(0.0)	1(50.0)	0(0.0)	1(50.0)	0(0.0)		3.00
	있음 - 있음	1(0.4)	24(9.6)	117(46.6)	74(29.5)	35(13.9)		3.47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1(8.3)	3(25.0)	6(50.0)	1(8.3)	25.591 (.000)	3.42
	주간 8시간 이상	0(0.0)	24(8.7)	126(45.7)	87(31.5)	39(14.1)		3.51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4) 대전 20대 여성의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유무와 집단 유형**

- 앞에 제시된 집단(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 형제자매, 친구, 직장동료) 이외에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있다’는 응답이 29.3%로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있다고 응답함
-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면 어떤 집단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취미모임(오프라인)’이 6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취미모임(온라인)’ 19.9%, ‘지역사회 단체’ 10.6% 순이었음

**[표 3-20] 대전 20대 여성의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유무와 집단 유형**

(단위: 명, %)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유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의 유형					
있다	없다	계	이웃	취미 모임 (온라인)	취미 모임 (오프라인)	지역사회 단체	정당 모임
151 (29.3)	364 (70.7)	151 (100.0)	4 (2.6)	30 (19.9)	100 (66.2)	16 (10.6)	1 (0.7)

주. 항목별 ‘해당없음’에 응답한 자는 제외한 결과임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21]과 같음
-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고 답한 비율의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중반이 47.7%로 가장 높았고, 20대 초반(20.0%)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42.6%로 가장 높고, 서구가 20.8%로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가 40.5%로 가장 높았고, 혼자가 15.2%로 가장 낮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는 39.5%로 비혼(28.4%) 보다 높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33.2%로 자녀가 있는 경우(29.1%) 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이 50.0%로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휴학포함)이 22.4%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52.9%)이 가장 높고, 하(12.9%)가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44.4%)이 가장 높고, 하(18.2%)가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36.4%)이 가장 높았고, 300만원 이상(16.7%)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31.4%)가 없는 경우(26.5%)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가 52.0%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16.2%점으로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32.3%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가 14.3%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의 응답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25.6%)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33.3%로 주간 8시간 이상(31.3%)보다 높았음

○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면, 어떤 집단인지에 대한 질문에 가장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유형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대 중반 70.7%, 20대 초반 64.7%, 20대 후반 57.1%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20대 초반과 중반은 온라인 취미모임(각각 29.4%, 19.5%)이고, 20대 후반은 지역사회단체(25.7%)였음
- ‘자치구’는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유성구 70.2%, 동구 61.1%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지역사회 단체(52.9%)가 가장 많았고, 혼자서와 부모와 함께 동거는 오프라인 취미모임(각각 75.0%, 72.1%)이 가장 많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는 지역사회단체(52.9%)가 가장 많았고, 비혼은 오프라인 취미모임(72.4%)이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단체(66.7%)가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오프라인 취미모임(70.4%)이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대학교 졸업 75.3%, 고등학교 졸업 이하 35.3%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상 66.7%, 중 73.0%, 하 37.0%로 차이를 보임. 특히 계층이 하인 경우 온라인 취미모임이 33.3%로 다른 집단(17.4%, 11.1%)에 비해 컸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상 56.3%, 중 68.0%, 하 60.0%로 차이를 보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은 지역사회단체(75.0%)가 가장 많고, 200만원 미만과 200-200만원 미만은 오프라인 취미모임(각각 90.5%, 79.4%)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있음 79.6%, 없음 44.8%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는 온라인 취미모임(66.7%)이 가장 많았고, 주부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지역사회단체(각각 46.2%, 50.0%)가 가장 많았음. 그 외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한 자 외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지난해와 현재 직업이 계속 있음 79.5%, 계속 없음 45.6%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취미모임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주간 8시간 미만 50.0%, 8시간 이상 80.9%로 차이를 보임

[표 3-21]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유무와 집단 유형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의 유형				
			이웃	취미 모임 (온라인)	취미 모임 (오프라인)	지역사회 단체	장당 모임
연령대	20대 초반	34(20.0)	1(2.9)	10(29.4)	22(64.7)	0(0.0)	1(2.9)
	20대 중반	82(47.7)	1(1.2)	16(19.5)	58(70.7)	7(8.5)	0(0.0)
	20대 후반	35(20.2)	2(5.7)	4(11.4)	20(57.1)	9(25.7)	0(0.0)
자차구	등구	18(28.1)	1(5.6)	3(16.7)	11(61.1)	3(16.7)	0(0.0)
	중구	29(30.5)	0(0.0)	8(27.6)	20(69.0)	1(3.4)	0(0.0)
	사구	31(20.8)	1(3.2)	7(22.6)	20(64.5)	3(9.7)	0(0.0)
	유성구	47(32.2)	1(2.1)	9(19.1)	33(70.2)	3(6.4)	1(2.1)
	대덕구	26(42.6)	1(3.8)	3(11.5)	16(61.5)	6(23.1)	0(0.0)
동거가족	혼자	12(15.2)	0(0.0)	0(0.0)	9(75.0)	3(25.0)	0(0.0)
	부모와 함께 동거	122(31.9)	2(1.6)	27(22.1)	88(72.1)	4(3.3)	1(0.8)
	배우자와 함께 동거	17(40.5)	2(11.8)	3(17.6)	3(17.6)	9(52.9)	0(0.0)
	기타	0(0.0)	-	-	-	-	-
비혼여부	비혼	134(28.4)	2(1.5)	27(20.1)	97(72.4)	7(5.2)	1(0.7)
	비혼 외	17(39.5)	2(11.8)	3(17.6)	3(17.6)	9(52.9)	0(0.0)
자녀여부	있다	9(33.3)	2(22.2)	1(11.1)	0(0.0)	6(66.7)	0(0.0)
	없다	142(29.1)	2(1.4)	29(20.4)	100(70.4)	10(7.0)	1(0.7)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7(25.8)	1(5.9)	4(23.5)	6(35.3)	5(29.4)	1(5.9)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36(22.4)	1(2.8)	13(36.1)	21(58.3)	1(2.8)	0(0.0)
	대학교 졸업	93(33.5)	2(2.2)	11(11.8)	70(75.3)	10(10.8)	0(0.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5(50.0)	0(0.0)	2(40.0)	3(6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7(12.9)	1(3.7)	9(33.3)	10(37.0)	7(25.9)	0(0.0)
	중	115(39.9)	2(1.7)	20(17.4)	84(73.0)	8(7.0)	1(0.9)
	상	9(52.9)	1(11.1)	1(11.1)	6(66.7)	1(11.1)	0(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0(18.2)	0(0.0)	3(30.0)	6(60.0)	1(10.0)	0(0.0)
	중	125(29.5)	2(1.6)	24(19.2)	85(68.0)	13(10.4)	1(0.8)
	상	16(44.4)	2(12.5)	3(18.8)	9(56.3)	2(12.5)	0(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1(24.7)	0(0.0)	2(9.5)	19(90.5)	0(0.0)	0(0.0)
	200-300만원 미만	68(36.4)	1(1.5)	7(10.3)	54(79.4)	6(8.8)	0(0.0)
	300만원 이상	4(16.7)	0(0.0)	0(0.0)	1(25.0)	3(75.0)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58(26.5)	3(5.2)	21(36.2)	26(44.8)	7(12.1)	1(1.7)
	직업 있음	93(31.4)	1(1.1)	9(9.7)	74(79.6)	9(9.7)	0(0.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39(25.0)	1(2.6)	14(35.9)	22(56.4)	1(2.6)	1(2.6)
	구직활동/창업준비	6(16.2)	0(0.0)	4(66.7)	2(33.3)	0(0.0)	0(0.0)
	구직/창업 포기	0(0.0)	-	-	-	-	-
	주부	13(52.0)	2(15.4)	3(23.1)	2(15.4)	6(46.2)	0(0.0)
	근로자	87(32.1)	1(1.1)	8(9.2)	72(82.8)	6(6.9)	0(0.0)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6(24.0)	0(0.0)	1(16.7)	2(33.3)	3(50.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57(26.9)	2(3.5)	21(36.8)	26(45.6)	7(12.3)	1(1.8)
	없음 - 있음	10(25.6)	0(0.0)	0(0.0)	8(80.0)	2(20.0)	0(0.0)
	있음 - 없음	1(14.3)	1(100.0)	0(0.0)	0(0.0)	0(0.0)	0(0.0)
	있음 - 있음	83(32.3)	1(1.2)	9(10.8)	66(79.5)	7(8.4)	0(0.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4(33.3)	0(0.0)	1(25.0)	2(50.0)	1(25.0)	0(0.0)
	주간 8시간 이상	89(31.3)	1(1.1)	8(9.0)	72(80.9)	8(9.0)	0(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5) 대전 20대 여성 - 사회적 관계의 원만한 정도**

- 가정, 학교 또는 직장 그리고 전반적 사회관계에서 관계가 원만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한 비율로 보면,
  - ‘가정’, ‘학교 또는 직장’, ‘전반적 사회관계’ 세 관계 모두 그러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단, 매우 그러함에 대한 응답은 ‘가정’은 10.5%인 것에 비해 ‘학교 또는 직장’과 ‘전반적 사회관계’는 각각 5.6%, 4.7%로 차이를 보임
- 평균 점수로 보면, ‘가정’에서 관계의 원만함이 3.76점으로 가장 높고, ‘학교 또는 직장’이 3.64점으로 가장 낮았음

**[표 3-22] 대전 20대 여성 - 사회적 관계의 원만한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평균 (표준편차)
가정	515 (100.0)	4 (0.8)	11 (2.1)	142 (27.6)	304 (59.0)	54 (10.5)	3.76 (0.693)
학교 또는 직장	515 (100.0)	6 (1.2)	8 (1.6)	182 (35.3)	290 (56.3)	29 (5.6)	3.64 (0.668)
전반적 사회관계	515 (100.0)	4 (0.8)	8 (1.6)	174 (33.8)	305 (59.2)	24 (4.7)	3.65 (0.631)

① 가정에서 관계의 원만한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동거가족’, ‘교육정도’,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직업종류’임
  - ‘동거가족’은 혼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부모 동거 61.9%, 배우자 동거 69.0%, 기타 50.0%)이 가장 많았고, 혼자는 보통(45.6%)이 가장 많았음

[표 3-23] 가정 내 관계의 원만함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원만하지 않음	별로 원만하지 않음	보통	약간 원만함	매우 원만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2(1.2)	30(17.6)	119(70.0)	19(11.2)	26.844 (.001)	3.91
	20대 중반	2(1.2)	4(2.3)	61(35.5)	96(55.8)	9(5.2)		3.62
	20대 후반	2(1.2)	5(2.9)	51(29.5)	89(51.4)	26(15.0)		3.76
자치구	동구	2(3.1)	2(3.1)	12(18.8)	39(60.9)	9(14.1)	17.004 (.385)	3.80
	중구	0(0.0)	2(2.1)	29(30.5)	55(57.9)	9(9.5)		3.75
	서구	1(0.7)	6(4.0)	45(30.2)	81(54.4)	16(10.7)		3.70
	유성구	1(0.7)	1(0.7)	41(28.1)	91(62.3)	12(8.2)		3.77
	대덕구	0(0.0)	0(0.0)	15(24.6)	38(62.3)	8(13.1)		3.89
동가족	혼자	0(0.0)	3(3.8)	36(45.6)	33(41.8)	7(8.9)	42.603 (.000)	3.56
	부모와 함께 동거	3(0.8)	7(1.8)	90(23.5)	237(61.9)	46(12.0)		3.83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0(0.0)	12(28.6)	29(69.0)	1(2.4)		3.74
	기타	1(12.5)	1(12.5)	2(25.0)	4(50.0)	0(0.0)		3.13
비혼여부	비혼	3(0.6)	11(2.3)	130(27.5)	275(58.3)	53(11.2)	5.995 (.200)	3.77
	비혼 외	1(2.3)	0(0.0)	12(27.9)	29(67.4)	1(2.3)	3.67	
자녀여부	있다	1(3.7)	0(0.0)	5(18.5)	20(74.1)	1(3.7)	6.941 (.139)	3.74
	없다	3(0.6)	11(2.3)	137(28.1)	284(58.2)	53(10.9)	3.76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5)	4(6.1)	29(43.9)	25(37.9)	5(7.6)	39.426 (.000)	3.38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1(0.6)	39(24.2)	107(66.5)	14(8.7)		3.83
	대학교 졸업	1(0.4)	6(2.2)	69(24.8)	168(60.4)	34(12.2)		3.82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5(50.0)	4(40.0)	1(10.0)		3.6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0.5)	5(2.4)	75(35.7)	117(55.7)	12(5.7)	22.270 (.004)	3.64
	중	3(1.0)	5(1.7)	66(22.9)	176(61.1)	38(13.2)		3.84
	상	0(0.0)	1(5.9)	1(5.9)	11(64.7)	4(23.5)		4.06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8)	4(7.3)	34(61.8)	16(29.1)	0(0.0)	53.528 (.000)	3.18
	중	3(0.7)	6(1.4)	100(23.6)	268(63.2)	47(11.1)		3.83
	상	0(0.0)	1(2.8)	8(22.2)	20(55.6)	7(19.4)		3.92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1(1.2)	41(48.2)	39(45.9)	4(4.7)	23.150 (.003)	3.54
	200-300만원 미만	2(1.1)	3(1.6)	48(25.7)	107(57.2)	27(14.4)		3.82
	300만원 이상	0(0.0)	0(0.0)	5(20.8)	12(50.0)	7(29.2)		4.08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0.9)	7(3.2)	48(21.9)	146(66.7)	16(7.3)	13.956 (.007)	3.76
	직업 있음	2(0.7)	4(1.4)	94(31.8)	158(53.4)	38(12.8)	3.76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0(0.0)	2(1.3)	27(17.3)	113(72.4)	14(9.0)	60.269 (.000)	3.89
	구직활동/창업준비	2(5.4)	5(13.5)	13(35.1)	16(43.2)	1(2.7)		3.24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1(100.0)	0(0.0)		4.00
	주부	0(0.0)	0(0.0)	8(32.0)	16(64.0)	1(4.0)		3.72
	근로자	2(0.7)	4(1.5)	84(31.0)	147(54.2)	34(12.5)		3.76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10(40.0)	11(44.0)	4(16.0)		3.76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2(0.9)	7(3.3)	46(21.7)	142(67.0)	15(7.1)	15.533 (.214)	3.76
	없음 - 있음	0(0.0)	1(2.6)	12(30.8)	21(53.8)	5(12.8)		3.77
	있음 - 없음	0(0.0)	0(0.0)	2(28.6)	4(57.1)	1(14.3)		3.86
	있음 - 있음	2(0.8)	3(1.2)	82(31.9)	137(53.3)	33(12.8)		3.76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1(8.3)	2(16.7)	6(50.0)	2(16.7)	16.433 (.002)	3.58
	주간 8시간 이상	1(0.4)	3(1.1)	92(32.4)	152(53.5)	36(12.7)	3.77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은 보통(각각 43.9%, 50.0%)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휴학포함)과 대학교 졸업은 약간 원만함(각각 66.5%, 60.4%)이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보통(61.8%)이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약간 원만함(각각 63.2%, 55.6%)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구직활동/창업준비는 별로 원만하지 않음이 13.5%로 다른 집단이 약 1%인 것에 비해 큰 점과 근로자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매우 원만함이 각각 12.5%, 16.5%로 다른 집단이 0~9% 사이인 것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3.91점)이 가장 높고, 20대 중반(3.62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3.89점)가 가장 높고, 서구(3.70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3.83점)가 가장 높고, 기타가 3.13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56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3.77점)이 비혼 외(3.67점) 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3.76점)가 있는 경우(3.74점) 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3.83점)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3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06점으로 가장 높고, 하가 3.64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3.92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3.1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4.08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54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 포기(4.00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24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이 3.89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77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58점)보다 높았음
- '현재 직업여부'와 '직업의 변화'는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의 비교할 수 없어 제시하지 않음

② 학교 또는 직장 내에서 관계의 원만한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직업종류'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20대 초반은 71.0%, 20대 중반 52.3%, 20대 후반 46.8%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보통(60.0%)이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약간 원만함(각각 58.7%, 69.4%)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 포기과 주부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학생(휴학생 포함)이 69.9%, 구직활동/창업준비는 45.9%로 차이를 보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3.79점)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3.53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유성구(3.71점)가 가장 높고, 대덕구(3.57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3.69점)가 가장 높고, 기타가 3.00점

- 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51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3.65점)이 비혼 외(3.51점) 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3.65점)가 있는 경우(3.44점) 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3.73점)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41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00점으로 가장 높고, 하가 3.58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3.94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3.20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3.83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45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3.64점)가 있는 경우(3.63점)보다 높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근로자가 3.63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창업 포기가 3.0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19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3.65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3.57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3.62점)가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3.67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3.63점) 보다 높았음

[표 3-24] 학교 또는 직장 내 관계의 원만함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원만하지 않음	별로 원만하지 않음	보통	약간 원만함	매우 원만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5(2.9)	36(21.2)	119(70.0)	10(5.9)	35.597 (.000)	3.79
	20대 중반	1(0.6)	3(1.7)	69(40.1)	90(52.3)	9(5.2)		3.60
	20대 후반	5(2.9)	0(0.0)	77(44.5)	81(46.8)	10(5.8)		3.53
자치구	동구	2(3.1)	2(3.1)	20(31.3)	36(56.3)	4(6.3)	13.686 (.622)	3.59
	중구	1(1.1)	0(0.0)	34(35.8)	53(55.8)	7(7.4)		3.68
	서구	2(1.3)	4(2.7)	54(36.2)	82(55.0)	7(4.7)		3.59
	유성구	1(0.7)	1(0.7)	46(31.5)	91(62.3)	7(4.8)		3.70
	대덕구	0(0.0)	1(1.6)	28(45.9)	28(45.9)	4(6.6)		3.57
동거가족	혼자	0(0.0)	1(1.3)	39(49.4)	37(46.8)	2(2.5)	32.307 (.001)	3.51
	부모와 함께 동거	5(1.3)	7(1.8)	113(29.5)	233(60.8)	25(6.5)		3.69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0(0.0)	22(52.4)	18(42.9)	2(4.8)		3.52
	기타	1(12.5)	0(0.0)	5(62.5)	2(25.0)	0(0.0)		3.00
비혼여부	비혼	6(1.3)	8(1.7)	159(33.7)	272(57.6)	27(5.7)	7.468 (.113)	3.65
	비혼 외	0(0.0)	0(0.0)	23(53.5)	18(41.9)	2(4.7)		3.51
자녀여부	있다	0(0.0)	0(0.0)	17(63.0)	8(29.6)	2(7.4)	10.689 (.030)	3.44
	없다	6(1.2)	8(1.6)	165(33.8)	282(57.8)	27(5.5)		3.6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5)	2(3.0)	31(47.0)	25(37.9)	5(7.6)	25.286 (.014)	3.41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4(2.5)	44(27.3)	104(64.6)	9(5.6)		3.73
	대학교 졸업	3(1.1)	2(0.7)	102(36.7)	157(56.5)	14(5.0)		3.6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5(50.0)	4(40.0)	1(10.0)		3.6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0)	5(2.4)	81(38.6)	113(53.8)	9(4.3)	15.674 (.047)	3.58
	중	4(1.4)	2(0.7)	101(35.1)	163(56.6)	18(6.3)		3.66
	상	0(0.0)	1(5.9)	0(0.0)	14(82.4)	2(11.8)		4.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3.6)	3(5.5)	33(60.0)	16(29.1)	1(1.8)	39.203 (.000)	3.20
	중	4(0.9)	4(0.9)	144(34.0)	249(58.7)	23(5.4)		3.67
	상	0(0.0)	1(2.8)	5(13.9)	25(69.4)	5(13.9)		3.94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1(1.2)	48(56.5)	33(38.8)	3(3.5)	17.316 (.027)	3.45
	200-300만원 미만	1(0.5)	1(0.5)	65(34.8)	108(57.8)	12(6.4)		3.69
	300만원 이상	0(0.0)	0(0.0)	8(33.3)	12(50.0)	4(16.7)		3.83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5(2.3)	6(2.7)	61(27.9)	137(62.6)	10(4.6)	16.990 (.002)	3.64
	직업 있음	1(0.3)	2(0.7)	121(40.9)	153(51.7)	19(6.4)		3.63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0.6)	4(2.6)	33(21.2)	109(69.9)	9(5.8)	65.965 (.000)	3.78
	구직활동/창업준비	4(10.8)	2(5.4)	14(37.8)	17(45.9)	0(0.0)		3.19
	구직/창업 포기	0(0.0)	0(0.0)	1(100.0)	0(0.0)	0(0.0)		3.00
	주부	0(0.0)	0(0.0)	13(52.0)	11(44.0)	1(4.0)		3.52
	근로자	1(0.4)	1(0.4)	111(41.0)	141(52.0)	17(6.3)		3.63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1(4.0)	10(40.0)	12(48.0)	2(8.0)		3.60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5(2.4)	6(2.8)	58(27.4)	133(62.7)	10(4.7)	24.743 (.016)	3.65
	없음 - 있음	0(0.0)	1(2.6)	13(33.3)	25(64.1)	0(0.0)		3.62
	있음 - 없음	0(0.0)	0(0.0)	3(42.9)	4(57.1)	0(0.0)		3.57
	있음 - 있음	1(0.4)	1(0.4)	108(42.0)	128(49.8)	19(7.4)		3.63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0(0.0)	6(50.0)	4(33.3)	2(16.7)	3.243 (.518)	3.67
	주간 8시간 이상	1(0.4)	2(0.7)	115(40.5)	149(52.5)	17(6.0)		3.63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③ 전반적 사회관계의 원만한 정도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연령대', '동거가족', '교육정도',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직업여부', '현재 직업종류'임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20대 초반은 76.5%, 20대 중반 51.7%, 20대 후반 49.7%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혼자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부모 동거 63.7%, 배우자 동거 52.4%, 기타 37.5%)이 가장 많았고, 혼자는 보통(50.6%)이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은 보통(각각 51.5%, 50.0%)이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휴학포함)과 대학교 졸업은 약간 원만함(각각 70.2%, 59.7%)이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보통(60.0%)이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약간 원만함(각각 62.7%, 66.7%)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두 집단 모두 약간 원만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직업이 있는 경우 70.3%, 직업이 없는 경우 51.0%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모든 집단이 약간 원만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학생(휴학포함)은 78.8%, 구직활동/창업준비는 43.2%로 차이를 보임. 특히 구직활동/창업준비는 별로 원만하지 않음이 13.5%로 다른 집단이 약 0~1%인 것에 비해 큰 점이 차이점임

○ (집단 간 평균 비교)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초반(3.84점)이 가장 높고, 20대 후반(3.54점)이

-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유성구(3.71점)가 가장 높고, 서구(3.61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부모와 함께 동거(3.72점)가 가장 높고, 기타가 2.88점으로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51점으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3.67점)이 비혼 외(3.49점) 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3.66점)가 있는 경우(3.52점) 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3.77점)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33점으로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4.06점으로 가장 높고, 하가 3.58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상인 경우 3.86점으로 가장 높고, 하인 경우 3.1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3.79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3.41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3.70점)가 있는 경우(3.62점)보다 높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 포기가 4.00점으로 가장 높고, 구직활동/창업준비가 3.19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학생(휴학생 포함)이 3.85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가 3.71점으로 가장 높고,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가 3.54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3.70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62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3.58점)보다 높았음

[표 3-25] 전반적 사회관계의 원만함 정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원만하지 않음	별로 원만하지 않음	보통	약간 원만함	매우 원만함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0(0.0)	2(1.2)	31(18.2)	130(76.5)	7(4.1)	34.936 (.000)	3.84
	20대 중반	1(0.6)	3(1.7)	70(40.7)	89(51.7)	9(5.2)		3.59
	20대 후반	3(1.7)	3(1.7)	73(42.2)	86(49.7)	8(4.6)		3.54
자치구	동구	1(1.6)	3(4.7)	16(25.0)	41(64.1)	3(4.7)	18.443 (.299)	3.66
	중구	0(0.0)	1(1.1)	37(38.9)	54(56.8)	3(3.2)		3.62
	서구	2(1.3)	3(2.0)	54(36.2)	82(55.0)	8(5.4)		3.61
	유성구	1(0.7)	1(0.7)	42(28.8)	97(66.4)	5(3.4)		3.71
	대덕구	0(0.0)	0(0.0)	25(41.0)	31(50.8)	5(8.2)		3.67
동거가족	혼자	0(0.0)	1(1.3)	40(50.6)	35(44.3)	3(3.8)	64.384 (.000)	3.51
	부모와 함께 동거	3(0.8)	5(1.3)	110(28.7)	244(63.7)	21(5.5)		3.72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0(0.0)	20(47.6)	22(52.4)	0(0.0)		3.52
	기타	1(12.5)	2(25.0)	2(25.0)	3(37.5)	0(0.0)		2.88
비혼여부	비혼	4(0.8)	7(1.5)	154(32.6)	283(60.0)	24(5.1)	5.494 (.240)	3.67
	비혼 외	0(0.0)	1(2.3)	20(46.5)	22(51.2)	0(0.0)	3.49	
자녀여부	있다	0(0.0)	1(3.7)	11(40.7)	15(55.6)	0(0.0)	2.870 (.580)	3.52
	없다	4(0.8)	7(1.4)	163(33.4)	290(59.4)	24(4.9)	3.66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0)	4(6.1)	34(51.5)	22(33.3)	4(6.1)	38.526 (.000)	3.33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0(0.0)	1(0.6)	41(25.5)	113(70.2)	6(3.7)		3.77
	대학교 졸업	2(0.7)	3(1.1)	94(33.8)	166(59.7)	13(4.7)		3.67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5(50.0)	4(40.0)	1(10.0)		3.6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0.5)	5(2.4)	81(38.6)	117(55.7)	6(2.9)	21.547 (.006)	3.58
	중	3(1.0)	2(0.7)	93(32.3)	175(60.8)	15(5.2)	3.68	
	상	0(0.0)	1(5.9)	0(0.0)	13(76.5)	3(17.6)	4.06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8)	5(9.1)	33(60.0)	15(27.3)	1(1.8)	53.604 (.000)	3.18
	중	3(0.7)	2(0.5)	134(31.6)	266(62.7)	19(4.5)		3.70
	상	0(0.0)	1(2.8)	7(19.4)	24(66.7)	4(11.1)		3.86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0(0.0)	52(61.2)	31(36.5)	2(2.4)	21.123 (.007)	3.41
	200-300만원 미만	1(0.5)	2(1.1)	64(34.2)	107(57.2)	13(7.0)		3.69
	300만원 이상	0(0.0)	0(0.0)	8(33.3)	13(54.2)	3(12.5)		3.79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3(1.4)	6(2.7)	50(22.8)	154(70.3)	6(2.7)	29.651 (.000)	3.70
	직업 있음	1(0.3)	2(0.7)	124(41.9)	151(51.0)	18(6.1)	3.62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0.6)	1(0.6)	25(16.0)	123(78.8)	6(3.8)	89.854 (.000)	3.85
	구직활동/창업준비	2(5.4)	5(13.5)	14(37.8)	16(43.2)	0(0.0)		3.19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1(100.0)	0(0.0)		4.00
	주부	0(0.0)	0(0.0)	11(44.0)	14(56.0)	0(0.0)		3.56
	근로자	1(10.4)	2(20.7)	113(41.7)	139(51.3)	16(5.9)		3.62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0(0.0)	11(44.0)	12(48.0)	2(8.0)		3.64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3(1.4)	6(2.8)	48(22.6)	149(70.3)	6(2.8)	32.692 (.001)	3.70
	없음 - 있음	0(0.0)	1(2.6)	17(43.6)	20(51.3)	1(2.6)		3.54
	있음 - 없음	0(0.0)	0(0.0)	2(28.6)	5(71.4)	0(0.0)		3.71
	있음 - 있음	1(10.4)	1(10.4)	107(41.6)	131(51.0)	17(6.6)		3.63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1(8.3)	4(33.3)	6(50.0)	1(8.3)	11.222 (.024)	3.58
	주간 8시간 이상	1(10.4)	1(10.4)	120(42.3)	145(51.1)	17(6.0)	3.62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 2)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살에 관한 생각

### 분석 요약

#### (스트레스와 우울감)

- 최근 1년 이내 빈도의 경우 스트레스는 '월 1~회', 우울감은 '년 1~2회'에 가장 많이 답했고, 정도의 경우 스트레스는 평균 2.93점, 우울감은 2.54점임
- 주된 원인의 경우 스트레스는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고, 우울감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음
- 주된 해소방법의 경우 스트레스는 '음주(술)'이었고, 우울감은 '참는다'였고, 해소할 때 주로 함께 하는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친구', 다음은 '혼자'였는데, '혼자'의 비중이 스트레스(23.1%)보다 우울감(38.7%)이 컸음
- 전문가 상담 경험의 경우 스트레스는 3.5%, 우울감은 4.6%였고, 상담을 받지 않은 이유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였음

#### (응답자 특성별 스트레스와 우울감)

- 스트레스와 우울감 모두 높은 집단은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 '구직활동/창업준비', '주간 8시간 미만'이었고,
-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은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구직활동/창업준비', '주부'였음
- 특히 우울감의 원인이 외로움과 고독의 응답비율이 높은 집단은 '20대 초반', '학생' 또는 '구직활동/창업준비' 중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였음. 이때 동거가족이 '혼자'인 경우와 '부모와 함께 동거'인 경우 모두 외로움과 고독에 높은 응답비율을 보임
- 우울감의 주된 해소 방법으로 참는다 또는 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20대 초반', '부모와 함께 동거', '대학교 재학', '학생(휴학생 포함)', '직업 없음'이었고, 우울감을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은 집단은 '혼자' 살거나,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인 경우였음

- 특히 '구직활동/창업준비'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주된 해소 방법을 참는다 또는 잔다고 응답했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혼자라고 응답함
-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겪을 때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다른 집단과 달리 '구직활동/창업준비'의 경우 비용부담,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이용 방법을 모른다, '20대 후반', '배우자와 동거', '주부'인 경우 주위의 시선 때문에 대한 응답비율이 큰 편이었음

### (자살에 관한 생각)

-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5%(44명)이었고, 빈도는 '년 1~2회'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혼자',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구직활동/창업준비'가 자살생각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음
- 원인으로는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로움과 고독', '경제적 어려움'순이었음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중 이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8.2%(30명)이었고, 전문가 상담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가장 많았음

###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 순이었고, 특히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약 80~90%인 것에 비해 자살 생각의 경우 약 50%로 상당히 낮은 편임
-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의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살 생각 모두 친구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스트레스(21.7%)와 우울감(19.1%)과 달리 자살 생각은 부모(32.5%)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1)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①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빈도

- 최근 1년 이내 스트레스를 느꼈던 빈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월 1~2회가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년 3~4회(22.9%), 년 1~2회(18.4%), 주 1~2회(15.3%) 순이었음
- 최근 1년 이내 우울감을 느꼈던 빈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년 1~2회가 4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년 3~4회(24.5%), 월(19.4%), 전혀없다(7.2%) 순이었음

**[표 3-26]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빈도**

(단위: 명, %)

구분	계	전혀 없다	년 1-2회	년 3-4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스트레스	515 (100.0)	4 (0.8)	95 (18.4)	118 (22.9)	191 (37.1)	79 (15.3)	28 (5.4)
우울감	515 (100.0)	37 (7.2)	220 (42.7)	126 (24.5)	100 (19.4)	24 (4.7)	8 (1.6)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27], [표 3-28]과 같음
- 최근 1년 이내 스트레스 빈도 질문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대 초반 42.9%, 20대 후반 34.7%, 20대 중반 33.7%로 차이를 보임
  - ‘자치구’는 동구는 년 3~4회(32.8%)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유성구 49.0%, 대덕구 37.7%, 유성구 33.6%, 중구 30.5%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혼자 43.0%, 부모와 함께 동거 36.6%, 배우자와 함께 동거 33.3%로 차이를 보임
  - ‘비혼여부’는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비혼 37.5%, 비혼 외 32.6%로 차이를 보임

- ‘자녀여부’는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자녀 있음 33.3%, 자녀 없음 37.3%로 차이를 보임. 주 1~2회와 거의 매일에 대한 응답이 자녀가 있는 경우(각각 25.9%, 11.1%)가 없는 경우(각각 14.8%, 5.1%)보다 약 2배 많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3%, 대학교 졸업 34.5%, 대학교 재학 44.1%로 차이를 보임. 거의 매일에 대한 응답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5.2%로 다른 집단(1.2%, 5.8%)에 비해 컸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은 년 3~4회(41.2%)가 가장 많았고, 중과 하는 월 1~2회(각각 28.5%, 49.5%)가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하 45.5%, 중 36.6%, 상 30.6%로 차이를 보임. 거의 매일에 응답한 비율이 계층이 하인 경우 14.5%로 다른 집단(4.2%, 5.6%)에 비해 컸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0만원 미만 47.1%, 200~300만원 미만 28.3%, 300만원 이상 30.6%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있음 40.6%, 없음 34.5%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학생 42.3%, 근로자 33.9%로 차이를 보임. 특히 구직활동/창업준비는 거의 매일이 21.6%로 다른 집단(1.3~12.0%)에 비해 컸음
- ‘직업의 변화’는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41.0%,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 35.4%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이 월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주간 8시간 미만 50.5%, 8시간 이상 33.8%로 차이를 보임

[표 3-27] 스트레스 빈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없다	년 1-2회	년 3-4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연령대	20대 초반	3(1.8)	24(14.1)	45(26.5)	73(42.9)	17(10.0)	8(4.7)
	20대 중반	1(0.6)	42(24.4)	28(16.3)	58(33.7)	31(18.0)	12(7.0)
	20대 후반	0(0.0)	29(16.8)	45(26.0)	60(34.7)	31(17.9)	8(4.6)
자치구	동구	0(0.0)	9(4.1)	21(32.8)	17(26.6)	10(15.6)	7(10.9)
	중구	0(0.0)	22(23.2)	23(24.2)	29(30.5)	18(18.9)	3(3.2)
	서구	1(0.7)	19(12.8)	26(17.4)	73(49.0)	21(14.1)	9(6.0)
	유성구	3(2.1)	31(21.2)	36(24.7)	49(33.6)	21(14.4)	6(4.1)
	대덕구	0(0.0)	14(23.0)	12(19.7)	23(37.7)	9(14.8)	3(4.9)
등거가족	혼자	0(0.0)	6(7.6)	12(15.2)	34(43.0)	22(27.8)	5(6.3)
	부모와 함께 동거	4(1.0)	82(21.4)	94(24.5)	140(36.6)	46(12.0)	17(4.4)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5(11.9)	10(23.8)	14(33.3)	10(23.8)	3(7.1)
	기타	0(0.0)	1(12.5)	2(25.0)	2(25.0)	1(12.5)	2(25.0)
비혼여부	비혼	4(0.8)	90(19.1)	108(22.9)	177(37.5)	69(14.6)	24(5.1)
	비혼 외	0(0.0)	5(11.6)	10(23.3)	14(32.6)	10(23.3)	4(9.3)
자녀여부	있다	0(0.0)	2(7.4)	6(22.2)	9(33.3)	7(25.9)	3(11.1)
	없다	4(0.8)	93(19.1)	112(23.0)	182(37.3)	72(14.8)	25(5.1)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0)	9(13.6)	13(19.7)	22(33.3)	12(18.2)	10(15.2)
	대학교 재학(유학포함)	4(2.5)	28(17.4)	42(26.1)	71(44.1)	14(8.7)	2(1.2)
	대학교 졸업	0(0.0)	52(18.7)	61(21.9)	96(34.5)	53(19.1)	16(5.8)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6(60.0)	2(20.0)	2(2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0(0.0)	14(6.7)	43(20.5)	104(49.5)	35(16.7)	14(6.7)
	중	4(1.4)	76(26.4)	68(23.6)	85(29.5)	42(14.6)	13(4.5)
	상	0(0.0)	5(29.4)	7(41.2)	2(11.8)	2(11.8)	1(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0(0.0)	4(7.3)	6(10.9)	25(45.5)	12(21.8)	8(14.5)
	중	4(0.9)	83(19.6)	103(24.3)	155(36.6)	61(14.4)	18(4.2)
	상	0(0.0)	8(22.2)	9(25.0)	11(30.6)	6(16.7)	2(5.6)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0(0.0)	13(15.3)	12(14.1)	40(47.1)	16(18.8)	4(4.7)
	200-300만원 미만	0(0.0)	44(23.5)	44(23.5)	53(28.3)	37(19.8)	9(4.8)
	300만원 이상	0(0.0)	4(16.7)	7(29.2)	9(37.5)	3(12.5)	1(4.2)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4(1.8)	34(15.5)	55(25.1)	89(40.6)	23(10.5)	14(6.4)
	직업 있음	0(0.0)	61(20.6)	63(21.3)	102(34.5)	56(18.9)	14(4.7)
현재 직업종류	학생/유학생 포함	4(2.6)	27(17.3)	45(28.8)	66(42.3)	12(7.7)	2(1.3)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3(8.1)	5(13.5)	14(37.8)	7(18.9)	8(21.6)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0(0.0)	0(0.0)	1(100.0)
	주부	0(0.0)	4(16.0)	5(20.0)	9(36.0)	4(16.0)	3(12.0)
	근로자	0(0.0)	59(21.8)	58(21.4)	92(33.9)	51(18.8)	11(4.1)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2(8.0)	5(20.0)	10(40.0)	5(20.0)	3(12.0)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4(1.9)	34(16.0)	53(25.0)	87(41.0)	21(9.9)	13(6.1)
	없음 - 있음	0(0.0)	8(20.5)	8(20.5)	11(28.2)	8(20.5)	4(10.3)
	있음 - 없음	0(0.0)	0(0.0)	2(28.6)	2(28.6)	2(28.6)	1(14.3)
	있음 - 있음	0(0.0)	53(20.6)	55(21.4)	91(35.4)	48(18.7)	10(3.9)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0(0.0)	2(16.7)	6(50.0)	2(16.7)	2(16.7)
	주간 8시간 이상	0(0.0)	61(21.5)	61(21.5)	96(33.8)	54(19.0)	12(4.2)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28] 우울감 빈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전혀 없다	년 1-2회	년 3-4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연령대	20대 초반	22(12.9)	90(52.9)	28(16.5)	24(14.1)	6(3.5)	0(0.0)
	20대 중반	8(4.7)	73(42.4)	30(17.4)	45(26.2)	11(6.4)	5(2.9)
	20대 후반	7(4.0)	57(32.9)	68(39.3)	31(17.9)	7(4.0)	3(1.7)
자취구	동구	4(6.3)	24(37.5)	18(28.1)	10(15.6)	4(6.3)	4(6.3)
	중구	7(7.4)	47(49.5)	24(25.3)	14(14.7)	3(3.2)	0(0.0)
	서구	10(6.7)	63(42.3)	30(20.1)	34(22.8)	10(6.7)	2(1.3)
	유성구	12(8.2)	58(39.7)	39(26.7)	31(21.2)	5(3.4)	1(0.7)
	대덕구	4(6.6)	28(45.9)	15(24.6)	11(18.0)	2(3.3)	1(1.6)
등거가족	혼자	2(2.5)	18(22.8)	13(16.5)	33(41.8)	12(15.2)	1(1.3)
	부모와 함께 동거	2(6.8)	17(44.6)	10(27.9)	6(16.4)	1(23.1)	4(1.0)
	배우자와 함께 동거	8(9.0)	29(39.0)	3(7.1)	2(4.8)	0(0.0)	0(0.0)
	기타	1(12.5)	2(25.0)	1(12.5)	1(12.5)	0(0.0)	3(37.5)
비혼여부	비혼	29(6.1)	191(40.5)	123(26.1)	98(20.8)	24(5.1)	7(1.5)
	비혼 외	8(18.6)	29(67.4)	3(7.0)	2(4.7)	0(0.0)	1(2.3)
자녀여부	있다	6(22.2)	16(59.3)	2(7.4)	2(7.4)	0(0.0)	1(3.7)
	없다	31(6.4)	204(41.8)	124(25.4)	98(20.1)	24(4.9)	7(1.4)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5)	31(47.0)	12(18.2)	14(21.2)	4(6.1)	4(6.1)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21(13.0)	79(49.1)	26(16.1)	29(18.0)	6(3.7)	0(0.0)
	대학교 졸업	15(5.4)	107(38.5)	83(29.9)	55(19.8)	14(5.0)	4(1.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3(30.0)	5(50.0)	2(2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1(10.0)	102(48.6)	27(12.9)	43(20.5)	11(5.2)	6(2.9)
	중	16(5.6)	110(38.2)	92(31.9)	55(19.1)	13(4.5)	2(0.7)
	상	0(0.0)	8(47.1)	7(41.2)	2(11.8)	0(0.0)	0(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0(0.0)	14(25.5)	8(14.5)	20(36.4)	8(14.5)	5(9.1)
	중	3(27.5)	189(44.6)	106(25.0)	78(18.4)	16(3.8)	3(0.7)
	상	5(13.9)	17(47.2)	12(33.3)	2(5.6)	0(0.0)	0(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2)	22(25.9)	13(15.3)	40(47.1)	8(9.4)	1(1.2)
	200-300만원 미만	5(2.7)	77(41.2)	66(35.3)	30(16.0)	7(3.7)	2(1.1)
	300만원 이상	0(0.0)	11(45.8)	10(41.7)	3(12.5)	0(0.0)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31(14.2)	110(50.2)	37(16.9)	27(12.3)	9(4.1)	5(2.3)
	직업 있음	6(2.0)	110(37.2)	89(30.1)	73(24.7)	15(5.1)	3(1.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22(14.1)	84(53.8)	25(16.0)	20(12.8)	4(2.6)	1(0.6)
	구직활동/창업준비	2(5.4)	10(27.0)	11(29.7)	6(16.2)	5(13.5)	3(8.1)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0(0.0)	0(0.0)	1(100.0)
	주부	7(28.0)	16(64.0)	1(4.0)	1(4.0)	0(0.0)	0(0.0)
	근로자	6(2.2)	101(37.3)	84(31.0)	65(24.0)	13(4.8)	2(0.7)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0(0.0)	9(36.0)	5(20.0)	8(32.0)	2(8.0)	1(4.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31(14.6)	109(51.4)	36(17.0)	24(11.3)	8(3.8)	4(1.9)
	없음 - 있음	0(0.0)	23(59.0)	10(25.6)	2(5.1)	3(7.7)	1(2.6)
	있음 - 없음	0(0.0)	1(14.3)	1(14.3)	3(42.9)	1(14.3)	1(14.3)
	있음 - 있음	6(2.3)	87(33.9)	79(30.7)	71(27.6)	12(4.7)	2(0.8)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5(41.7)	1(8.3)	3(25.0)	1(8.3)	1(8.3)
	주간 8시간 이상	5(1.8)	105(37.0)	88(31.0)	70(24.6)	14(4.9)	2(0.7)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 최근 1년 이내 우울감 빈도 질문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은 년 1~2회(각각 42.9%, 42.4%)가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은 년 3~4회(39.3%)가 가장 많았음
  - ‘자치구’는 모든 자치구가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대덕구 45.9%, 동구 37.5%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혼자인 경우 월 1~2회(41.8%)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집단은 년 1~2회가 가장 많았음. 특히 동거가족 유형이 혼자인 경우 주 1~2회와 거의 매일의 응답비율의 합이 약 16%로 높은 편임
  - ‘비혼여부’는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비혼 40.5%, 비혼 외 67.4%로 차이를 보임. 특히 비혼의 경우 년 3~4회와 월 1~2회의 응답비율의 합이 약 47%로 비혼 외(약 12%)에 비해 컸음
  - ‘자녀여부’는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자녀 있음 59.3%, 자녀 없음 41.8%로 차이를 보임. 특히 자녀가 없는 경우 년 3~4회와 월 1~2회의 응답 비율의 합이 약 46%로 자녀가 있는 집단(약 14%)에 비해 컸음
  - ‘교육정도’는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대학교 재학 49.1%,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0%, 대학교 졸업 38.5%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하 48.6%, 중 38.2%, 상 47.1%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월 1~2회(47.1%)가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년 1~2회(각각 44.6%, 47.2%)가 가장 많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1~2회(47.1%)가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년 1~2회(각각 41.2%, 45.8%)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있음 37.2%, 없음 50.2%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와 구직/창업포기 외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음. 구직활동/창업준비는 년 3~4회(29.7%)가 가장 많았고, 주 1~2회와 거의 매일의 응답비율 합이 약 22%로 다른 집단(약 5~12%)에 비해 컸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월 1~2회(42.9%)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모든 집단은 년 1~2회가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이 년 1~2회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주간 8시간 미만 41.7%, 8시간 이상 37.0%로 차이를 보임

②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도

- 최근 1년 이내 스트레스를 느꼈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낮았다(31.3%)였음
- 최근 1년 이내 우울감을 느꼈던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낮았다가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통(34.1%)였음
- 평균을 비교하면, 스트레스(2.93점)가 우울감(2.54점) 보다 높았음

**[표 3-29]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계	매우 낮았다	낮았다	보통	높았다	매우 높았다	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스	511 (100.0)	12 (2.3)	160 (31.3)	207 (40.5)	115 (22.5)	17 (3.3)	2.93 (0.873)
우울감	478 (100.0)	40 (8.4)	212 (44.4)	163 (34.1)	55 (11.5)	8 (1.7)	2.54 (0.865)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30], [표 3-31] 과 같음

[표 3-30] 스트레스 정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낮았다	낮았다	보통	높았다	매우 높았다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9(5.4)	56(33.5)	64(38.3)	34(20.4)	4(2.4)	13.521 (.095)	2.81
	20대 중반	2(1.2)	55(32.2)	67(39.2)	42(24.6)	5(2.9)		2.96
	20대 후반	1(0.6)	49(28.3)	76(43.9)	39(22.5)	8(4.6)		3.02
자차구	동구	2(3.1)	21(32.8)	19(29.7)	17(26.6)	5(7.8)	18.085 (.319)	3.03
	중구	1(1.1)	28(29.5)	42(44.2)	22(23.2)	2(2.1)		2.96
	서구	2(1.4)	40(27.0)	69(46.6)	31(20.9)	6(4.1)		2.99
	유성구	5(3.5)	49(34.3)	58(40.6)	30(21.0)	1(0.7)		2.81
	대덕구	2(3.3)	22(36.1)	19(31.1)	15(24.6)	3(4.9)		2.92
동가가족	혼자	0(0.0)	12(15.2)	45(57.0)	20(25.3)	2(2.5)	34.821 (.000)	3.15
	부모와 함께 동거	12(3.2)	135(35.6)	141(37.2)	80(21.1)	11(2.9)		2.85
	배우자와 함께 동거	0(0.0)	11(26.2)	16(38.1)	13(31.0)	2(4.8)		3.14
	기타	0(0.0)	1(12.5)	4(50.0)	1(12.5)	2(25.0)		3.50
비혼여부	비혼	12(2.6)	149(31.8)	191(40.8)	102(21.8)	14(3.0)	4.847 (.303)	2.91
	비혼 외	0(0.0)	11(25.6)	16(37.2)	13(30.2)	3(7.0)		3.19
자녀여부	있다	0(0.0)	8(29.6)	9(33.3)	8(29.6)	2(7.4)	3.127 (.537)	3.15
	없다	12(2.5)	152(31.4)	198(40.9)	107(22.1)	15(3.1)		2.9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0(0.0)	10(15.2)	23(34.8)	26(39.4)	7(10.6)	44.098 (.000)	3.45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7(4.5)	59(37.6)	66(42.0)	22(14.0)	3(1.9)		2.71
	대학교 졸업	4(1.4)	89(32.0)	112(40.3)	66(23.7)	7(2.5)		2.9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2(20.0)	6(60.0)	1(10.0)	0(0.0)		2.7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3(1.4)	49(23.3)	97(46.2)	53(25.2)	8(3.8)	21.327 (.006)	3.07
	중	8(2.8)	102(35.9)	109(38.4)	56(19.7)	9(3.2)		2.85
	상	1(5.9)	9(52.9)	1(5.9)	6(35.3)	0(0.0)		2.71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0(0.0)	11(20.0)	23(41.8)	17(30.9)	4(7.3)	14.904 (.061)	3.25
	중	11(2.6)	135(32.1)	176(41.9)	86(20.5)	12(2.9)		2.89
	상	1(2.8)	14(38.9)	8(22.2)	12(33.3)	1(2.8)		2.94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2)	24(28.2)	47(55.3)	10(11.8)	3(3.5)	17.389 (.026)	2.88
	200-300만원 미만	3(1.6)	64(34.2)	65(34.8)	49(26.2)	6(3.2)		2.95
	300만원 이상	0(0.0)	4(16.7)	15(62.5)	5(20.8)	0(0.0)		3.04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8(3.7)	68(31.6)	80(37.2)	51(23.7)	8(3.7)	4.404 (.354)	2.92
	직업 있음	4(1.4)	92(31.1)	127(42.9)	64(21.6)	9(3.0)		2.94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8(5.3)	55(36.2)	60(39.5)	27(17.8)	2(1.3)	67.110 (.000)	2.74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6(16.2)	10(27.0)	17(45.9)	4(10.8)		3.51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0(0.0)	1(100.0)		5.00
	주부	0(0.0)	7(28.0)	10(40.0)	7(20.0)	1(4.0)		3.08
	근로자	3(1.1)	88(32.5)	114(42.1)	57(21.0)	9(3.3)		2.93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4.0)	4(16.0)	13(52.0)	7(28.0)	0(0.0)		3.04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8(3.8)	66(31.7)	79(38.0)	48(23.1)	7(3.4)	14.107 (.294)	2.90
	없음 - 있음	1(2.6)	14(35.9)	11(28.2)	12(30.8)	1(2.6)		2.95
	있음 - 없음	0(0.0)	2(28.6)	1(14.3)	3(42.9)	1(14.3)		3.43
	있음 - 있음	3(1.2)	78(30.4)	116(45.1)	52(20.2)	8(3.1)		2.9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1(8.3)	4(33.3)	5(41.7)	2(16.7)	12.480 (.014)	3.67
	주간 8시간 이상	4(1.4)	91(32.0)	123(43.3)	59(20.8)	7(2.5)		2.91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표 3-31] 우울감 정도(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매우 낮았다	낮았다	보통	높았다	매우 높았다	카이제곱	평균	
연령대	20대 초반	20(13.5)	77(52.0)	34(23.0)	17(11.5)	0(0.0)	27.719 (.001)	2.32
	20대 중반	4(2.4)	71(43.3)	65(39.6)	21(12.8)	3(1.8)		2.68
	20대 후반	1(0.6)	64(38.6)	64(38.6)	17(10.2)	5(3.0)		2.58
자차구	동구	6(10.0)	26(43.3)	19(31.7)	6(10.0)	3(5.0)	24.235 (.084)	2.57
	중구	4(4.5)	48(54.5)	32(36.4)	3(3.4)	1(1.1)		2.42
	서구	13(9.4)	54(38.8)	48(34.5)	21(15.1)	3(2.2)		2.62
	유성구	14(10.4)	60(44.8)	46(34.3)	13(9.7)	1(0.7)		2.46
	대덕구	3(5.3)	24(42.1)	18(31.6)	12(21.1)	0(0.0)		2.68
동가족	혼자	2(2.6)	20(26.0)	41(53.2)	14(18.2)	0(0.0)	110.856 (.000)	2.87
	부모와 함께 동거	3(08.4)	179(50.1)	110(30.8)	33(9.2)	5(1.4)		2.45
	배우자와 함께 동거	7(20.6)	12(35.3)	8(23.5)	7(20.6)	0(0.0)		2.44
	기타	1(14.3)	1(14.3)	1(14.3)	1(14.3)	3(42.9)		3.57
비혼여부	비혼	33(7.4)	200(45.1)	155(35.0)	48(10.8)	7(1.6)	11.053 (.026)	2.54
	비혼 외	7(20.0)	12(34.3)	8(22.9)	7(20.0)	1(2.9)		2.51
자녀여부	있다	5(23.8)	6(28.6)	5(23.8)	4(19.0)	1(4.8)	10.511 (.033)	2.52
	없다	35(7.7)	206(45.1)	158(34.6)	51(11.2)	7(1.5)		2.54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6)	21(32.3)	23(35.4)	14(21.5)	4(6.2)	30.551 (.002)	2.92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6(11.4)	70(50.0)	42(30.0)	12(8.6)	0(0.0)		2.36
	대학교 졸업	20(7.6)	120(45.6)	91(34.6)	28(10.6)	4(1.5)		2.5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1(10.0)	7(70.0)	1(10.0)	0(0.0)		2.8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8(9.5)	73(38.6)	73(38.6)	21(11.1)	4(2.1)	14.104 (.079)	2.58
	중	21(7.7)	129(47.4)	89(32.7)	29(10.7)	4(1.5)		2.51
	상	1(5.9)	10(58.8)	1(5.9)	5(29.4)	0(0.0)		2.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1.8)	15(27.3)	23(41.8)	12(21.8)	4(7.3)	35.662 (.000)	3.05
	중	38(9.7)	179(45.7)	135(34.4)	36(9.2)	4(1.0)		2.46
	상	1(3.2)	18(58.1)	5(16.1)	7(22.6)	0(0.0)		2.5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6.0)	31(36.9)	41(48.8)	6(7.1)	1(1.2)	11.285 (.186)	2.61
	200-300만원 미만	15(8.2)	83(45.6)	64(35.2)	18(9.9)	2(1.1)		2.50
	300만원 이상	1(4.2)	10(41.7)	7(29.2)	6(25.0)	0(0.0)		2.75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9(10.1)	88(46.8)	51(27.1)	25(13.3)	5(2.7)	8.623 (.071)	2.52
	직업 있음	21(7.2)	124(42.8)	112(38.6)	30(10.3)	3(1.0)		2.55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7(12.7)	71(53.0)	33(24.6)	12(9.0)	1(0.7)	60.228 (.000)	2.32
	구직활동/창업준비	0(0.0)	10(28.6)	13(37.1)	8(22.9)	4(11.4)		3.17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1(100.0)	0(0.0)		4.00
	주부	2(11.1)	7(38.9)	5(27.8)	4(22.2)	0(0.0)		2.61
	근로자	18(6.8)	118(44.5)	102(38.5)	24(9.1)	3(1.1)		2.53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3(12.0)	6(24.0)	10(40.0)	6(24.0)	0(0.0)		2.76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19(10.5)	86(47.5)	50(27.6)	21(11.6)	5(2.8)	27.208 (.007)	2.49
	없음 - 있음	3(7.7)	17(43.6)	11(28.2)	7(17.9)	1(2.6)		2.64
	있음 - 없음	0(0.0)	2(28.6)	1(14.3)	4(57.1)	0(0.0)		3.29
	있음 - 있음	18(7.2)	107(42.6)	101(40.2)	23(9.2)	2(0.8)		2.5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0.1)	4(36.4)	1(0.1)	4(36.4)	1(0.1)	17.401 (.002)	3.00
	주간 8시간 이상	20(7.2)	120(43.0)	111(39.8)	26(9.3)	2(0.7)		2.53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이며, 카이제곱은 유의확률임

- 최근 1년 이내 스트레스 정도 질문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동거가족’, ‘교육정도’, ‘현재 직업종류’임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보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을 보면 혼자 57.0%, 배우자와 함께 동거 38.1%, 부모와 함께 동거 37.2%로 차이를 보임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높았다(39.4%)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집단은 보통(대학교 재학 42.0%, 대학교 졸업 40.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60.0%)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의 경우 높았다(45.9%)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모든 집단은 보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학생(휴학포함)은 39.5%,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52.0%로 차이를 보임 (구직/창업포기의 경우 매우 높았다(100%)가 가장 많았지만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함)
- (집단 간 평균 비교)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후반(3.02점)이 가장 높고, 20대 초반(2.81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동구(3.03점)가 가장 높고, 유성구(2.81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기타(3.50점)가 가장 높고, 부모와 함께 동거(2.85점)가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3.15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3.19점)가 비혼(2.91점) 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3.15점)가 없는 경우(2.92점) 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3.45점)가 가장 높았고, 대학원 재학

- 또는 졸업(2.70점)이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하인 경우 3.07점으로 가장 높고, 상이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하인 경우 3.25점으로 가장 높고, 중은 2.89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3.04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 미만(2.88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2.94점)가 없는 경우(2.92점)보다 높았음.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 포기(5.00점)가 가장 높았고, 학생(2.74점)이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창업준비(3.51점)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가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2.90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2.95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이 3.67점으로 주간 8시간 미만(2.91점)보다 높았음

- 최근 1년 이내 우울감 정도 질문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집단 간 분포 비교 - 카이제곱 검정) 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응답자 특성(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은 ‘동거가족’,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현재 직업종류’임
  - ‘동거가족’은 혼자인 경우 보통(53.2%)이 가장 많았고, 배우자와 함께 동거와 부모와 함께 동거는 낮았다(각각 50.1%, 35.3%)가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보통(41.8%)이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낮았다(각각 45.7%, 58.1%)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의 경우 보통(각각 37.1%, 40.0%)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모든 집단은 낮았다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학생(휴학포함)은 53.0%, 근로자 44.5%, 주부는 38.9%로 차이를 보임. 특히 구직활동/창업준비 경우 매우 높았다의 응답비율의 11.4%로 다른 집단(약 0~1%)에 비해 높은 편임(구직/창업포기의 경우 높았다(100%)가 가장 많았지만 응답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함)

○ (집단 간 평균 비교)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평균값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 ‘연령대’에서는 20대 중반(2.68점)이 가장 높고, 20대 초반(2.32점)이 가장 낮았고, ‘자치구’는 대덕구(2.68점)가 가장 높고, 중구(2.42점)가 가장 낮았음
- ‘동거가족’은 기타(3.57점)가 가장 높고, 배우자와 함께 동거(2.44점)가 가장 낮았음 (단, 기타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혼자인 경우가 2.87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비혼여부’는 비혼(2.54점)이 비혼 외(2.51점) 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2.54점)가 있는 경우(2.52점) 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2.92점)가 가장 높았고, 대학교 재학(2.36점)이 가장 낮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은 상인 경우 2.59점으로 가장 높고, 중이 2.51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구 기준은 하인 경우 3.05점으로 가장 높고, 중은 2.46점으로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2.75점)이 가장 높고, 200만원~300만원 미만(2.50점)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있는 경우(2.55점)가 없는 경우(2.52점)보다 높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창업 포기(4.00점)가 가장 높았고, 학생(2.32점)이 가장 낮았음(단, 구직/창업 포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창업준비(3.17점)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가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가 2.49점으로 가장 낮았음(단,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의 응답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2.64점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이 3.00점으로 주간 8시간 이상(2.53점)보다 높았음

### ③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원인

#### ○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6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인관계(11.0%), 경제적 어려움(9.6%) 순이었음
- 대인과의 갈등이라고 응답한 경우 친구(24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장동료(14명), 직장상사(12명), 애인(2명) 순이었음(그 외 부, 모, 배우자, 지인 각 1명이었음)
- 기타는 자녀양육문제(2명), 코로나19로 인해(1명) 이었음

#### ○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로움과 고독(19.9%), 경제적 어려움(14.9%) 순이었음
- 대인과의 갈등이라고 응답한 경우 친구(8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장동료(7명), 직장상사(4명), 애인(2명) 순이었음(그 외 부, 모 각 1명이었음)
- 기타는 외모(1명), 코로나19로 인해(1명) 이었음

[표 3-32]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

구분	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과 고독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대인 관계의 갈등	기타
스트레스	511 (100.0)	49 (9.6)	23 (4.5)	30 (5.9)	350 (68.5)	56 (11.0)	3 (0.6)
우울감	478 (100.0)	71 (14.9)	15 (3.1)	95 (19.9)	273 (57.1)	23 (4.8)	1 (0.2)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33], [표 3-34]와 같음

○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대 초반 82.0%, 20대 중반 65.5%, 20대 후반 58.4%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초반은 대인관계의 갈등(10.8%)이었고, 20대 중반과 20대 후반은 경제적 어려움(각각 12.9%, 11.6%)이었음
- ‘자치구’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유성구 73.4%, 대덕구 54.1%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혼자 78.5%, 부모와 함께 동거 71.2%, 배우자와 함께 동거 31.0%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혼자는 경제적 어려움(10.1%)이었고, 부모와 함께 동거와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대인관계의 갈등(각각 11.3%, 19.0%)이었음

- ‘비혼여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비혼 72.0%, 비혼 외 30.2%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비혼은 대인관계의 갈등(10.3%)이었고, 비혼 외는 경제적 어려움(18.6%)과 대인관계의 갈등(18.6%)이었음
- ‘자녀여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70.7%, 자녀가 있는 경우 29.6%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대인관계의 갈등(11.4%)이었고, 유자녀는 경제적 어려움(25.9%)이었음
- ‘교육정도’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인관계의 갈등이었음.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은 대학교 재학 83.4%, 대학교 졸업 64.4%, 고등학교 졸업 이하 54.5%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인관계의 갈등이었음.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 82.4%, 하 69.5%, 중 66.9%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하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10.8%)이었고, 중과 상은 대인관계의 갈등(각각 10.7%, 22.2%)이었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200만원 미만은 경제적 어려움(12.9%)이었고, 200-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대인관계의 갈등(각각 11.2%, 16.7%)이었음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 많았고, 다음은 대인관계의 갈등이었음.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은 직업없음 71.2%, 직업있음 66.6%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는 경제적 어려움(24.0%)과 대인관계의 갈등(24.0%)이 많았고, 그 외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구직활동/창업준비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경제적 어려움(각각 16.2%, 8.0%)이고, 학생과 근로자는 대인관계의 갈등(각각 9.2%, 12.2%)이었음
  - '직업의 변화'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23.1%)이었고, 그 외는 대인관계의 갈등이었음
  - '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주간 8시간 미만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25.0%)과 건강 문제(25.0%)였고, 주간 8시간 이상은 대인관계의 갈등(12.0%)이었음

○ 우울감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을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대 초반 64.2%, 20대 중반 56.1%, 20대 후반 51.8%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은 외로움과 고독(각각 23.6%, 18.3%)이었고, 20대 후반은 경제적 어려움(21.1%)이었음
- '자치구'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유성구 73.4%, 대덕구 54.1%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혼자 78.5%, 부모와 함께 동거 71.2%, 배우자와 함께

- 동거 31.0%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경제적 어려움(23.5%)이었고, 혼자서 부모와 함께 동거는 외로움과 고독(각각 20.8%, 21.3%)이었음
- ‘비혼여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비혼 58.7%, 비혼 외 37.1%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비혼은 외로움과 고독(20.8%)이었고, 비혼 외는 경제적 어려움(25.7%)이었음
  - ‘자녀여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자녀가 없는 경우 58.0%, 자녀가 있는 경우 38.1%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외로움과 고독(20.1%)이었고, 자녀가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28.6%)이었음
  - ‘교육정도’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대학교 재학 62.1%, 대학교 졸업 55.9%, 고등학교 졸업 이하 50.8%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21.5%)이었고, 그 외 집단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음.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은 상 70.5%, 중 66.9%, 하 82.4%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하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30.9%)이었고, 중과 상은 외로움과 고독(각각 21.2%, 12.9%)이었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

- 는데, 200만원 미만은 경제적 어려움(17.9%)이었고, 200-300만원 미만은 외로움과 고독(19.2%), 300만원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16.7%)과 대인관계의 갈등(16.7%)이었음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음.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비율은 직업없음 58.0%, 직업있음 56.6%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는 경제적 어려움(33.3%)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주부는 건강문제(22.2%)였고, 그 외 집단은 외로움과 고독이었음
  - ‘직업의 변화’는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있는 경우 경제적 어려움(23.1%)이었고, 그 외는 외로움과 고독이었음
  - ‘근로시간’은 모든 집단이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주간 8시간 미만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18.2%)과 외로움과 고독(18.2%)였고, 주간 8시간 이상은 외로움과 고독(17.9%)이었음

[표 3-33]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 응답자 특성별

구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와로움과 고독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갈등	기타
연령대	20대 초반	7(4.2)	2(1.2)	3(1.8)	137(82.0)	18(10.8)	0(0.0)
	20대 중반	22(12.9)	7(4.1)	9(5.3)	112(65.5)	20(11.7)	1(0.6)
	20대 후반	20(11.6)	14(8.1)	18(10.4)	101(58.4)	18(10.4)	2(1.2)
자치구	동구	8(12.5)	5(7.8)	3(4.7)	39(60.9)	9(14.1)	0(0.0)
	중구	8(8.4)	4(4.2)	6(6.3)	65(68.4)	12(12.6)	0(0.0)
	서구	15(10.1)	4(2.7)	9(6.1)	108(73.0)	12(8.1)	0(0.0)
	유성구	9(6.3)	6(4.2)	8(5.6)	105(73.4)	14(9.8)	1(0.7)
	대덕구	9(14.8)	4(6.6)	4(6.6)	33(54.1)	9(14.8)	2(3.3)
동거가족	혼자	8(10.1)	2(2.5)	2(2.5)	62(78.5)	5(6.3)	0(0.0)
	부모와 함께 동거	29(7.7)	14(3.7)	22(5.8)	270(71.2)	43(11.3)	1(0.3)
	배우자와 함께 동거	7(16.7)	7(16.7)	5(11.9)	13(31.0)	8(19.0)	2(4.8)
	기타	4(50.0)	0(0.0)	1(12.5)	3(37.5)	0(0.0)	0(0.0)
비혼여부	비혼	41(8.8)	16(3.4)	25(5.3)	337(72.0)	48(10.3)	1(0.2)
	비혼 외	8(18.6)	7(16.3)	5(11.6)	13(30.2)	8(18.6)	2(4.7)
자녀여부	있다	7(25.9)	4(14.8)	5(18.5)	8(29.6)	1(3.7)	2(7.4)
	없다	4(28.7)	1(93.9)	2(5.2)	34(270.7)	55(11.4)	1(10.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15.2)	4(6.1)	5(7.6)	36(54.5)	10(15.2)	1(1.5)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9(5.7)	1(0.6)	3(1.9)	131(83.4)	13(8.3)	0(0.0)
	대학교 졸업	27(9.7)	18(6.5)	19(6.8)	179(64.4)	33(11.9)	2(0.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3(30.0)	0(0.0)	3(30.0)	4(4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3(11.0)	8(3.8)	8(3.8)	146(69.5)	24(11.4)	1(0.5)
	중	26(9.2)	15(5.3)	21(7.4)	190(66.9)	31(10.9)	1(0.4)
	상	0(0.0)	0(0.0)	1(5.9)	14(82.4)	1(5.9)	1(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4(25.5)	0(0.0)	3(5.5)	35(63.6)	3(5.5)	0(0.0)
	중	35(8.3)	21(5.0)	25(6.0)	292(69.5)	45(10.7)	2(0.5)
	상	0(0.0)	2(5.6)	2(5.6)	23(63.9)	8(22.2)	1(2.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12.9)	2(2.4)	4(4.7)	59(69.4)	9(10.6)	0(0.0)
	200-300만원 미만	16(8.6)	11(5.9)	12(6.4)	126(67.4)	21(11.2)	1(0.5)
	300만원 이상	2(8.3)	3(12.5)	3(12.5)	12(50.0)	4(16.7)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0(9.3)	7(3.3)	11(5.1)	153(71.2)	22(10.2)	2(0.9)
	직업 있음	29(9.8)	16(5.4)	19(6.4)	197(66.6)	34(11.5)	1(0.3)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7(4.6)	2(1.3)	1(0.7)	128(84.2)	14(9.2)	0(0.0)
	구직활동/창업준비	6(16.2)	0(0.0)	5(13.5)	24(64.9)	2(5.4)	0(0.0)
	구직/창업 포기	1(1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6(24.0)	5(20.0)	5(20.0)	1(4.0)	6(24.0)	2(8.0)
	근로자	27(10.0)	14(5.2)	18(6.6)	178(65.7)	33(12.2)	1(0.4)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8.0)	2(8.0)	1(4.0)	19(76.0)	1(4.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19(9.1)	7(3.4)	11(5.3)	149(71.6)	21(10.1)	1(0.5)
	없음 - 있음	9(23.1)	3(7.7)	3(7.7)	19(48.7)	5(12.8)	0(0.0)
	있음 - 없음	1(14.3)	0(0.0)	0(0.0)	4(57.1)	1(14.3)	1(14.3)
	있음 - 있음	20(7.8)	13(5.1)	16(6.2)	178(69.3)	29(11.3)	1(0.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3(25.0)	3(25.0)	1(8.3)	5(41.7)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2(69.2)	13(46)	18(63)	192(67.6)	34(12.0)	1(0.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34]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 : 응답자 특성별

구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과 고독	학업 또는 직장 생활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갈등	기타
연령대	20대 초반	10(6.8)	3(2.0)	35(23.6)	95(64.2)	5(3.4)	0(0.0)
	20대 중반	26(15.9)	4(2.4)	30(18.3)	92(56.1)	11(6.7)	1(0.6)
	20대 후반	35(21.1)	8(4.8)	30(18.1)	86(51.8)	7(4.2)	0(0.0)
자치구	동구	11(18.3)	4(6.7)	14(23.3)	29(48.3)	2(3.3)	0(0.0)
	중구	13(14.8)	2(2.3)	20(22.7)	47(53.4)	6(6.8)	0(0.0)
	서구	20(14.4)	4(2.9)	31(22.3)	78(56.1)	6(4.3)	0(0.0)
	유성구	19(14.2)	3(2.2)	18(13.4)	88(65.7)	5(3.7)	1(0.7)
	대덕구	8(14.0)	2(3.5)	12(21.1)	31(54.4)	4(7.0)	0(0.0)
동거가족	혼자	12(15.6)	3(3.9)	16(20.8)	44(57.1)	2(2.6)	0(0.0)
	부모와 함께 동거	47(13.2)	7(2.0)	76(21.3)	211(59.1)	15(4.2)	1(0.3)
	배우자와 함께 동거	8(23.5)	5(14.7)	3(8.8)	13(38.2)	5(14.7)	0(0.0)
	기타	3(42.9)	0(0.0)	0(0.0)	3(42.9)	1(14.3)	0(0.0)
비혼여부	비혼	62(14.0)	10(2.3)	92(20.8)	260(58.7)	18(4.1)	1(0.2)
	비혼 외	9(25.7)	5(14.3)	3(8.6)	13(37.1)	5(14.3)	0(0.0)
차녀여부	있다	6(28.6)	3(14.3)	3(14.3)	8(38.1)	1(4.8)	0(0.0)
	없다	65(14.2)	12(2.6)	92(20.1)	265(58.0)	22(4.8)	1(0.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21.5)	2(3.1)	7(10.8)	33(50.8)	9(13.8)	0(0.0)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1(7.9)	3(2.1)	36(25.7)	87(62.1)	3(2.1)	0(0.0)
	대학교 졸업	44(16.7)	10(3.8)	50(19.0)	147(55.9)	11(4.2)	1(0.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20.0)	0(0.0)	2(20.0)	6(6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32(16.9)	10(5.3)	33(17.5)	106(56.1)	8(4.2)	0(0.0)
	중	37(13.6)	5(1.8)	59(21.7)	155(57.0)	15(5.5)	1(0.4)
	상	2(11.8)	0(0.0)	3(17.6)	12(70.6)	0(0.0)	0(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7(30.9)	1(1.8)	8(14.5)	27(49.1)	2(3.6)	0(0.0)
	중	52(13.3)	13(3.3)	83(21.2)	229(57.7)	17(4.3)	1(0.3)
	상	2(6.5)	1(3.2)	4(12.9)	20(64.5)	4(12.9)	0(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5(17.9)	1(1.2)	14(16.7)	51(60.7)	2(2.4)	1(1.2)
	200-300만원 미만	31(17.0)	6(3.3)	35(19.2)	101(55.5)	9(4.9)	0(0.0)
	300만원 이상	4(16.7)	1(4.2)	3(12.5)	12(50.0)	4(16.7)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1(11.2)	7(3.7)	43(22.9)	109(58.0)	8(4.3)	0(0.0)
	직업 있음	50(17.2)	8(2.8)	52(17.9)	164(56.6)	15(5.2)	1(0.3)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7(5.2)	3(2.2)	32(23.9)	89(66.4)	3(2.2)	0(0.0)
	구직활동/창업준비	8(22.9)	0(0.0)	8(22.9)	17(48.6)	2(5.7)	0(0.0)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1(100.0)	0(0.0)	0(0.0)
	주부	6(33.3)	4(22.2)	3(16.7)	2(11.1)	3(16.7)	0(0.0)
	근로자	48(18.1)	5(1.9)	48(18.1)	149(56.2)	14(5.3)	1(0.4)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8.0)	3(12.0)	4(16.0)	15(60.0)	1(4.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20(11.0)	7(3.9)	40(22.1)	106(58.6)	8(4.4)	0(0.0)
	없음 - 있음	9(23.1)	2(5.1)	5(12.8)	19(48.7)	4(10.3)	0(0.0)
	있음 - 없음	1(14.3)	0(0.0)	3(42.9)	3(42.9)	0(0.0)	0(0.0)
	있음 - 있음	41(16.3)	6(2.4)	47(18.7)	145(57.8)	11(4.4)	1(0.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2(18.2)	1(9.1)	2(18.2)	6(54.5)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48(17.2)	7(2.5)	50(17.9)	158(56.6)	15(5.4)	1(0.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④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법

○ 주로 어떻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스트레스)

- '음주(술)'이 2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먹는다(19.6%), TV 등을 본다(9.6%) 순이었음

(우울감)

- '참는다'가 1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음주(17.8%), 먹는다(15.7%) 순이었음

○ '참는다'는 우울감 해소방법의 1순위 응답이지만,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는 3번째 순위 내 나타나지 않음

**[표 3-35]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주된 해소 방법**

(단위: 명, %)

구분	계	참는다	잔다	본다 (TV 등)	먹는다	음주 (술)	운동	쇼핑	취미 활동	여행	종교	상담 기관 방문
스트레스	511 (100.0)	44 (8.6)	40 (7.8)	84 (16.4)	100 (19.6)	113 (22.1)	23 (4.5)	27 (5.3)	44 (8.6)	30 (5.9)	3 (0.6)	3 (0.6)
우울감	478 (100.0)	90 (18.8)	60 (12.6)	48 (10.0)	75 (15.7)	85 (17.8)	30 (6.3)	21 (4.4)	39 (8.2)	20 (4.2)	3 (0.6)	7 (1.5)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36], [표 3-37]과 같음

- 스트레스의 주된 해소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음주(술)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대 후반 25.4%, 20대 초반 23.4%, 20대 중반 17.5%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초반은 TV 등을 본다(19.8%)였고, 20대 중반과 20대 후반은 먹는다(각각 17.0%, 22.5%)였음
  - ‘자치구’는 대덕구는 TV 등을 본다(18.0%)가 가장 많았고, 대덕구를 제외한 모든 집단이 음주(술)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중구 28.4%, 서구 17.6%로 차이를 보임
  - ‘동거가족’은 혼자서 배우자와 함께 동거의 경우 먹는다(각각 25.3%, 26.2%)가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의 경우 음주(23.2%)가 가장 많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의 경우 음주(22.9%)가 가장 많았고, 비혼 외는 먹는다(25.6%)가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TV 등을 본다(29.6%)가 가장 많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음주(22.9%)가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TV 등을 본다(21.2%)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과 대학교 졸업은 음주(22.3%, 23.4%)가 가장 많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먹는다(24.3%)가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음주(각각 26.1%, 35.3%)가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먹는다(23.6%)가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음주(각각 22.4%, 25.0%)가 가장 많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 음주(각각 30.6%, 26.2%)가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은 먹는다(37.5%)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 먹는다(19.5%)가 가장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 음주(25.7%)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는 잔다(24.3%)가 가장 많았고, 주부는 TV 등을 본다(28.0%)가 가장 많았음. 근로자는 음주(27.3%)가 가장 많았고,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먹는다(36.0%)가 가장 많았음. 학생은 먹는다(21.1%)와 음주(21.1%)가 많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먹는다(20.2%)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와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는 음주(각각 23.1, 26.1%)가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의 경우 먹는다(25.0%)가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은 음주(26.4%)가 가장 많았음

○ 우울감의 주된 해소 방법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20대 초반의 경우 참는다(26.4%)가 가장 많았고, 20대 중반의 경우 음주(20.7%)가 가장 많았음. 20대 후반은 먹는다(21.7%)가 가장 많았음
- '자치구'는 동구, 서구는 참는다(각각 28.3%, 18.7%)가 가장 많았고, 유성구는 음주(19.4%)가 가장 많았음. 대덕구는 먹는다(24.6%)가 가장 많았고, 중구는 먹는다(22.7%)와 음주(22.7%)가 많았음
- '동거가족'은 혼자의 경우 음주(27.3%)가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의 경우 참는다(21.8%)가 가장 많았음.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먹는다(23.5%)가 가장 많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의 경우 참는다(19.2%)가 가장 많았고, 비혼 외는 먹는다(22.9%)가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잔다(23.8%)와 음주(23.8%)가 많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참는다(18.8%)가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음주(23.1%)가 가장 많았고, 대학교 재학과 대학교 졸업은 참는다(25.0%, 18.6%)가 가장 많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음주(19.6%)가 가장 많았고, 중의 경우 참는다(18.8%)가 가장 많았음. 상은 음주(35.3%)가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음주(23.6%)가 가장 많았고, 중의 경우 참는다(19.4%)가 가장 많았음. 상은 음주(32.3%)가 가장 많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의 경우 음주(각각 28.6, 33.3%)가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 먹는다(19.2%)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 참는다(26.1%)가 가장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 음주(21.7%)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과 구직활동/창업준비는 참는다(각각 26.1%, 28.6%)가 가장 많았고, 주부는 잔다(27.8%)가 가장 많았음. 근로자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음주(각각 21.5%, 24.0%)가 가장 많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거나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없는 경우 참는다(각각 25.4% 42.9%)가 가장 많았고,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있는 경우 먹는다(28.2%)가 가장 많았음.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는 음주(22.7%)가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은 모두 음주가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주간 8시간 미만 36.4%, 8시간 이상은 21.1%로 차이를 보임

[표 3-36] 주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듣다	잡다	본다 (TV 등)	만나다	음주 (술)	운동	쇼핑	취미 활동	여행	종교	상업/관 방문
연령대	20대 초반	18(10.8)	13(7.8)	33(19.8)	32(19.2)	39(23.4)	2(1.2)	11(6.6)	9(5.4)	8(4.8)	1(0.6)	1(0.6)
	20대 중반	18(10.5)	11(6.4)	22(12.9)	29(17.0)	30(17.5)	13(7.6)	9(5.3)	21(12.3)	15(8.8)	1(0.6)	2(1.2)
	20대 후반	8(4.6)	16(9.2)	29(16.8)	39(22.5)	44(25.4)	8(4.6)	7(4.0)	14(8.1)	7(4.0)	1(0.6)	0(0.0)
자취구	동구	7(10.9)	5(7.8)	13(20.3)	10(15.6)	14(21.9)	2(3.1)	6(9.4)	3(4.7)	3(4.7)	0(0.0)	1(1.6)
	중구	8(8.4)	7(7.4)	15(15.8)	23(24.2)	27(28.4)	0(0.0)	3(3.2)	5(5.3)	6(6.3)	1(1.1)	0(0.0)
	서구	17(11.5)	14(9.5)	25(16.9)	23(15.5)	26(17.6)	9(6.1)	6(4.1)	17(11.5)	8(5.4)	1(0.7)	2(1.4)
	유성구	9(6.3)	6(4.2)	20(14.0)	34(23.8)	36(25.2)	6(4.2)	10(7.0)	17(11.9)	5(3.5)	0(0.0)	0(0.0)
	대덕구	3(4.9)	8(13.1)	11(18.0)	10(16.4)	10(16.4)	6(9.8)	2(3.3)	2(3.3)	8(13.1)	1(1.6)	0(0.0)
등가가족	혼자	9(11.4)	3(3.8)	7(8.9)	20(25.3)	18(22.8)	2(2.5)	5(6.3)	12(15.2)	3(3.8)	0(0.0)	0(0.0)
	부모와 함께 등거	3(18.2)	3(30.9)	6(61.4)	6(61.9)	8(82.3)	2(20.5)	2(20.5)	2(28.4)	2(26.9)	3(30.8)	3(30.8)
	배우자와 함께 등거	3(7.1)	6(14.3)	10(23.8)	11(26.2)	5(11.9)	1(2.4)	1(2.4)	4(9.5)	1(2.4)	0(0.0)	0(0.0)
	가타	1(12.5)	1(12.5)	1(12.5)	3(37.5)	1(12.5)	0(0.0)	1(12.5)	0(0.0)	0(0.0)	0(0.0)	0(0.0)
비혼여부	비혼	4(18.8)	3(47.3)	7(415.8)	8(819.0)	10(10722.9)	2(24.7)	2(265.6)	4(408.5)	2(296.2)	3(30.6)	3(30.6)
	비혼 외	3(7.0)	6(14.0)	10(23.3)	11(25.6)	6(14.0)	1(2.3)	1(2.3)	4(9.3)	1(2.3)	0(0.0)	0(0.0)
자녀여부	있다	2(7.4)	5(18.5)	8(29.6)	7(25.9)	2(7.4)	0(0.0)	1(3.7)	1(3.7)	1(3.7)	0(0.0)	0(0.0)
	없다	4(28.7)	3(35.7)	7(76.5)	9(91.2)	11(112.9)	2(24.8)	2(265.4)	4(48.9)	2(296.0)	3(30.6)	3(30.6)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5)	10(15.2)	14(21.2)	13(19.7)	12(18.2)	3(4.5)	3(4.5)	7(10.6)	0(0.0)	0(0.0)	1(1.5)
	대학교 재학/취업포함	17(10.8)	11(7.0)	27(17.2)	33(21.0)	35(22.3)	2(1.3)	13(8.3)	10(6.4)	7(4.5)	1(0.6)	1(0.6)
	대학교 졸업	2(48.6)	1(19.6)	4(14.7)	5(18.3)	6(23.4)	1(6.8)	1(4.0)	2(9.4)	2(7.9)	2(7.7)	1(4.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0(0.0)	2(20)	3(30.0)	1(10.0)	2(20.0)	0(0.0)	1(10.0)	1(1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3(11.0)	22(10.5)	38(18.1)	51(24.3)	33(15.7)	4(1.9)	15(7.1)	17(8.1)	5(2.4)	1(0.5)	1(0.5)
	중	18(6.3)	18(6.3)	44(15.5)	46(16.2)	74(26.1)	19(6.7)	12(4.2)	27(9.5)	23(8.1)	2(0.7)	1(0.4)
	상	3(17.6)	0(0.0)	2(11.8)	3(17.6)	6(35.3)	0(0.0)	0(0.0)	0(0.0)	2(11.8)	0(0.0)	1(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6(10.9)	7(12.7)	7(12.7)	13(23.6)	10(18.2)	2(3.6)	4(7.3)	5(9.1)	0(0.0)	0(0.0)	1(1.8)
	중	3(48.1)	3(30.7)	7(71.7)	8(80.9)	9(94.2)	2(20.4)	2(25.5)	3(38.6)	2(27.6)	3(30.7)	1(10.2)
	상	4(11.1)	3(8.3)	5(13.9)	7(19.4)	9(25.0)	1(2.8)	0(0.0)	3(8.3)	3(8.3)	0(0.0)	1(2.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8.2)	5(5.9)	15(17.6)	16(18.8)	23(30.6)	1(1.2)	3(3.5)	7(8.2)	5(5.9)	0(0.0)	0(0.0)
	200-300만원 미만	7(3.7)	10(5.3)	32(17.1)	33(17.6)	49(26.2)	14(7.5)	9(4.8)	17(9.1)	13(7.0)	2(1.1)	1(0.5)
	300만원 이상	3(12.5)	0(0.0)	3(12.5)	9(37.5)	1(4.2)	2(8.3)	1(4.2)	3(12.5)	2(8.3)	0(0.0)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12.6)	2(11.6)	3(15.8)	4(19.5)	3(17.2)	6(2.8)	1(4.6)	1(7.9)	1(4.7)	1(0.5)	2(0.9)
	직업 있음	1(75.7)	1(15.1)	5(16.9)	5(19.6)	7(25.7)	1(7.5)	1(4.4)	2(9.1)	2(6.8)	2(0.7)	1(0.3)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11.2)	1(27.9)	2(16.4)	3(21.1)	3(21.1)	3(2.0)	1(6.6)	1(7.2)	8(5.3)	1(0.7)	1(0.7)
	구직활동/창업준비	7(18.9)	9(24.3)	2(5.4)	5(13.5)	3(8.1)	2(5.4)	4(10.8)	3(8.1)	1(2.7)	0(0.0)	1(2.7)
	구직/창업 포기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2(8.0)	4(16.0)	7(28.0)	5(20.0)	2(8.0)	1(4.0)	0(0.0)	3(12.0)	1(4.0)	0(0.0)	0(0.0)
	근로자	1(5.5)	1(4.5)	4(17.3)	4(18.1)	7(27.3)	1(4.5)	1(3.7)	2(8.9)	1(7.0)	2(0.7)	1(0.4)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8.0)	1(4.0)	3(12.0)	9(36.0)	2(8.0)	1(4.0)	3(12.0)	3(12.0)	1(4.0)	0(0.0)	0(0.0)
직업의 변화 (자신해 -현재)	없음 - 없음	2(12.5)	2(11.5)	3(15.4)	4(20.2)	3(17.3)	5(2.4)	1(4.7)	1(7.2)	9(4.3)	1(0.5)	2(1.0)
	없음 - 있음	2(5.1)	3(7.7)	7(17.9)	8(20.5)	9(23.1)	3(7.7)	0(0.0)	2(5.1)	3(7.7)	1(2.6)	1(2.6)
	있음 - 없음	1(14.3)	1(14.3)	2(28.6)	0(0.0)	1(14.3)	1(14.3)	0(0.0)	0(0.0)	1(14.3)	0(0.0)	0(0.0)
	있음 - 있음	1(5.8)	1(4.7)	4(16.7)	5(19.5)	6(26.1)	1(4.5)	1(3.5)	2(9.7)	1(6.6)	1(0.4)	0(0.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0(0.0)	1(8.3)	2(16.7)	3(25.0)	1(8.3)	1(8.3)	0(0.0)	2(16.7)	2(16.7)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1(76.0)	1(44.9)	4(16.9)	5(19.4)	7(26.4)	1(6.6)	1(4.6)	2(8.8)	1(6.3)	2(0.7)	1(0.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37] 주된 우울감 해소 방법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참다	잔다	반다 (TV 등)	만다	음 (술)	운동	쇼핑	취 활동	여행	종교	상 기 타 방법
연령대	20대 초반	39(26.4)	23(15.5)	13(8.8)	26(17.6)	23(15.5)	3(2.0)	6(4.1)	11(7.4)	2(1.4)	1(0.7)	1(0.7)
	20대 중반	28(17.1)	13(7.9)	21(12.8)	13(7.9)	34(20.7)	17(10.4)	8(4.9)	17(10.4)	9(5.5)	1(0.6)	3(1.8)
	20대 후반	23(13.9)	24(14.5)	14(8.4)	36(21.7)	28(16.9)	10(6.0)	7(4.2)	11(6.6)	9(5.4)	1(0.6)	3(1.8)
자취구	동구	17(28.3)	10(16.7)	3(5.0)	6(10.0)	10(16.7)	1(1.7)	3(5.0)	7(11.7)	2(3.3)	0(0.0)	1(1.7)
	중구	16(18.2)	7(8.0)	9(10.2)	20(22.7)	20(22.7)	2(2.3)	4(4.5)	5(5.7)	4(4.5)	1(1.1)	0(0.0)
	서구	26(18.7)	20(14.4)	15(10.8)	22(15.8)	24(17.3)	9(6.5)	5(3.6)	8(5.8)	5(3.6)	1(0.7)	4(2.9)
	유상구	25(18.7)	17(12.7)	16(11.9)	13(9.7)	26(19.4)	10(7.5)	5(3.7)	16(11.9)	5(3.7)	0(0.0)	1(0.7)
	대략구	6(10.5)	6(10.5)	5(8.8)	14(24.6)	5(8.8)	8(14.0)	4(7.0)	3(5.3)	4(7.0)	1(1.8)	1(1.8)
등가기족	혼자	6(7.8)	12(15.6)	7(9.1)	9(11.7)	21(27.3)	2(2.6)	3(3.9)	9(11.7)	3(3.9)	0(0.0)	5(6.5)
	부모와 함께 등기	78(21.8)	40(11.2)	39(10.9)	55(15.4)	56(15.7)	27(7.6)	16(4.5)	25(7.0)	16(4.5)	3(0.8)	2(0.6)
	배우자와 함께 등기	5(14.7)	6(17.6)	2(5.9)	8(23.5)	5(14.7)	1(2.9)	2(5.9)	4(11.8)	1(2.9)	0(0.0)	0(0.0)
	가타	1(14.3)	1(14.3)	0(0.0)	2(28.6)	2(28.6)	0(0.0)	0(0.0)	1(14.3)	0(0.0)	0(0.0)	0(0.0)
비혼여부	비혼	85(19.2)	54(12.2)	46(10.4)	67(15.1)	79(17.8)	29(6.5)	19(4.3)	35(7.9)	19(4.3)	3(0.7)	7(1.6)
	비혼 외	5(14.3)	6(17.1)	2(5.7)	8(22.9)	6(17.1)	1(2.9)	2(5.7)	4(11.4)	1(2.9)	0(0.0)	0(0.0)
자녀여부	있다	4(19.0)	5(23.8)	1(4.8)	2(9.5)	5(23.8)	0(0.0)	2(9.5)	2(9.5)	0(0.0)	0(0.0)	0(0.0)
	없다	8(18.8)	5(12.0)	4(10.3)	7(16.0)	8(17.5)	3(6.6)	1(4.2)	3(7.8)	2(4.4)	3(6.7)	1(1.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6(9.2)	14(21.5)	4(6.2)	8(12.3)	15(23.1)	5(7.7)	1(1.5)	9(13.8)	1(1.5)	0(0.0)	2(3.1)
	대학교 재학(취학포함)	35(25.0)	20(14.3)	15(10.7)	26(18.6)	20(14.3)	4(2.9)	6(4.3)	9(6.4)	2(1.4)	1(0.7)	2(1.4)
	대학교 졸업	49(18.6)	25(9.5)	28(10.6)	38(14.4)	49(18.6)	19(7.2)	14(5.3)	20(7.6)	16(6.1)	2(0.8)	3(1.1)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1(10.0)	1(10.0)	3(30.0)	1(10.0)	2(20.0)	0(0.0)	1(10.0)	1(1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36(19.0)	34(18.0)	21(11.1)	29(15.3)	37(19.6)	3(1.6)	5(2.6)	18(9.5)	2(1.1)	1(0.5)	3(1.6)
	중	5(18.8)	26(9.6)	25(9.2)	44(16.2)	42(15.4)	27(9.9)	14(5.1)	20(7.4)	18(6.6)	2(0.7)	3(1.1)
	상	3(17.6)	0(0.0)	2(11.8)	2(11.8)	6(35.3)	0(0.0)	2(11.8)	1(5.9)	0(0.0)	0(0.0)	1(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9(16.4)	12(21.8)	5(9.1)	4(7.3)	13(23.6)	4(7.3)	1(1.8)	4(7.3)	1(1.8)	0(0.0)	2(3.6)
	중	7(19.4)	4(11.2)	4(10.5)	6(16.6)	6(15.8)	2(6.6)	1(4.6)	3(8.7)	1(4.8)	3(6.8)	4(10.1)
	상	5(16.1)	4(12.9)	2(6.5)	6(19.4)	10(32.3)	0(0.0)	2(6.5)	1(3.2)	0(0.0)	0(0.0)	1(3.2)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16.7)	5(6.0)	15(17.9)	6(7.1)	24(28.6)	1(1.2)	1(1.2)	12(14.3)	3(3.6)	0(0.0)	3(3.6)
	200-300만원 미만	27(14.8)	20(11.0)	18(9.9)	35(19.2)	31(17.0)	19(10.4)	7(3.8)	13(7.1)	9(4.9)	2(1.1)	1(0.5)
	300만원 이상	0(0.0)	2(8.3)	1(4.2)	3(12.5)	8(33.3)	0(0.0)	3(12.5)	1(4.2)	5(20.8)	0(0.0)	1(4.2)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49(26.1)	33(17.6)	14(7.4)	31(16.5)	22(11.7)	10(5.3)	10(5.3)	13(6.9)	3(1.6)	1(0.5)	2(1.1)
	직업 있음	4(14.1)	2(7.9)	3(11.7)	4(15.2)	6(21.7)	2(6.9)	1(3.8)	2(7.9)	1(3.9)	2(7.9)	1(3.9)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35(26.1)	20(14.9)	10(7.5)	26(19.4)	18(13.4)	6(4.5)	6(4.5)	9(6.7)	2(1.5)	1(0.7)	1(0.7)
	구직활동/창업준비	10(28.6)	8(22.9)	3(8.6)	2(5.7)	3(8.6)	3(8.6)	3(8.6)	1(2.9)	1(2.9)	0(0.0)	1(2.9)
	구직/창업 포기	1(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3(16.7)	5(27.8)	1(5.6)	3(16.7)	1(5.6)	1(5.6)	1(5.6)	3(16.7)	0(0.0)	0(0.0)	0(0.0)
	근로자	4(15.1)	2(7.9)	3(12.5)	4(15.5)	5(21.5)	2(7.5)	9(34.6)	2(7.5)	1(3.8)	1(3.8)	1(3.8)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4.0)	6(24.0)	1(4.0)	3(12.0)	6(24.0)	0(0.0)	2(8.0)	3(12.0)	2(8.0)	0(0.0)	1(4.0)
직업의 변화 (자신해 -현재)	없음 - 없음	46(25.4)	33(18.2)	13(7.2)	30(16.6)	22(12.2)	8(4.4)	10(5.5)	13(7.2)	3(1.7)	1(0.6)	2(1.1)
	없음 - 있음	3(7.7)	4(10.3)	2(5.1)	11(28.2)	6(15.4)	4(10.3)	1(2.6)	4(10.3)	3(7.7)	1(2.6)	0(0.0)
	있음 - 없음	3(42.9)	0(0.0)	1(14.3)	1(14.3)	0(0.0)	2(28.6)	0(0.0)	0(0.0)	0(0.0)	0(0.0)	0(0.0)
	있음 - 있음	38(15.1)	23(9.2)	32(12.7)	33(13.1)	57(22.7)	16(6.4)	10(4.0)	22(8.8)	14(5.6)	1(0.4)	5(2.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9.1)	1(9.1)	1(9.1)	2(18.2)	4(36.4)	0(0.0)	1(9.1)	1(9.1)	0(0.0)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4(14.3)	2(6.9)	3(11.8)	4(15.1)	5(21.1)	2(7.2)	10(3.6)	25(9.0)	17(6.1)	2(0.7)	5(1.8)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⑤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때 함께하는 사람

○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대한 질문  
한 결과

(스트레스)

- 친구가 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23.1%), 배우자 또는 연인  
(16.0%) 순이었음

(우울감)

- 친구가 4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38.7%), 배우자 또는 연인  
(9.2%) 순이었음

○ 3번째 순위까지 항목은 같았지만 스트레스보다 우울감 해소할 때 ‘혼  
자’의 응답비율이 스트레스보다 우울감이 더 큼

**[표 3-38]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  
(단위: 명, %)

구분	계	혼자	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	형제자매	친구	직장동료	전문가 (상담기관)
스트레스	511 (100.0)	118 (23.1)	82 (16.0)	24 (4.7)	12 (2.3)	250 (48.9)	23 (4.5)	2 (0.4)
우울감	478 (100.0)	185 (38.7)	44 (9.2)	17 (3.6)	7 (1.5)	203 (42.5)	17 (3.6)	5 (1.0)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39], [표 3-40]과 같음

○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20대 초반 56.3%, 20대 중반 49.7%, 20대 후반 41.0%로 차이를 보임.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은 혼자(각각 22.8%, 26.3%)였고, 20대 후반은 배우자 또는 연인(26.6%)이었음
- ‘자치구’는 유성구의 경우 혼자(17.5%)가 가장 많았고, 유성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친구가 가장 많았음
- ‘동거가족’은 혼자(35.4%)와 부모와 함께 동거(56.7%)의 경우 친구(각각 35.4%, 56.7%)가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73.8%)가 가장 많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의 경우 친구(52.8%)가 가장 많았고, 비혼 외는 배우자 또는 연인(72.1%)가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74.1%), 자녀가 없는 경우 친구(51.7%)가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39.4%, 대학교 재학은 53.5%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하 39.5%, 상 70.6%로 차이를 보임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하 40.0%, 중 50.0%로 차이를 보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200만원 미만 51.8%, 300만원 이상 33.3%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여부’는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

- 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직업 없음 47.0%, 직업있음 50.3%로 차이를 보임
-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 근로자,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의 경우 친구(각각 55.3%, 51.3%, 40.0%)가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창업준비는 혼자(48.6%)가 가장 많았음. 주부는 배우자 또는 연인(68.0%)가 가장 많았음
  - '직업의 변화'는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 비율은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47.1%,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 50.2%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33.3%)이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은 친구(51.4%)가 가장 많았음
- 우울감을 해소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20대 초반 45.3%, 20대 중반 45.1%, 20대 후반 37.3%로 차이를 보임
  - '자치구'는 동구의 경우 혼자(51.7%)가 가장 많았고, 동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친구가 가장 많았음
  - '동거가족'은 혼자의 경우 혼자(44.2%)가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의 경우 친구(45.7%)가 가장 많았음. 배우자와 함께 동거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50.0%)이 가장 많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의 경우 친구(44.0%)가 가장 많았고, 비혼 외는 배우자 또는 연인(48.6%)가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38.1%), 자녀가 없는 경우 친구(43.3%)가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의 경우 혼자(47.9%)가 가장 많았음. 그 외

- 모든 집단은 친구가 많았고, 응답비율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44.6%, 대학교 졸업 41.4%로 차이를 보임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혼자(45.5%)가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친구(각각 43.4%, 64.7%)가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의 경우 혼자(50.9%)가 가장 많았고, 중과 상은 친구(각각 43.4%, 45.2%)가 가장 많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혼자였음.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친구에 대한 응답비율은 모든 집단이 약 40%의 응답비율을 보였지만 두 번째 높은 응답을 보인 혼자에 대한 응답 비율은 200만원 미만의 경우 42.9%로 상당히 높았고, 200-300만원 미만(33.0%)과 300만원 이상(20.8%)은 이보다 낮은 비율이었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없음의 경우 혼자(44.7%)가 가장 많았고, 직업있음은 친구(42.1%)였음
  - ‘현재 직업종류’는 학생(휴학생 포함), 근로자, 주부의 경우 친구(각각 46.3%, 38.9%, 42.6%)가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창업준비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혼자(각각 54.3%, 40.0%)가 가장 많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외 모든 집단이 친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비율은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44.2%,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 39.4%로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의 경우 혼자(45.5%)가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은 친구(42.3%)가 가장 많았음

[표 3-39]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

구분		혼자	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	형제자매	친구	작업동료	집단가 (상당개)
연령대	20대 초반	38(22.8)	19(11.4)	13(7.8)	1(0.6)	94(56.3)	1(0.6)	1(0.6)
	20대 중반	45(26.3)	17(9.9)	8(4.7)	4(2.3)	85(49.7)	11(6.4)	1(0.6)
	20대 후반	35(20.2)	46(26.6)	3(1.7)	7(4.0)	71(41.0)	11(6.4)	0(0.0)
자차구	동구	12(18.8)	11(17.2)	5(7.8)	0(0.0)	34(53.1)	1(1.6)	1(1.6)
	중구	20(21.1)	17(17.9)	4(4.2)	3(3.2)	47(49.5)	4(4.2)	0(0.0)
	서구	46(31.1)	24(16.2)	5(3.4)	4(2.7)	63(42.6)	5(3.4)	1(0.7)
	유성구	25(17.5)	20(14.0)	4(2.8)	2(1.4)	84(8.7)	8(5.6)	0(0.0)
	대덕구	15(24.6)	10(16.4)	6(9.8)	3(4.9)	22(36.1)	5(8.2)	0(0.0)
등거가족	혼자	26(32.9)	17(21.5)	1(1.3)	1(1.3)	28(35.4)	6(7.6)	0(0.0)
	부모와 함께 동거	84(22.2)	33(8.7)	22(5.8)	8(2.1)	215(56.7)	15(4.0)	2(0.5)
	배우자와 함께 동거	5(11.9)	31(73.8)	1(2.4)	0(0.0)	3(7.1)	2(4.8)	0(0.0)
	기타	3(37.5)	0(0.0)	0(0.0)	3(37.5)	2(25.0)	0(0.0)	0(0.0)
비혼여부	비혼	112(23.9)	51(10.9)	23(4.9)	12(2.6)	247(52.8)	21(4.5)	2(0.4)
	비혼 외	6(14.0)	31(72.1)	1(2.3)	0(0.0)	3(7.0)	2(4.7)	0(0.0)
자녀여부	있다	5(18.5)	20(74.1)	1(3.7)	0(0.0)	0(0.0)	1(3.7)	0(0.0)
	없다	113(23.3)	62(12.8)	23(4.8)	12(2.5)	250(51.7)	22(4.5)	2(0.4)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19.7)	19(28.8)	4(6.1)	0(0.0)	26(39.4)	3(4.5)	1(1.5)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40(25.5)	18(11.5)	11(7.0)	2(1.3)	84(53.5)	1(0.6)	1(0.6)
	대학교 졸업	64(23.0)	45(16.2)	9(3.2)	10(3.6)	132(47.5)	18(6.5)	0(0.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0(0.0)	0(0.0)	0(0.0)	8(80.0)	1(1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57(27.1)	48(22.9)	12(5.7)	5(2.4)	83(39.5)	5(2.4)	0(0.0)
	중	57(20.1)	34(12.0)	12(4.2)	7(2.5)	155(54.6)	18(6.3)	1(0.4)
	상	4(23.5)	0(0.0)	0(0.0)	0(0.0)	12(70.6)	0(0.0)	1(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9(34.5)	8(14.5)	1(1.8)	3(5.5)	22(40.0)	2(3.6)	0(0.0)
	중	91(21.7)	69(16.4)	20(4.8)	9(2.1)	210(50.0)	20(4.8)	1(0.2)
	상	8(22.2)	5(13.9)	3(8.3)	0(0.0)	18(50.0)	1(2.8)	1(2.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2(25.9)	11(12.9)	0(0.0)	2(2.4)	44(51.8)	6(7.1)	0(0.0)
	200-300만원 미만	33(17.6)	29(15.5)	10(5.3)	3(1.6)	97(51.9)	15(8.0)	0(0.0)
	300만원 이상	5(20.8)	4(16.7)	1(4.2)	4(16.7)	8(33.3)	2(8.3)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58(27.0)	38(17.7)	13(6.0)	3(1.4)	101(47.0)	0(0.0)	2(0.9)
	직업 있음	60(20.3)	44(14.9)	11(3.7)	9(3.0)	149(50.3)	23(7.8)	0(0.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35(23.0)	19(12.5)	10(6.6)	3(2.0)	84(55.3)	0(0.0)	1(0.7)
	구직활동/창업준비	18(48.6)	2(5.4)	2(5.4)	0(0.0)	14(37.8)	0(0.0)	1(2.7)
	구직/창업 포기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4(16.0)	17(68.0)	1(4.0)	0(0.0)	3(12.0)	0(0.0)	0(0.0)
	근로자	53(19.6)	41(15.1)	10(3.7)	6(2.2)	139(51.3)	22(8.1)	0(0.0)
	자영업/프리랜서/교양주	7(28.0)	3(12.0)	1(4.0)	3(12.0)	10(40.0)	1(4.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54(26.0)	38(18.3)	13(6.3)	3(1.4)	98(47.1)	0(0.0)	2(1.0)
	없음 - 있음	6(15.4)	3(7.7)	5(12.8)	2(5.1)	20(51.3)	3(7.7)	0(0.0)
	있음 - 없음	4(57.1)	0(0.0)	0(0.0)	0(0.0)	3(42.9)	0(0.0)	0(0.0)
	있음 - 있음	54(21.0)	41(16.0)	6(2.3)	7(2.7)	129(50.2)	20(7.8)	0(0.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3(25.0)	4(33.3)	1(8.3)	1(8.3)	3(25.0)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57(20.1)	40(14.1)	10(3.5)	8(2.8)	146(51.4)	23(8.1)	0(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40] 우울감을 해소할 때 주로 함께하는 사람 : 응답자 특성별

구분		혼자	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	형제자매	친구	작업동료	질문가 (상당개)
연령대	20대 초반	66(44.6)	53.4	85.4	00.0	67(45.3)	1(0.7)	1(0.7)
	20대 중반	67(40.9)	84.9	3(1.8)	00.0	74(45.1)	10(6.1)	2(1.2)
	20대 후반	52(31.3)	31(18.7)	63.6	7(4.2)	62(37.3)	63.6	2(1.2)
자치구	동구	31(51.7)	6(10.0)	1(1.7)	00.0	21(35.0)	00.0	1(1.7)
	중구	30(34.1)	9(10.2)	1(1.1)	2(2.3)	45(51.1)	1(1.1)	0(0.0)
	서구	56(40.3)	10(7.2)	8(5.8)	3(2.2)	56(40.3)	5(3.6)	1(0.7)
	유성구	51(38.1)	13(9.7)	7(5.2)	00.0	55(41.0)	7(5.2)	1(0.7)
	대덕구	17(29.8)	6(10.5)	00.0	2(3.5)	26(45.6)	4(7.0)	2(3.5)
등거가족	혼자	34(44.2)	8(10.4)	3(3.9)	1(1.3)	29(37.7)	1(1.3)	1(1.3)
	부모와 함께 동거	13(38.9)	19(5.3)	14(3.9)	4(1.1)	16(45.7)	15(4.2)	3(0.8)
	배우자와 함께 동거	7(20.6)	17(50.0)	00.0	1(2.9)	8(23.5)	00.0	1(2.9)
	기타	4(57.1)	00.0	00.0	1(14.3)	2(28.6)	00.0	00.0
비혼여부	비혼	17(40.0)	27(6.1)	17(3.8)	6(1.4)	19(44.0)	17(3.8)	4(0.9)
	비혼 외	8(22.9)	17(48.6)	00.0	1(2.9)	8(22.9)	00.0	1(2.9)
자녀여부	있다	7(33.3)	8(38.1)	00.0	1(4.8)	5(23.8)	00.0	00.0
	없다	17(38.9)	3(7.9)	17(3.7)	6(1.3)	18(43.3)	17(3.7)	5(1.1)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33.8)	8(12.3)	1(1.5)	00.0	29(44.6)	4(6.2)	1(1.5)
	대학교 재학(유학포함)	67(47.9)	6(4.3)	7(5.0)	00.0	58(41.4)	1(0.7)	1(0.7)
	대학교 졸업	95(36.1)	30(11.4)	9(3.4)	6(2.3)	109(41.4)	11(4.2)	3(1.1)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00.0	00.0	1(10.0)	7(70.0)	1(1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8(45.5)	18(9.5)	6(3.2)	2(1.1)	74(39.2)	2(1.1)	1(0.5)
	중	94(34.6)	26(9.6)	11(4.0)	5(1.8)	118(43.4)	15(5.5)	3(1.1)
	상	5(29.4)	00.0	00.0	00.0	11(64.7)	00.0	1(5.9)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8(50.9)	5(9.1)	00.0	2(3.6)	19(34.5)	1(1.8)	00.0
	중	145(37.0)	3(9.2)	17(4.3)	5(1.3)	170(43.4)	16(4.1)	3(0.8)
	상	12(38.7)	3(9.7)	00.0	00.0	14(45.2)	00.0	2(6.5)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42.9)	6(7.1)	1(1.2)	00.0	39(46.4)	2(2.4)	00.0
	200-300만원 미만	60(33.0)	22(12.1)	8(4.4)	3(1.6)	74(40.7)	14(7.7)	1(0.5)
	300만원 이상	5(20.8)	5(20.8)	00.0	3(12.5)	9(37.5)	1(4.2)	1(4.2)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84(44.7)	11(5.9)	8(4.3)	1(0.5)	81(43.1)	00.0	3(1.6)
	직업 있음	101(34.8)	33(11.4)	9(3.1)	6(2.1)	122(42.1)	17(5.9)	2(0.7)
현재 직업종류	학생/유학생 포함	59(44.0)	4(3.0)	7(5.2)	1(0.7)	62(46.3)	00.0	1(0.7)
	구직활동/창업준비	19(54.3)	1(2.9)	1(2.9)	00.0	12(34.3)	00.0	2(5.7)
	구직/창업 포기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5(27.8)	6(33.3)	00.0	00.0	7(38.9)	00.0	00.0
	근로자	91(34.3)	28(10.6)	9(3.4)	5(1.9)	113(42.6)	17(6.4)	2(0.8)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0(40.0)	5(20.0)	00.0	1(4.0)	9(36.0)	00.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79(43.6)	10(5.5)	8(4.4)	1(0.6)	80(44.2)	00.0	3(1.7)
	없음 - 있음	8(20.5)	5(12.8)	2(5.1)	00.0	23(59.0)	1(2.6)	00.0
	있음 - 없음	5(71.4)	1(14.3)	00.0	00.0	1(14.3)	00.0	00.0
	있음 - 있음	93(37.1)	28(11.2)	7(2.8)	6(2.4)	99(39.4)	16(6.4)	2(0.8)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5(45.5)	2(18.2)	00.0	00.0	4(36.4)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96(34.4)	31(11.1)	9(3.2)	6(2.2)	118(42.3)	17(6.1)	2(0.7)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 ⑥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 스트레스로 인해 전문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등)의 상담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담 경험이 있다'가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3.5%였고, 이용한 기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7명)가 가장 많았음
- 우울감으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 이용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담 경험이 있다'가 우울감을 겪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4.6%였고, 이용한 기관은 의료기관(9명)이 가장 많았음

**[표 3-41]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단위: 명, %)

구분	계	이용경험 유무		이용한 기관 유형 (중복 체크모형)			
		있다	없다	의료기관	민간 전문상담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스트레스	511 (100.0)	18 (3.5)	493 (96.5)	4	4	7	5
우울감	478 (100.0)	22 (4.6)	456 (95.4)	9	4	7	3

-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이나 이용경험이 있을 경우 이용한 기관 유형에 대한 세부 분석은 응답자 수가 현저히 적어 제시하지 않음
- 응답 결과는 다음에 제시한 [표 3-42], [표 3-43]을 통해 확인 바람

[표 3-42] 스트레스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이용경험 유무		이용한 기관 유형				
	있다	없다	의료기관	민간 전문상담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연령대	20대 초반	4(2.4)	163(97.6)	1	1	2	1
	20대 중반	9(5.3)	162(94.7)	3	2	3	2
	20대 후반	5(2.9)	168(97.1)	0	1	2	2
자치구	동구	3(4.7)	61(95.3)	0	1	2	0
	중구	1(1.1)	94(98.9)	1	0	0	0
	서구	9(6.1)	139(93.9)	3	1	3	3
	유성구	3(2.1)	140(97.9)	0	2	1	1
	대덕구	2(3.3)	59(96.7)	0	0	1	1
동거가족	혼자	4(5.1)	75(94.9)	1	1	0	2
	부모와 함께 동거	11(2.9)	368(97.1)	2	3	5	3
	배우자와 함께 동거	2(4.8)	40(95.2)	1	0	1	0
	기타	1(12.5)	7(87.5)	0	0	1	0
비혼여부	비혼	15(3.2)	453(96.8)	3	4	5	5
	비혼 외	3(7.0)	40(93.0)	1	0	2	0
자녀여부	있다	2(7.4)	25(92.6)	0	0	2	0
	없다	1(3.3)	468(96.7)	4	4	5	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5(7.6)	61(92.4)	0	0	5	1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2(1.3)	155(98.7)	1	1	0	0
	대학교 졸업	10(3.6)	268(96.4)	3	3	2	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9(90.0)	0	0	0	1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7(3.3)	203(96.7)	3	2	2	0
	중	9(3.2)	275(96.8)	1	1	4	5
	상	2(11.8)	15(88.2)	0	1	1	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4(7.3)	51(92.7)	1	1	2	0
	중	12(2.9)	408(97.1)	3	2	4	5
	상	2(5.6)	34(94.4)	0	1	1	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4.7)	81(95.3)	0	3	1	0
	200-300만원 미만	7(3.7)	180(96.3)	2	0	1	4
	300만원 이상	1(4.2)	23(95.8)	0	0	1	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6(2.8)	209(97.2)	2	1	4	1
	직업 있음	12(4.1)	284(95.9)	2	3	3	4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3(2.0)	149(98.0)	1	1	1	1
	구직활동/창업준비	2(5.4)	35(94.6)	1	-	2	-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	-	-	-
	주부	1(4.0)	24(96.0)	0	0	1	0
	근로자	9(3.3)	262(96.7)	2	2	2	3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3(12.0)	22(88.0)	-	1	1	1
	없음 - 없음	5(2.4)	203(97.6)	2	1	3	1
	없음 - 있음	2(5.1)	37(94.9)	1	1	0	0
	있음 - 없음	1(14.3)	6(85.7)	0	0	1	0
	있음 - 있음	10(3.9)	247(96.1)	1	2	3	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3(25.0)	9(75.0)	0	0	2	1
	주간 8시간 이상	9(3.2)	275(96.8)	2	3	1	3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43] 우울감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이용경험 유무		이용한 기관 유형			
		있었다	없었다	의료기관	만년 전문상담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연령대	20대 초반	4(2.7)	144(97.3)	1	2	1	1
	20대 중반	11(6.7)	153(93.3)	4	2	4	1
	20대 후반	7(4.2)	159(95.8)	4	0	2	1
자치구	동구	3(5.0)	57(95.0)	1	0	2	0
	중구	1(1.1)	87(98.9)	1	0	0	0
	서구	11(7.9)	128(92.1)	5	3	1	2
	유성구	4(3.0)	130(97.0)	1	1	2	1
	대덕구	3(5.3)	54(94.7)	1	0	2	0
동거가족	혼자	9(11.7)	68(88.3)	5	1	1	2
	부모와 함께 동거	8(2.2)	349(97.8)	2	3	3	1
	배우자와 함께 동거	4(11.8)	30(88.2)	2	0	2	0
비혼여부	기타	1(14.3)	6(85.7)	0	0	1	0
	비혼	17(3.8)	426(96.2)	7	4	4	3
차녀여부	비혼 외	5(14.3)	30(85.7)	2	0	3	0
	있었다	3(14.3)	18(85.7)	1	0	2	0
자녀여부	없었다	19(4.2)	438(95.8)	8	4	5	3
	고등학교 졸업 이하	7(10.8)	58(89.2)	1	2	4	1
교육정도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3(2.1)	137(97.9)	2	1	0	0
	대학교 졸업	11(4.2)	252(95.8)	6	1	3	1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9(90.0)	0	0	0	1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2(6.3)	177(93.7)	6	2	4	0
	중	8(2.9)	264(97.1)	3	1	2	3
	상	2(11.8)	15(88.2)	0	1	1	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7(12.7)	48(87.3)	2	2	3	0
	중	12(3.1)	380(96.9)	7	1	2	3
	상	3(9.7)	28(90.3)	0	1	2	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7.1)	78(92.9)	3	1	2	0
	200-300만원 미만	7(3.8)	175(96.2)	2	1	2	2
	300만원 이상	1(4.2)	23(95.8)	1	0	0	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8(4.3)	180(95.7)	3	2	3	1
	직업 있음	14(4.8)	276(95.2)	6	2	4	2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3(2.2)	131(97.8)	1	2	0	1
	구직활동/창업준비	3(8.6)	32(91.4)	1	0	2	0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	-	-	-
	주부	2(11.1)	16(88.9)	1	0	1	0
	근로자	10(3.8)	255(96.2)	5	1	3	1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4(16.0)	21(84.0)	1	1	1	1
	없음 - 없음	7(3.9)	174(96.1)	3	2	2	1
	없음 - 있음	2(5.1)	37(94.9)	1	1	0	0
	있음 - 없음	1(14.3)	6(85.7)	0	0	1	0
근로시간	있음 - 있음	12(4.8)	239(95.2)	5	1	4	2
	주간 8시간 미만	3(27.3)	8(72.7)	0	0	2	1
	주간 8시간 이상	11(3.9)	268(96.1)	6	2	2	1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임

- ⑦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
-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스트레스)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가 6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2.2%), 주위의 시선 때문에 (7.3%) 순이었음
  - (우울감)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가 6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8.2%), 이용 방법을 몰라서(7.7%) 순이었음

[표 3-44] 대전 20대 여성 -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구분	계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이용 방법을 몰라서	주위의 시선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거리가 떨어져서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스트레스	493 (100.0)	335 (68.0)	32 (6.5)	36 (7.3)	18 (3.7)	5 (1.0)	7 (1.4)	60 (12.2)
우울감	456 (100.0)	285 (62.5)	35 (7.7)	26 (5.7)	22 (4.8)	2 (0.4)	3 (0.7)	83 (18.2)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45], [표 3-46]과 같음
- 스트레스로 인한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응답자 특성 내 모든 집단이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음(단, 집단의 응답자 수가 10명 미만인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구직/창업 포기,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거나, 주간 8시간 미만인 집단을 제외한 결과임)
  -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도움이 안

- 될 것 같아서였고, 특히 주위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20대 후반(11.3%)의 경우 다른 집단(약 5%)에 비해 높은 편임. '자치구'는 대덕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였고, 대덕구는 이용방법을 몰라서 였음
- '동거가족'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의 경우 주위의 시선 때문(17.5%)였고, 혼자서 부모와 함께 동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6.7%, 13.3%)였음
  - '비혼여부'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비혼의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2.1%)였고, 비혼 외는 주위의 시선 때문(17.5%)이었음. '자녀여부'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자녀가 없는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2.1%)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용방법을 몰라서(16.0%), 주위의 시선 때문(16.0%),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6.0%)였음
  - '교육정도'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대학교 재학과 대학교 졸업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1.0%, 14.9%)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23.0%)였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중과 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5.3%, 40.0%)였고, 하는 주위의 시선 때문(7.4%)이었음.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중과 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1.8%, 20.6%)였고, 하는 이용방법을 몰라서(7.4%)였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9.9%, 14.4%)였지만, 300만원 이상의 경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8.7%)와 주위의 시선 때문(8.7%)이었음
  - '현재 직업여부'는 두 집단의 응답비율이 유사했으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의 경우 직업이 없는 집단(6.2%)이 아닌 집단(1.8%)에 비해 높은

- 편임. ‘현재 직업종류’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학생, 근로자의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0.7%, 13.4%)였고, 주부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는 주위의 시선 때문(각각 20.8%, 9.1%)이었음. 구직활동/창업준비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0.0%)였음
- ‘직업의 변화’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지난해와 현재 직업의 변화가 없는 경우(직업이 없다 또는 있다)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0.3%, 13.0%)였고,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주위의 시선 때문(18.9%)이었음
  - ‘근로시간’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주간 8시간 이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2.7%)였음

○ 우울감으로 인한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응답자 특성 내 모든 집단이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음(단, 집단의 응답자 수가 10명 미만인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구직/창업 포기,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거나, 주간 8시간 미만인 집단을 제외한 결과임)
-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 ‘연령대’는 모든 집단이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였고, 특히 주위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20대 후반(11.3%)의 경우 다른 집단(약 3%)에 비해 높은 편임. ‘자치구’는 모든 자치구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였음
- ‘동거가족’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의 경우 이용방법을 몰라서(20.0%)였고, 혼자서와 부모와 함께 동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1.8%, 20.1%)였음
- ‘비혼여부’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비혼의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8.8%)였고, 비혼 외는 이용방법을 몰라서(20.0%)였음. ‘자녀여부’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자녀가 없는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8.3%)였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이용방법을 몰라서(22.2%)였음

- ‘교육정도’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대학교 재학과 대학교 졸업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9.7%, 21.0%)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이용 방법을 몰라서(32.8%)였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중과 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24.2%, 60.0%)였고, 하는 이용방법을 몰라서(8.5%)였음.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중과 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7.4%, 35.7%)였고, 하는 이용방법을 몰라서(17.4%)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7.4%)였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2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6.7%, 20.6%)였지만, 300만원 이상의 경우 주위의 시선 때문(21.7%)이었음
- ‘현재 직업여부’는 두 집단의 응답비율이 유사했으나,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의 경우 직업이 없는 집단(7.2%)이 아닌 집단(3.3%)에 비해 높은 편임. ‘현재 직업종류’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학생, 근로자,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의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각각 19.1%, 12.5%, 9.5%)였고, 주부는 이용방법을 몰라서(25.0%)였음. 구직활동/창업준비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15.6%)였음
- ‘직업의 변화’는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모든 집단의 경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였음
- ‘근로시간’은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이 주간 8시간 이상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19.4%)였음

[표 3-45]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삼가지 않아서	이용 방법을 몰라서	주위의 시선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가라가 떨어져서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연령대	20대 초반	126(77.3)	3(1.8)	9(5.5)	5(3.1)	2(1.2)	1(0.6)
	20대 중반	110(67.9)	13(8.0)	8(4.9)	5(3.1)	1(0.6)	2(1.2)
	20대 후반	99(58.9)	16(9.5)	19(11.3)	8(4.8)	2(1.2)	4(2.4)
자치구	동구	36(59.0)	4(6.6)	4(6.6)	2(3.3)	1(1.6)	1(1.6)
	중구	66(70.2)	4(4.3)	9(9.6)	2(2.1)	1(1.1)	0(0.0)
	서구	101(72.7)	8(5.8)	6(4.3)	8(5.8)	2(1.4)	2(1.4)
	유성구	98(70.0)	8(5.7)	10(7.1)	5(3.6)	1(0.7)	1(0.7)
	대덕구	34(57.6)	8(13.6)	7(11.9)	1(1.7)	0(0.0)	3(5.1)
동거가족	혼자	57(76.0)	3(4.0)	2(2.7)	4(5.3)	1(1.3)	3(4.0)
	부모와 함께 동거	253(68.8)	23(6.3)	26(7.1)	9(2.4)	4(1.1)	4(1.1)
	배우자와 함께 동거	19(47.5)	6(15.0)	7(17.5)	3(7.5)	0(0.0)	0(0.0)
비혼여부	기타	5(71.4)	0(0.0)	0(0.0)	1(14.3)	0(0.0)	0(0.0)
	비혼	316(69.8)	26(5.7)	29(6.4)	15(3.3)	5(1.1)	7(1.5)
자녀여부	비혼 외	19(47.5)	6(15.0)	7(17.5)	3(7.5)	0(0.0)	0(0.0)
	있다	11(44.0)	4(16.0)	4(16.0)	2(8.0)	0(0.0)	0(0.0)
교육정도	없다	324(69.2)	28(6.0)	32(6.8)	16(3.4)	5(1.1)	7(1.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8(45.9)	14(23.0)	7(11.5)	7(11.5)	1(1.6)	1(1.6)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22(78.7)	2(1.3)	9(5.8)	3(1.9)	1(0.6)	1(0.6)
	대학교 졸업	178(66.4)	15(5.6)	19(7.1)	8(3.0)	3(1.1)	5(1.9)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7(77.8)	1(11.1)	1(11.1)	0(0.0)	0(0.0)	0(0.0)
	하	153(75.4)	9(4.4)	15(7.4)	10(4.9)	1(0.5)	3(1.5)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	176(64.0)	23(8.4)	20(7.3)	7(2.5)	3(1.1)	4(1.5)
	상	6(40.0)	0(0.0)	1(6.7)	1(6.7)	1(6.7)	0(0.0)
본인 월평균 소득	하	30(58.8)	6(11.8)	2(3.9)	5(9.8)	0(0.0)	3(5.9)
	중	286(70.1)	25(6.1)	33(8.1)	10(2.5)	3(0.7)	3(0.7)
현재 직업여부	상	19(55.9)	1(2.9)	1(2.9)	3(8.8)	2(5.9)	1(2.9)
	200만원 미만	65(80.2)	1(1.2)	3(3.7)	2(2.5)	0(0.0)	2(2.5)
	200-300만원 미만	112(62.2)	17(9.4)	15(8.3)	3(1.7)	3(1.7)	4(2.2)
현재 직업종류	300만원 이상	16(69.6)	1(4.3)	2(8.7)	0(0.0)	1(4.3)	2(8.7)
	직업 없음	142(67.9)	13(6.2)	16(7.7)	13(6.2)	1(0.5)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직업 있음	193(68.0)	19(6.7)	20(7.0)	5(1.8)	4(1.4)	7(2.5)
	학생(휴학생 포함)	118(79.2)	3(2.0)	8(5.4)	3(2.0)	1(0.7)	0(0.0)
	구직활동/창업준비	14(40.0)	6(17.1)	3(8.6)	7(20.0)	0(0.0)	0(0.0)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10(41.7)	4(16.7)	5(20.8)	3(12.5)	0(0.0)	0(0.0)
직업의 변화 (지나해-현재)	근로자	176(67.2)	18(6.9)	18(6.9)	5(1.9)	3(1.1)	7(2.7)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7(77.3)	1(4.5)	2(9.1)	0(0.0)	1(4.5)	0(0.0)
	없음 - 없음	140(69.0)	13(6.4)	16(7.9)	12(5.9)	1(0.5)	0(0.0)
근로시간	없음 - 있음	19(51.4)	5(13.5)	7(18.9)	1(2.7)	0(0.0)	1(2.7)
	있음 - 없음	2(33.3)	0(0.0)	0(0.0)	1(16.7)	0(0.0)	0(0.0)
	있음 - 있음	174(70.4)	14(5.7)	13(5.3)	4(1.6)	4(1.6)	6(2.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7(77.8)	0(0.0)	0(0.0)	1(11.1)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186(67.6)	19(6.9)	20(7.3)	4(1.5)	4(1.5)	7(2.5)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46] 우울감이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상각하지 않아서	이용 방법을 몰라서	주위의 사선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연령대	20대 초반	98(8.1)	9(6.3)	4(2.8)	5(3.5)	0(0.0)	1(0.7)	27(18.8)
	20대 중반	87(56.9)	14(9.2)	4(2.6)	9(5.9)	2(1.3)	2(1.3)	35(22.9)
	20대 후반	100(62.9)	12(7.5)	18(11.3)	8(5.0)	0(0.0)	0(0.0)	21(13.2)
자치구	동구	32(56.1)	5(8.8)	4(7.0)	3(5.3)	0(0.0)	0(0.0)	13(22.8)
	중구	51(58.6)	6(6.9)	7(8.0)	6(6.9)	0(0.0)	0(0.0)	17(19.5)
	서구	87(68.0)	8(6.3)	6(4.7)	5(3.9)	1(0.8)	1(0.8)	20(15.6)
	유성구	87(66.9)	8(6.2)	5(3.8)	5(3.8)	0(0.0)	1(0.8)	24(18.5)
	대덕구	28(51.9)	8(14.8)	4(7.4)	3(5.6)	1(1.9)	1(1.9)	9(16.7)
동거가족	혼자	47(69.1)	2(2.9)	4(5.9)	3(4.4)	2(2.9)	2(2.9)	8(11.8)
	부모와 함께 동거	219(62.8)	27(7.7)	17(4.9)	15(4.3)	0(0.0)	1(0.3)	70(20.1)
	배우자와 함께 동거	15(50.0)	6(20.0)	5(16.7)	1(3.3)	0(0.0)	0(0.0)	3(10.0)
	기타	2(33.3)	0(0.0)	0(0.0)	2(33.3)	0(0.0)	0(0.0)	2(33.3)
비혼여부	비혼	270(63.4)	29(6.8)	21(4.9)	21(4.9)	2(0.5)	3(0.7)	80(18.8)
	비혼 외	15(50.0)	6(20.0)	5(16.7)	1(3.3)	0(0.0)	0(0.0)	3(10.0)
자녀여부	있다	8(44.4)	4(22.2)	2(11.1)	1(5.6)	0(0.0)	0(0.0)	3(16.7)
	없다	277(63.2)	31(7.1)	24(5.5)	21(4.8)	2(0.5)	3(0.7)	80(18.3)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43.1)	19(32.8)	6(10.3)	5(8.6)	0(0.0)	0(0.0)	3(5.2)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98(71.5)	3(2.2)	3(2.2)	6(4.4)	0(0.0)	0(0.0)	27(19.7)
	대학교 졸업	158(62.7)	12(4.8)	13(5.2)	11(4.4)	2(0.8)	3(1.2)	53(21.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4(44.4)	1(11.1)	4(44.4)	0(0.0)	0(0.0)	0(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133(75.1)	15(8.5)	10(5.6)	9(5.1)	0(0.0)	0(0.0)	10(5.6)
	중	149(56.4)	20(7.6)	15(5.7)	13(4.9)	1(0.4)	2(0.8)	64(24.2)
	상	3(20.0)	0(0.0)	1(6.7)	0(0.0)	1(6.7)	1(6.7)	9(6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8(58.3)	7(14.6)	3(6.3)	3(6.3)	0(0.0)	0(0.0)	7(14.6)
	중	24(64.7)	27(7.1)	21(5.5)	17(4.5)	1(0.3)	2(0.5)	66(17.4)
	상	11(39.3)	1(3.6)	2(7.1)	2(7.1)	1(3.6)	1(3.6)	10(35.7)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8(74.4)	3(3.8)	2(2.6)	1(1.3)	0(0.0)	1(1.3)	13(16.7)
	200-300만원 미만	104(59.4)	17(9.7)	9(5.1)	7(4.0)	1(0.6)	1(0.6)	36(20.6)
	300만원 이상	10(43.5)	2(8.7)	5(21.7)	1(4.3)	1(4.3)	1(4.3)	3(13.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13(62.8)	13(7.2)	10(5.6)	13(7.2)	0(0.0)	0(0.0)	31(17.2)
	직업 있음	172(62.3)	22(8.0)	16(5.8)	9(3.3)	2(0.7)	3(1.1)	52(18.8)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91(69.5)	5(3.8)	3(2.3)	7(5.3)	0(0.0)	0(0.0)	25(19.1)
	구직활동/창업준비	15(46.9)	4(12.5)	4(12.5)	5(15.6)	0(0.0)	0(0.0)	4(12.5)
	구직/창업 포기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주부	7(43.8)	4(25.0)	3(18.8)	1(6.3)	0(0.0)	0(0.0)	1(6.3)
	근로자	159(62.4)	21(8.2)	14(5.5)	8(3.1)	1(0.4)	2(0.8)	50(19.6)
	지역업/프리랜서/고용주	13(61.9)	1(4.8)	2(9.5)	1(4.8)	1(4.8)	1(4.8)	2(9.5)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110(63.2)	13(7.5)	10(5.7)	12(6.9)	0(0.0)	0(0.0)	29(16.7)
	없음 - 있음	22(59.5)	5(13.5)	2(5.4)	1(2.7)	0(0.0)	1(2.7)	6(16.2)
	있음 - 없음	3(50.0)	0(0.0)	0(0.0)	1(16.7)	0(0.0)	0(0.0)	2(33.3)
	있음 - 있음	150(62.8)	17(7.1)	14(5.9)	8(3.3)	2(0.8)	2(0.8)	46(19.2)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8(1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164(61.2)	22(8.2)	16(6.0)	9(3.4)	2(0.7)	3(1.1)	52(19.4)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⑧ 대전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한 생각과 그 원인

- 지난 1년 이내 자살에 대해 생각과 그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8.5%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다'라고 답함
  - 자살을 생각한 빈도는 '년 1~2회'가 5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년 3~4회(15.9%)'였음
  -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로움과 고독(27.3%)', '경제적 어려움(22.7%)' 순이었음

[표 3-47] 대전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빈도와 가장 큰 원인

(단위: 명,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다	자살을 생각한 빈도(최근 1년 이내)					
	계	년 1-2회	년 3-4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515명 중 44명 (8.5)	44 (100.0)	26 (59.1)	7 (15.9)	5 (11.4)	4 (9.1)	2 (4.5)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계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과 고독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44 (100.0)	10 (22.7)	3 (4.5)	12 (27.3)	20 (45.5)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48]과 같음
- 자살에 대한 생각 빈도와 원인의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응답자 수가 현저히 적어 분석을 제시하지 않음. 응답 결과는 표를 통해 확인 바람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응답자 특성 내 집 단별 비교)

- ‘연령대’의 경우 20대 중반(12.2%)이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동구가 10.9%로 가장 높았음
- ‘동거가족’은 혼자(17.7%)인 경우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 ‘비혼여부’는 비혼(8.7%)가 비혼 외(7.0%)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8.6%)가 자녀가 있는 경우(7.4%)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1.2%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이 11.8%로 가장 높았지만, 하 또한 11.0%로 차이가 크지 않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32.7%)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15.3%)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없음(8.7%)이 직업 있음(8.4%)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구직활동/창업준비(27.0%)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12.0%)였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한 경우 (28.6%)가 가장 높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16.7%)이 주간 8시간 이상(8.1%)보다 높았음

[표 3-48]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빈도와 가장 큰 원인(최근 1년 이내)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빈도(최근 1년 이내)					가장 큰 원인			
			년 1-2회	년 3-4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경제적 어려움	간장 문제	외로움과 고독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연령대	20대 초반	9(5.3)	3(33.3)	1(11.1)	3(33.3)	2(22.2)	0(0.0)	1(11.1)	1(11.1)	2(22.2)	5(55.6)
	20대 중반	21(12.2)	14(66.7)	3(14.3)	1(4.8)	2(9.5)	1(4.8)	5(23.8)	1(4.8)	7(33.3)	8(38.1)
	20대 후반	14(8.1)	9(64.3)	3(21.4)	1(7.1)	0(0.0)	1(7.1)	4(28.6)	0(0.0)	3(21.4)	7(50.0)
자차구	등구	7(10.9)	2(28.6)	2(28.6)	1(14.3)	1(14.3)	1(14.3)	4(57.1)	0(0.0)	0(0.0)	3(42.9)
	중구	6(6.3)	5(83.3)	1(16.7)	0(0.0)	0(0.0)	0(0.0)	3(50.0)	0(0.0)	1(16.7)	2(33.3)
	서구	15(10.1)	10(66.7)	2(13.3)	1(6.7)	2(13.3)	0(0.0)	2(13.3)	1(6.7)	8(53.3)	4(26.7)
	유상구	11(7.5)	7(63.6)	1(9.1)	2(18.2)	0(0.0)	1(9.1)	1(9.1)	1(9.1)	2(18.2)	7(63.6)
	대락구	5(8.2)	2(40.0)	1(20.0)	1(20.0)	1(20.0)	0(0.0)	0(0.0)	0(0.0)	1(20.0)	4(80.0)
동거가족	혼자	14(17.7)	11(78.6)	1(7.1)	0(0.0)	2(14.3)	0(0.0)	2(14.3)	1(7.1)	5(35.7)	6(42.9)
	부모와 함께 동거	2(6.8)	14(53.8)	6(23.1)	4(15.4)	2(7.7)	0(0.0)	6(23.1)	1(3.8)	7(26.9)	12(46.2)
	배우자와 함께 동거	2(4.8)	1(50.0)	0(0.0)	1(50.0)	0(0.0)	0(0.0)	0(0.0)	0(0.0)	0(0.0)	2(100.0)
	가족	2(25.0)	0(0.0)	0(0.0)	0(0.0)	0(0.0)	2(100.0)	2(100.0)	0(0.0)	0(0.0)	0(0.0)
비혼여부	비혼	4(18.7)	25(61.0)	7(17.1)	4(9.8)	4(9.8)	1(2.4)	9(22.0)	2(4.9)	12(29.3)	18(43.9)
	비혼 외	3(7.0)	1(33.3)	0(0.0)	1(33.3)	0(0.0)	1(33.3)	1(33.3)	0(0.0)	0(0.0)	2(66.7)
자녀여부	있다	2(7.4)	0(0.0)	0(0.0)	1(50.0)	0(0.0)	1(50.0)	1(50.0)	0(0.0)	0(0.0)	1(50.0)
	없다	4(28.6)	2(61.9)	7(16.7)	4(9.5)	4(9.5)	1(2.4)	9(21.4)	2(4.8)	12(28.6)	19(45.2)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21.2)	6(42.9)	3(21.4)	3(21.4)	1(7.1)	1(7.1)	4(28.6)	2(14.3)	4(28.6)	4(28.6)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7(4.3)	3(42.9)	1(14.3)	2(28.6)	1(14.3)	0(0.0)	0(0.0)	0(0.0)	1(14.3)	6(85.7)
	대학교 졸업	2(38.3)	1(73.9)	3(13.0)	0(0.0)	2(8.7)	1(4.3)	6(26.1)	0(0.0)	7(30.4)	10(43.5)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	-	-	-	-	-	-	-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3(11.0)	15(65.2)	2(8.7)	1(4.3)	3(13.0)	2(8.7)	7(30.4)	1(4.3)	5(21.7)	10(43.5)
	중	1(96.6)	10(52.6)	5(26.3)	3(15.8)	1(5.3)	0(0.0)	3(15.8)	1(5.3)	6(31.6)	9(47.4)
	상	2(11.8)	1(50.0)	0(0.0)	1(50.0)	0(0.0)	0(0.0)	0(0.0)	0(0.0)	1(50.0)	1(5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18(32.7)	12(66.7)	2(11.1)	0(0.0)	2(11.1)	2(11.1)	6(33.3)	1(5.6)	3(16.7)	8(44.4)
	중	2(35.4)	12(52.2)	5(21.7)	4(17.4)	2(8.7)	0(0.0)	4(17.4)	1(4.3)	8(34.8)	10(43.5)
	상	3(8.3)	2(66.7)	0(0.0)	1(33.3)	0(0.0)	0(0.0)	0(0.0)	0(0.0)	1(33.3)	2(66.7)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15.3)	11(84.6)	1(7.7)	0(0.0)	1(7.7)	0(0.0)	2(15.4)	1(7.7)	3(23.1)	7(53.8)
	200-300만원 미만	1(126.4)	9(975.0)	1(18.3)	0(0.0)	1(18.3)	1(18.3)	6(650.0)	0(0.0)	2(216.7)	4(433.3)
	300만원 이상	0(0.0)	-	-	-	-	-	-	-	-	-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198.7)	6(316.9)	5(263.3)	5(263.3)	2(105.5)	1(5.3)	2(105.5)	1(5.3)	7(368.8)	9(474.4)
	직업 있음	2(258.4)	20(280.0)	2(28.0)	0(0.0)	2(28.0)	1(14.0)	8(320.0)	1(14.0)	5(200.0)	11(440.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7(74.5)	2(28.6)	1(14.3)	3(42.9)	1(14.3)	0(0.0)	0(0.0)	1(14.3)	1(14.3)	5(71.4)
	구직활동/창업준비	1(1027.0)	4(400.0)	0(0.0)	0(0.0)	1(100.0)	1(100.0)	2(200.0)	0(0.0)	5(500.0)	3(300.0)
	구직/창업 포기	1(1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주부	1(4.0)	0(0.0)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근로자	2(228.1)	18(181.8)	2(29.1)	0(0.0)	1(14.5)	1(14.5)	8(836.4)	1(14.5)	3(313.6)	10(1045.5)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3(312.0)	2(266.7)	0(0.0)	0(0.0)	1(33.3)	0(0.0)	0(0.0)	0(0.0)	2(66.7)	1(33.3)
직업의 변화 (자녀-현재)	없음 - 없음	1(178.0)	6(335.3)	5(29.4)	3(17.6)	2(11.8)	1(5.9)	2(11.8)	1(5.9)	6(35.3)	8(47.1)
	없음 - 있음	3(37.7)	2(266.7)	0(0.0)	0(0.0)	1(33.3)	0(0.0)	2(66.7)	0(0.0)	0(0.0)	1(33.3)
	있음 - 없음	2(28.6)	0(0.0)	0(0.0)	2(100.0)	0(0.0)	0(0.0)	0(0.0)	0(0.0)	1(50.0)	1(50.0)
	있음 - 있음	2(228.6)	18(181.8)	2(29.1)	0(0.0)	1(14.5)	1(14.5)	6(627.3)	1(14.5)	5(522.7)	10(1045.5)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2(216.7)	1(50.0)	0(0.0)	0(0.0)	0(0.0)	1(50.0)	1(50.0)	0(0.0)	0(0.0)	1(50.0)
	주간 8시간 이상	2(38.1)	19(82.6)	2(8.7)	0(0.0)	2(8.7)	0(0.0)	7(30.4)	1(4.3)	5(21.7)	10(43.5)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 ⑨ 대전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전문가 상담 경험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중 상담을 받아 본 적 없다고 응답한 자에게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심각하지 않아서(20.2%), 주위의 시선 때문에(16.7%) 순이었음

[표 3-49] 대전 20대 여성 -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는 사람 중 '상담받아 본 적 없다'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계	심각하지 않아서	이용 방법을 몰라서	주위의 시선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44명 중 14명 (31.8)	14 (100.0)	6 (20.0)	3 (10.0)	5 (16.7)	4 (13.3)	2 (6.7)	10 (33.3)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50]과 같음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의 경우 응답자 수가 14명으로 현저히 적어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응답 결과는 표를 확인 바람

[표 3-50]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전문가 상담 이용경험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상담 경험 유무		상담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있다	없다	심각하지 않아서	이용 방법을 몰라서	주위의 사선 때문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시간이 없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연령대	20대 초반	4(44.4)	5(55.6)	0(0.0)	1(20.0)	0(0.0)	1(20.0)	0(0.0)	3(60.0)
	20대 중반	7(33.3)	14(66.7)	3(21.4)	2(14.3)	2(14.3)	0(0.0)	2(14.3)	5(35.7)
	20대 후반	3(21.4)	11(78.6)	3(27.3)	0(0.0)	3(27.3)	3(27.3)	0(0.0)	2(18.2)
자치구	동구	2(28.6)	5(71.4)	0(0.0)	2(40.0)	0(0.0)	1(20.0)	0(0.0)	2(40.0)
	중구	0(0.0)	6(100.0)	2(33.3)	1(16.7)	0(0.0)	1(16.7)	0(0.0)	2(33.3)
	서구	7(46.7)	8(53.3)	1(12.5)	0(0.0)	3(37.5)	1(12.5)	1(12.5)	2(25.0)
	유성구	4(36.4)	7(63.6)	3(42.9)	0(0.0)	1(14.3)	0(0.0)	0(0.0)	3(42.9)
	대덕구	1(20.0)	4(80.0)	0(0.0)	0(0.0)	1(25.0)	1(25.0)	1(25.0)	1(25.0)
동가족	혼자	6(42.9)	8(57.1)	2(25.0)	2(25.0)	0(0.0)	1(12.5)	2(25.0)	1(12.5)
	부모와 함께 동거	6(23.1)	20(76.9)	4(20.0)	1(5.0)	5(25.0)	2(10.0)	0(0.0)	8(40.0)
	배우자와 함께 동거	1(50.0)	1(50.0)	0(0.0)	0(0.0)	0(0.0)	1(100.0)	0(0.0)	0(0.0)
	기타	1(50.0)	1(50.0)	0(0.0)	0(0.0)	0(0.0)	0(0.0)	0(0.0)	1(100.0)
비혼여부	비혼	12(29.3)	29(70.7)	6(20.7)	3(10.3)	5(17.2)	3(10.3)	2(6.9)	10(34.5)
	비혼 외	2(66.7)	1(33.3)	0(0.0)	0(0.0)	0(0.0)	1(100.0)	0(0.0)	0(0.0)
자녀여부	있다	1(50.0)	1(50.0)	0(0.0)	0(0.0)	0(0.0)	1(100.0)	0(0.0)	0(0.0)
	없다	13(31.0)	29(69.0)	6(20.7)	3(10.3)	5(17.2)	3(10.3)	2(6.9)	10(34.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5.7)	9(64.3)	0(0.0)	3(33.3)	1(11.1)	3(33.3)	1(11.1)	1(11.1)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3(42.9)	4(57.1)	0(0.0)	0(0.0)	1(25.0)	0(0.0)	0(0.0)	3(75.0)
	대학교 졸업	6(26.1)	17(73.9)	6(35.3)	0(0.0)	3(17.6)	1(5.9)	1(5.9)	6(35.3)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	-	-	-	-	-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9(39.1)	14(60.9)	2(14.3)	3(21.4)	1(7.1)	2(14.3)	1(7.1)	5(35.7)
	중	4(21.1)	15(78.9)	4(26.7)	0(0.0)	4(26.7)	1(6.7)	1(6.7)	5(33.3)
	상	1(50.0)	1(50.0)	0(0.0)	0(0.0)	0(0.0)	1(100.0)	0(0.0)	0(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6(33.3)	12(66.7)	2(16.7)	2(16.7)	1(8.3)	2(16.7)	1(8.3)	4(33.3)
	중	6(26.1)	17(73.9)	4(23.5)	1(5.9)	4(23.5)	1(5.9)	1(5.9)	6(35.3)
	상	2(66.7)	1(33.3)	0(0.0)	0(0.0)	0(0.0)	1(100.0)	0(0.0)	0(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38.5)	8(61.5)	1(12.5)	1(12.5)	1(12.5)	0(0.0)	1(12.5)	4(50.0)
	200-300만원 미만	4(33.3)	8(66.7)	3(37.5)	2(25.0)	1(12.5)	1(12.5)	1(12.5)	0(0.0)
	300만원 이상	-	-	-	-	-	-	-	-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5(26.3)	14(73.7)	2(14.3)	0(0.0)	3(21.4)	3(21.4)	0(0.0)	6(42.9)
	직업 있음	9(36.0)	16(64.0)	4(25.0)	3(18.8)	2(12.5)	1(6.3)	2(12.5)	4(25.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3(42.9)	4(57.1)	0(0.0)	0(0.0)	1(25.0)	0(0.0)	0(0.0)	3(75.0)
	구직활동/창업준비	2(20.0)	8(80.0)	2(25.0)	0(0.0)	2(25.0)	2(25.0)	0(0.0)	2(25.0)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주부	0(0.0)	1(1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근로자	7(31.8)	15(68.2)	4(26.7)	3(20.0)	2(13.3)	1(6.7)	2(13.3)	3(20.0)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66.7)	1(33.3)	0(0.0)	0(0.0)	0(0.0)	0(0.0)	0(0.0)	1(1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5(29.4)	12(70.6)	2(16.7)	0(0.0)	3(25.0)	2(16.7)	0(0.0)	5(41.7)
	없음 - 있음	1(33.3)	2(66.7)	0(0.0)	1(50.0)	0(0.0)	0(0.0)	0(0.0)	1(50.0)
	있음 - 없음	0(0.0)	2(100.0)	0(0.0)	0(0.0)	0(0.0)	1(50.0)	0(0.0)	1(50.0)
	있음 - 있음	8(36.4)	14(63.6)	4(28.6)	2(14.3)	2(14.3)	1(7.1)	2(14.3)	3(21.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2(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간 8시간 이상	7(30.4)	16(69.6)	4(25.0)	3(18.8)	2(12.5)	1(6.3)	2(12.5)	4(25.0)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임

- ⑨ 대전 20대 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 생각을 겪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을 겪거나 자살 생각이 든다면, 각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8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우울감(82.5%), 자살 생각(58.6%) 순이었음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에 대한 응답비율은 스트레스는 3명(26.5%)이 가장 많았고, 우울감과 자살 생각은 2명(각각 34.1%, 37.4%)이 가장 많았음
    -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친구가 가장 많았고, 특이점은 부모에 대한 응답이 자살 생각(32.5%)의 경우 스트레스(21.7%)와 우울감(19.1%)에 비해 응답비율이 높다는 것임

[표 3-51] 대전 20대 여성 -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단위: 명, %)

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스트레스	460 (89.3)	93 (20.2)	117 (25.4)	122 (26.5)	69 (15.0)	59 (12.8)	87 (18.9)	100 (21.7)	9 (2.0)	264 (57.4)
우울감	425 (82.5)	84 (19.8)	145 (34.1)	117 (27.5)	42 (9.9)	37 (8.7)	47 (11.1)	81 (19.1)	19 (4.5)	278 (65.4)
자살 생각	302 (58.6)	90 (29.8)	113 (37.4)	54 (17.9)	29 (9.6)	16 (5.3)	32 (10.6)	98 (32.5)	8 (2.6)	164 (54.3)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52], [표 3-53], [표 3-54]와 같음
-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와줄 사람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비교)
  - '연령대'의 경우 20대 초반(94.7%)이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대덕구

- 가 95.1%로 가장 높았음.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100.0%)가 가장 높았고, 혼자(75.9%)가 가장 낮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100.0%)가 비혼(88.3%)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100.0%)가 자녀가 없는 경우(88.7%)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이 91.3%로 가장 높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이 89.6%로 가장 높았고,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94.4%)이 가장 높았고, 하(76.4%)가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100.0%)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78.8%)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없음(90.9%)이 직업 있음(88.2%)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100.0%)가 가장 높았고, 구직활동/창업준비(70.3%)가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다고 한 경우(92.3%)가 가장 높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100.0%)이 주간 8시간 이상(87.7%)보다 높았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에 대한 비교)

- 분석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를 제시함
- '동거가족'이 혼자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35.0%로 다른 집단(14.3%, 17.5%)에 비해 높았음
-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30.5%로 다른 집단(15.6%, 19.7%)에 비해 높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2.9%로 다른 집단(18.5%, 11.8%)에 비해 높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52.2%로 다른 집단(16.5%, 8.3%)에 비해 높았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유형에 대한 비교)

-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유형은 대부분 '친구'였음. 1) 가장 많은 응답이 '친구'가 아닌 경우 또는 2) 응답에서 특이점이 보이는 경우를 제시함
- 먼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배우자 또는 연인'인 경우는 '동거가족'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76.2%)인 경우, '비혼여부'가 비혼 외(74.4%)인 경우, '자녀여부'가 유자녀(88.9%)인 경우, '현재 직업 종류'가 주부(80.0%)인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33.3%)인 경우임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였음
- 두 번째로 많은 응답비율이 '부모'가 아닌 '배우자 또는 연인'인 경우는 '연령대'의 20대 후반, '동거가족'의 혼자, '교육정도'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본인 주관적 소득 계층'의 하와 상,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의 하와 상, '직업의 변화'의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음이었음
- 이 때, '배우자 또는 연인'에 대한 응답비율을 '부모'에 대한 응답비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10%p 이상)를 보이는 특이점이 있는 집단은
- '연령대'의 20대 후반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34.8%), 부모(20.9%)로 차이를 보였고, '동거가족'의 혼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25.0%), 부모(15.0%)로 차이를 보임. '교육정도'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30.5%), 부모(16.9%)로 차이를 보였고,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의 상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23.5%), 부모(8.8%)로 차이를 보임

[표 3-52]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배우자 연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연령대	20대 초반	161(94.7)	19(11.8)	42(26.1)	42(26.1)	34(21.1)	24(14.9)	19(11.8)	46(28.6)	1(0.6)	95(59.0)
	20대 중반	141(82.0)	42(29.8)	43(30.5)	28(19.9)	16(11.3)	128.5)	13(9.2)	21(14.9)	6(4.3)	101(71.6)
	20대 후반	158(91.3)	32(20.3)	32(20.3)	52(32.9)	19(12.0)	23(14.6)	55(34.8)	33(20.9)	2(1.3)	68(43.0)
차차구	등구	56(87.5)	13(23.2)	12(21.4)	14(25.0)	8(14.3)	9(16.1)	11(19.6)	8(14.3)	0(0.0)	37(66.1)
	중구	86(90.5)	17(19.8)	22(25.6)	22(25.6)	14(16.3)	11(12.8)	13(15.1)	23(26.7)	2(2.3)	48(55.8)
	서구	127(85.2)	27(21.3)	24(18.9)	34(26.8)	22(17.3)	20(15.7)	25(19.7)	31(24.4)	7(5.5)	64(50.4)
	유성구	133(91.1)	27(20.3)	43(32.3)	30(22.6)	19(14.3)	14(10.5)	26(19.5)	21(15.8)	0(0.0)	86(64.7)
동거가족	대남구	58(95.1)	9(15.5)	16(27.6)	22(37.9)	6(10.3)	6(10.3)	12(20.7)	17(29.3)	0(0.0)	29(50.0)
	혼자	60(75.9)	21(55.0)	14(23.3)	14(23.3)	6(10.0)	5(8.3)	15(25.0)	9(15.0)	1(1.7)	35(58.3)
	부모와 함께 동거	348(90.9)	61(17.5)	90(25.9)	86(24.7)	58(16.7)	53(15.2)	39(11.2)	82(23.6)	6(1.7)	221(63.5)
	배우자와 함께 동거	42(100.0)	6(14.3)	13(31.0)	19(45.2)	3(7.1)	1(2.4)	32(76.2)	3(7.1)	0(0.0)	7(16.7)
비혼여부	가타	7(87.5)	3(42.9)	0(0.0)	2(28.6)	2(28.6)	0(0.0)	0(0.0)	5(71.4)	2(28.6)	0(0.0)
	비혼	417(88.3)	86(20.6)	104(24.9)	103(24.7)	66(15.8)	58(13.9)	55(13.2)	96(23.0)	9(2.2)	257(61.6)
자녀여부	비혼 외	43(100.0)	7(16.3)	13(30.2)	19(44.2)	3(7.0)	1(2.3)	32(74.4)	4(9.3)	0(0.0)	7(16.3)
	있다	27(100.0)	5(18.5)	6(22.2)	13(48.1)	3(11.1)	0(0.0)	24(88.9)	2(7.4)	0(0.0)	1(3.7)
교육정도	없다	433(88.7)	88(20.3)	111(25.6)	109(25.2)	66(15.2)	59(13.6)	63(14.5)	98(22.6)	9(2.1)	263(60.7)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89.4)	18(30.5)	22(37.3)	11(18.6)	5(8.5)	3(5.1)	18(30.5)	10(16.9)	0(0.0)	31(52.5)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47(91.3)	23(15.6)	40(27.2)	34(23.1)	30(20.4)	20(13.6)	19(12.9)	39(26.5)	3(2.0)	86(58.5)
	대학교 졸업	244(87.8)	48(19.7)	52(21.3)	75(30.7)	33(13.5)	36(14.8)	50(20.5)	47(19.3)	5(2.0)	142(58.2)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0(100.0)	4(40.0)	3(30.0)	2(20.0)	1(10.0)	0(0.0)	0(0.0)	4(40.0)	1(10.0)	5(50.0)
	하	187(89.0)	38(20.3)	42(22.5)	57(30.5)	31(16.6)	19(10.2)	50(26.7)	45(24.1)	3(1.6)	89(47.6)
	중	258(89.6)	52(20.2)	70(27.1)	64(24.8)	35(13.6)	37(14.3)	34(13.2)	55(21.3)	6(2.3)	163(63.2)
	상	15(88.2)	3(20.0)	5(33.3)	1(6.7)	3(20.0)	3(20.0)	3(20.0)	0(0.0)	0(0.0)	12(8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42(76.4)	18(42.9)	9(21.4)	9(21.4)	2(4.8)	4(9.5)	10(23.8)	9(21.4)	2(4.8)	21(50.0)
	중	384(90.6)	71(18.5)	99(25.8)	104(27.1)	60(15.6)	50(13.0)	69(18.0)	88(22.9)	7(1.8)	220(57.3)
	상	34(94.4)	4(11.8)	9(26.5)	9(26.5)	7(20.6)	5(14.7)	8(23.5)	3(8.8)	0(0.0)	23(67.6)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7(78.8)	35(52.2)	12(17.9)	12(17.9)	5(7.5)	3(4.5)	10(14.9)	10(14.9)	1(1.5)	46(68.7)
	200-300만원 미만	170(90.9)	28(16.5)	49(28.8)	47(27.6)	20(11.8)	26(15.3)	31(18.2)	38(22.4)	4(2.4)	97(57.1)
	300만원 이상	24(100.0)	2(8.3)	3(12.5)	6(25.0)	8(33.3)	5(20.8)	4(16.7)	7(29.2)	1(4.2)	12(5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99(90.9)	28(14.1)	53(26.6)	57(28.6)	36(18.1)	25(12.6)	42(21.1)	45(22.6)	3(1.5)	109(54.8)
	직업 있음	261(88.2)	65(24.9)	64(24.5)	65(24.9)	33(12.6)	34(13.0)	45(17.2)	55(21.1)	6(2.3)	155(59.4)
	학생(휴학생 포함)	148(94.9)	17(11.5)	43(29.1)	38(25.7)	32(21.6)	18(12.2)	19(12.8)	39(26.4)	3(2.0)	87(58.8)
현재 직업종류	구직활동/창업준비	26(70.3)	7(26.9)	2(7.7)	9(34.6)	2(7.7)	6(23.1)	3(11.5)	5(19.2)	0(0.0)	18(69.2)
	구직/창업 포기	0(0.0)	-	-	-	-	-	-	-	-	-
	주부	25(100.0)	4(16.0)	8(32.0)	10(40.0)	2(8.0)	1(4.0)	20(80.0)	1(4.0)	0(0.0)	4(16.0)
	근로자	239(88.2)	58(24.3)	64(26.8)	59(24.7)	26(10.9)	32(13.4)	40(16.7)	50(20.9)	4(1.7)	145(60.7)
직업의 변화 (자신해 -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2(88.0)	7(31.8)	0(0.0)	6(27.3)	7(31.8)	2(9.1)	5(22.7)	5(22.7)	2(9.1)	10(45.5)
	없음 - 없음	195(92.0)	28(14.4)	52(26.7)	55(28.2)	36(18.5)	24(12.3)	41(21.0)	45(23.1)	3(1.5)	106(54.4)
	없음 - 있음	36(92.3)	7(19.4)	9(25.0)	14(38.9)	3(8.3)	3(8.3)	2(5.6)	13(36.1)	3(8.3)	18(50.0)
	있음 - 없음	4(57.1)	0(0.0)	1(25.0)	2(50.0)	0(0.0)	1(25.0)	1(25.0)	0(0.0)	0(0.0)	3(75.0)
	있음 - 있음	225(87.5)	58(25.8)	55(24.4)	51(22.7)	30(13.3)	31(13.8)	43(19.1)	42(18.7)	3(1.3)	137(60.9)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2(100.0)	4(33.3)	1(8.3)	6(50.0)	0(0.0)	1(8.3)	4(33.3)	4(33.3)	1(8.3)	3(25.0)
	주간 8시간 이상	249(87.7)	61(24.5)	63(25.3)	59(23.7)	33(13.3)	33(13.3)	41(16.5)	51(20.5)	5(2.0)	152(61.0)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임

○ 우울감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비교)

- '연령대'의 경우 20대 초반(92.9%)이 가장 높았고, 20대 중반(69.8%)이 가장 낮았음. '자치구'는 대덕구가 91.8%로 가장 높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92.9%)가 가장 높았고, 혼자(57.0%)가 가장 낮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93.0%)가 비혼(81.6%)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96.3%)가 자녀가 없는 경우(81.8%)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이 85.7%로 가장 높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이 88.2%로 가장 높았고,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94.4%)이 가장 높았고, 하(56.4%)가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100.0%)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55.3%)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없음(89.0%)이 직업 있음(77.7%)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96.0%)가 가장 높았고, 구직활동/창업준비(64.9%)가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다고 한 경우(94.9%)가 가장 높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100.0%)이 주간 8시간 이상(76.8%)보다 높았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에 대한 비교)

- 분석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를 제시함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35.5%로 다른 집단(18.9%, 14.7%)에 비해 높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6.8%로 다른 집단(17.0%, 12.5%)에 비해 높았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유형에 대한 비교)

- 우울감을 겪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유형은 대부분 '친구'였음. 1) 가장 많은 응답이 '친구'가 아닌 경우 또는 2) 응답에서 특이점이 보이는 경우를 제시함
- 먼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배우자 또는 연인'인 경우는 '동거가족'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46.2%)인 경우, '비혼여부'가 비혼 외(45.0%)인 경우, '자녀여부'가 유자녀(46.2%)인 경우, '현재 직업 종류'가 주부(45.8%)인 경우임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울감을 겪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대부분이 '친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였음
- 두 번째로 많은 응답비율이 '부모'가 아닌 '배우자 또는 연인'인 경우는 '연령대'의 20대 후반, '동거가족'의 혼자, '교육정도'의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본인 주관적 소득 계층'의 상,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의 하와 상, '본인 월평균 소득'의 2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근로시간'의 주간 8시간 미만이었음
- 이 때, '배우자 또는 연인'에 대한 응답비율을 '부모'에 대한 응답비율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10%p 이상)를 보이는 특이점이 있는 집단은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의 상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20.0%), 부모(0.0%)로 차이를 보였음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의 하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19.4%), 부모(3.2%)로 차이를 보였고, 상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17.6%), 부모(0.0%)로 차이를 보임. '본인 월평균 소득'의 300만원 이상의 경우 배우자 또는 연인(20.8%), 부모(8.3%)로 차이를 보임

[표 3-53] 우울감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배우자 연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연령대	20대 초반	158(92.9)	26(16.5)	57(36.1)	53(33.5)	14(8.9)	85.1)	63.8)	45(28.5)	53.2)	102(64.6)
	20대 중반	120(69.8)	29(24.2)	43(35.8)	24(20.0)	13(10.8)	11(9.2)	5(4.2)	5(4.2)	21.7)	108(90.0)
	20대 후반	147(85.0)	29(19.7)	45(30.6)	40(27.2)	15(10.2)	18(12.2)	36(24.5)	31(21.1)	128.2)	68(46.3)
차차구	동구	53(82.8)	11(20.8)	17(32.1)	17(32.1)	35.7)	59.4)	59.4)	8(15.1)	0(0.0)	40(75.5)
	중구	79(83.2)	16(20.3)	25(31.6)	27(34.2)	78.9)	45.1)	8(10.1)	11(13.9)	33.8)	57(72.2)
	서구	114(76.5)	22(19.3)	38(33.3)	31(27.2)	13(11.4)	108.8)	108.8)	31(27.2)	12(10.5)	61(53.5)
	유성구	123(84.2)	24(19.5)	49(39.8)	24(19.5)	16(13.0)	108.1)	14(11.4)	22(17.9)	1(0.8)	86(69.9)
동거가족	대덕구	56(91.8)	11(19.6)	16(28.6)	18(32.1)	35.4)	8(14.3)	10(17.9)	9(16.1)	35.4)	34(60.7)
	혼자	45(57.0)	11(24.4)	19(42.2)	7(15.6)	6(13.3)	2(4.4)	7(15.6)	6(13.3)	1(2.2)	31(68.9)
	부모와 함께 동거	333(86.9)	65(19.5)	111(33.3)	91(27.3)	32(9.6)	34(10.2)	22(6.6)	70(21.0)	123(6)	229(68.8)
	배우자와 함께 동거	39(92.9)	5(12.8)	14(35.9)	16(41.0)	3(7.7)	1(2.6)	18(46.2)	1(2.6)	4(10.3)	16(41.0)
비혼여부	가타	6(75.0)	2(33.3)	1(16.7)	2(33.3)	1(16.7)	0(0.0)	0(0.0)	4(66.7)	2(33.3)	0(0.0)
	비혼	385(81.6)	78(20.3)	131(34.0)	101(26.2)	39(10.1)	36(9.4)	29(7.5)	79(20.5)	15(3.9)	262(68.1)
자녀여부	비혼 외	40(93.0)	6(15.0)	14(35.0)	16(40.0)	3(7.5)	1(2.5)	18(45.0)	2(5.0)	4(10.0)	16(40.0)
	있다	26(96.3)	5(19.2)	6(23.1)	12(46.2)	3(11.5)	0(0.0)	12(46.2)	2(7.7)	4(15.4)	8(30.8)
교육정도	없다	39(91.8)	7(19.8)	13(34.8)	10(26.3)	3(9.8)	3(9.8)	35(88)	7(19.8)	15(38)	27(67.7)
	고등학교 졸업 이하	55(83.3)	15(27.3)	24(43.6)	11(20.0)	3(5.5)	2(3.6)	7(12.7)	5(9.1)	2(3.6)	41(74.5)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38(85.2)	21(15.2)	52(37.7)	46(33.3)	11(8.0)	85(8)	3(2.2)	38(27.5)	5(3.6)	92(66.7)
	대학교 졸업	222(79.9)	43(19.4)	66(29.7)	58(26.1)	28(12.6)	27(12.2)	37(16.7)	34(15.3)	11(5.0)	140(63.1)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0(100.0)	5(50.0)	3(30.0)	2(20.0)	0(0.0)	0(0.0)	0(0.0)	4(40.0)	1(10.0)	5(50.0)
	하	161(76.7)	28(17.4)	56(34.8)	57(35.4)	12(7.5)	85.0)	21(13.0)	38(23.6)	85.0)	94(58.4)
	중	249(86.5)	52(20.9)	85(34.1)	58(23.3)	27(10.8)	27(10.8)	23(9.2)	43(17.3)	11(4.4)	172(69.1)
	상	15(88.2)	4(26.7)	4(26.7)	2(13.3)	3(20.0)	2(13.3)	3(20.0)	0(0.0)	0(0.0)	12(80.0)
가구	하	31(56.4)	11(35.5)	10(32.3)	6(19.4)	1(3.2)	3(9.7)	6(19.4)	1(3.2)	3(9.7)	21(67.7)
	중	360(84.9)	68(18.9)	125(34.7)	101(28.1)	35(9.7)	31(8.6)	35(9.7)	80(22.2)	15(4.2)	230(63.9)
	상	34(94.4)	5(14.7)	10(29.4)	10(29.4)	6(17.6)	3(8.8)	6(17.6)	0(0.0)	1(2.9)	27(79.4)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7(55.3)	22(46.8)	11(23.4)	8(17.0)	3(6.4)	3(6.4)	6(12.8)	5(10.6)	1(2.1)	35(74.5)
	200-300만원 미만	159(85.0)	27(17.0)	63(39.6)	34(21.4)	15(9.4)	20(12.6)	18(11.3)	31(19.5)	7(4.4)	103(64.8)
	300만원 이상	24(100.0)	3(12.5)	4(16.7)	7(29.2)	7(29.2)	3(12.5)	5(20.8)	2(8.3)	3(12.5)	14(58.3)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95(89.0)	32(16.4)	67(34.4)	68(34.9)	17(8.7)	11(5.6)	18(9.2)	43(22.1)	8(4.1)	126(64.6)
	직업 있음	230(77.7)	52(22.6)	78(33.9)	49(21.3)	25(10.9)	26(11.3)	29(12.6)	38(16.5)	11(4.8)	152(66.1)
	학생(휴학생 포함)	147(94.2)	22(15.0)	57(38.8)	51(34.7)	11(7.5)	6(4.1)	5(3.4)	39(26.5)	5(3.4)	98(66.7)
	구직활동/창업준비	24(64.9)	6(25.0)	3(12.5)	7(29.2)	4(16.7)	4(16.7)	2(8.3)	3(12.5)	0(0.0)	19(79.2)
현재 직업종류	구직/창업 포기	0(0.0)	-	-	-	-	-	-	-	-	-
	주부	24(96.0)	4(16.7)	7(29.2)	10(41.7)	2(8.3)	1(4.2)	11(45.8)	1(4.2)	3(12.5)	9(37.5)
	근로자	213(78.6)	51(23.9)	74(34.7)	45(21.1)	19(8.9)	24(11.3)	28(13.1)	35(16.4)	9(4.2)	141(66.2)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7(68.0)	1(5.9)	4(23.5)	4(23.5)	6(35.3)	2(11.8)	1(5.9)	3(17.6)	2(11.8)	11(64.7)
직업의 변화 (자녀-현재)	없음 - 없음	191(90.1)	31(16.2)	67(35.1)	66(34.6)	17(8.9)	10(5.2)	17(8.9)	42(22.0)	8(4.2)	124(64.9)
	없음 - 있음	37(94.9)	10(27.0)	10(27.0)	12(32.4)	4(10.8)	1(2.7)	4(10.8)	6(16.2)	3(8.1)	24(64.9)
	있음 - 없음	4(57.1)	1(25.0)	0(0.0)	2(50.0)	0(0.0)	1(25.0)	1(25.0)	1(25.0)	0(0.0)	2(50.0)
	있음 - 있음	193(75.1)	42(21.8)	68(35.2)	37(19.2)	21(10.9)	25(13.0)	25(13.0)	32(16.6)	8(4.1)	128(66.3)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2(100.0)	4(33.3)	3(25.0)	4(33.3)	0(0.0)	1(8.3)	4(33.3)	3(25.0)	0(0.0)	5(41.7)
	주간 8시간 이상	218(76.8)	48(22.0)	75(34.4)	45(20.6)	25(11.5)	25(11.5)	25(11.5)	35(16.1)	11(5.0)	147(67.4)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임

○ 자살 생각이 들 때 도와줄 사람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비교)

- '연령대'의 경우 20대 후반(62.4%)이 가장 높았고, 20대 중반(52.3%)이 가장 낮았음. '자치구'는 대덕구가 70.5%로 가장 높았음
-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63.7%)가 가장 높았고, 혼자(31.6%)가 가장 낮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62.8%)가 비혼(58.3%)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59.3%)가 자녀가 없는 경우(58.6%)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대학교 재학이 59.0%로 가장 높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이 76.5%로 가장 높았고, 하(41.0%)가 가장 낮았음.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72.2%)이 가장 높았고, 하(36.4%)가 가장 낮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83.3%)이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27.1%)이 가장 낮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없음(61.2%)이 직업 있음(56.8%)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68.0%)가 가장 높았고, 구직활동/창업준비(45.9%)가 가장 낮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다고 한 경우(61.8%)가 가장 높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57.0%)이 주간 8시간 미만(50.0%)보다 높았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수에 대한 비교)

- 분석은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우를 제시함
- '동거가족'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2.3%로 다른 집단(32.0%, 27.5%)에 비해 높았음
- '비혼여부'가 비혼이 아닌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 응답이 42.3%로 다른 집단(28.4%)에 비해 높았음
- '자녀여부'가 자녀가 있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3.8%로 없는 경우(29.0%)에 비해 높았음
-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1.2%로 다른 집단(31.6%, 24.5%)에 비해 높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1.9%로 다른 집단(25.1%, 23.1%)에 비해 높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5.0%로 다른 집단(28.5%, 30.8%)에 비해 높았음
- '본인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43.5%로 다른 집단(23.2%, 20.2%)에 비해 높았음
- '현재직업종류'이 주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이 58.8%로 다른 집단(18.8~31.3%)에 비해 높았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유형에 대한 비교)

- 자살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유형은 대부분 '친구'였음. 가장 많은 응답이 '친구'가 아닌 경우를 제시함
- 먼저, 자살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배우자 또는 연인'인 경우는 '동거가족'이 배우자와 함께 동거(50.0%)인 경우, '비혼여부'가 비혼 외(48.1%)인 경우, '현재 직업 종류'가 주부(58.8%)인 경우임
- 자살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친구'가 아닌 '부모'인 경우는 '연령대'의 20대 초반(50.0%)인 경우,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의 하(50.0%)인 경우, '근로시간'의 주간 8시간 미만(33.3%)임
- 특히 자살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의 유형은 스트레스나 우울감일 때와 다르게 거의 모든 유형에서 '친구'와 '배우자 또는 연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부모'의 비중이 늘어남(비혼 외, 유자녀, 주부 제외)

[표 3-54]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유무와 수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 수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배우자 연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연령대	20대 초반	104(61.2)	30(28.8)	42(40.4)	19(18.3)	109.6	3(2.9)	5(4.8)	52(50.0)	1(1.0)	46(44.2)
	20대 중반	90(52.3)	30(33.3)	30(33.3)	16(17.8)	7(7.8)	7(7.8)	7(7.8)	9(10.0)	1(1.1)	73(81.1)
	20대 후반	108(62.4)	30(27.8)	41(38.0)	19(17.6)	12(11.1)	65.6	20(18.5)	37(34.3)	65.6	45(41.7)
차차구	동구	35(54.7)	15(42.9)	10(28.6)	6(17.1)	25.7	25.7	4(11.4)	10(28.6)	0(0.0)	21(60.0)
	중구	57(60.0)	19(33.3)	24(42.1)	9(15.8)	47.0	1(1.8)	7(12.3)	18(31.6)	3(5.3)	29(50.9)
	서구	74(49.7)	20(27.0)	25(33.8)	14(18.9)	8(10.8)	7(9.5)	5(6.8)	35(47.3)	3(4.1)	31(41.9)
	유성구	93(63.7)	23(24.7)	39(41.9)	15(16.1)	13(14.0)	3(3.2)	9(9.7)	24(25.8)	2(2.2)	58(62.4)
	대덕구	43(70.5)	13(30.2)	15(34.9)	10(23.3)	2(4.7)	3(7.0)	7(16.3)	11(25.6)	0(0.0)	25(58.1)
	혼자	25(31.6)	8(32.0)	7(28.0)	7(28.0)	2(8.0)	1(4.0)	4(16.0)	5(20.0)	1(4.0)	15(60.0)
동거가족	부모와 함께 동거	244(63.7)	67(27.5)	97(39.8)	40(16.4)	25(10.2)	15(6.1)	15(6.1)	86(35.2)	6(2.5)	137(56.1)
	배우자와 함께 동거	26(61.9)	11(42.3)	8(30.8)	6(23.1)	1(3.8)	0(0.0)	13(50.0)	2(7.7)	0(0.0)	11(42.3)
	가족	6(75.0)	3(50.0)	1(16.7)	1(16.7)	1(16.7)	0(0.0)	0(0.0)	4(66.7)	1(16.7)	1(16.7)
비혼여부	비혼	275(58.3)	78(28.4)	105(38.2)	48(17.5)	28(10.2)	16(5.8)	19(6.9)	95(34.5)	8(2.9)	153(55.6)
	비혼 외	27(62.8)	12(44.4)	8(29.6)	6(22.2)	1(3.7)	0(0.0)	13(48.1)	3(11.1)	0(0.0)	11(40.7)
자녀여부	있다	16(59.3)	7(43.8)	5(31.3)	3(18.8)	1(6.3)	0(0.0)	6(37.5)	2(12.5)	0(0.0)	8(50.0)
	없다	28(58.6)	8(29.0)	10(37.8)	5(17.8)	2(8.9)	1(4.5)	2(9.1)	9(33.6)	8(28.8)	15(54.5)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51.5)	14(41.2)	12(35.3)	4(11.8)	2(5.9)	2(5.9)	4(11.8)	8(23.5)	0(0.0)	22(64.7)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95(59.0)	30(31.6)	36(37.9)	18(18.9)	8(8.4)	3(3.2)	3(3.2)	45(47.4)	1(1.1)	46(48.4)
	대학교 졸업	163(58.6)	40(24.5)	62(38.0)	32(19.6)	18(11.0)	11(6.7)	25(15.3)	39(23.9)	7(4.3)	92(56.4)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0(100.0)	6(60.0)	3(30.0)	0(0.0)	1(10.0)	0(0.0)	0(0.0)	6(60.0)	0(0.0)	4(4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8(41.0)	3(41.9)	2(30.2)	1(19.8)	6(70.0)	1(1.2)	14(16.3)	4(50.0)	1(1.2)	28(32.6)
	중	20(70.5)	5(25.1)	8(40.9)	3(17.7)	20(9.9)	13(6.4)	18(8.9)	54(26.6)	7(3.4)	124(61.1)
	상	13(76.5)	3(23.1)	4(30.8)	1(7.7)	3(23.1)	2(15.4)	0(0.0)	1(7.7)	0(0.0)	12(92.3)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20(36.4)	9(45.0)	5(25.0)	4(20.0)	2(10.0)	0(0.0)	4(20.0)	5(25.0)	1(5.0)	10(50.0)
	중	25(60.4)	7(28.5)	10(39.8)	4(18.0)	2(8.6)	13(5.1)	25(9.8)	91(35.5)	7(2.7)	133(52.0)
	상	2(72.2)	8(30.8)	6(23.1)	4(15.4)	5(19.2)	3(11.5)	3(11.5)	2(7.7)	0(0.0)	21(80.8)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3(27.1)	10(43.5)	7(30.4)	2(8.7)	4(17.4)	4(17.4)	0(0.0)	5(21.7)	1(4.3)	17(73.9)
	200~300만원 미만	125(66.8)	29(23.2)	54(43.2)	23(18.4)	9(7.2)	19(15.2)	12(9.6)	36(28.8)	4(3.2)	73(58.4)
	300만원 이상	20(83.3)	4(20.0)	5(25.0)	6(30.0)	3(15.0)	5(25.0)	4(20.0)	4(20.0)	1(5.0)	11(55.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13(41.2)	4(73.5.1)	4(73.5.1)	2(37.2)	1(19.2)	1(19.2)	1(19.2)	5(39.6)	2(15.4)	6(47.0)
	직업 있음	168(56.8)	43(25.6)	66(39.3)	31(18.5)	16(9.5)	12(7.1)	16(9.5)	45(26.8)	6(3.6)	101(60.1)
	학생(휴학생 포함)	99(63.5)	31(31.3)	41(41.4)	18(18.2)	7(7.1)	2(2.0)	4(4.0)	46(46.5)	2(2.0)	47(47.5)
현재 직업종류	구직활동/창업준비	17(45.9)	5(29.4)	3(17.6)	2(11.8)	5(29.4)	2(11.8)	2(11.8)	5(29.4)	0(0.0)	10(58.8)
	구직/창업 포기	1(1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주부	17(68.0)	10(58.8)	3(17.6)	3(17.6)	1(5.9)	0(0.0)	10(58.8)	1(5.9)	0(0.0)	6(35.3)
	근로자	15(56.1)	4(26.3)	6(41.4)	2(15.8)	1(7.7)	12(7.9)	1(7.7)	4(26.3)	6(39.6)	9(61.2)
직업의 변화 (자녀 -현재)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16(64.0)	3(18.8)	3(18.8)	7(43.8)	3(18.8)	0(0.0)	3(18.8)	5(31.3)	0(0.0)	8(50.0)
	없음 - 없음	13(61.8)	4(35.1)	4(35.1)	2(17.6)	1(9.9)	3(23.3)	15(11.5)	51(38.9)	2(1.5)	63(48.1)
	없음 - 있음	24(61.5)	8(33.3)	11(45.8)	5(20.8)	0(0.0)	0(0.0)	2(8.3)	6(25.0)	2(8.3)	14(58.3)
	있음 - 없음	3(42.9)	1(33.3)	1(33.3)	0(0.0)	0(0.0)	1(33.3)	1(33.3)	2(66.7)	0(0.0)	0(0.0)
	있음 - 있음	144(56.0)	35(24.3)	55(38.2)	26(18.1)	16(11.1)	12(8.3)	14(9.7)	39(27.1)	4(2.8)	87(60.4)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6(50.0)	3(50.0)	2(33.3)	0(0.0)	0(0.0)	1(16.7)	1(16.7)	2(33.3)	1(16.7)	2(33.3)
	주간 8시간 이상	162(57.0)	40(24.7)	64(39.5)	31(19.1)	16(9.9)	27(16.7)	15(9.3)	43(26.5)	5(3.1)	99(61.1)

주. 표의 결과는 빈도(N)와 퍼센트(%)임

### 3)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예방 정책 수요

#### 분석 요약

#####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 대전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내일센터의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 내외로 상당히 낮은 편임
- 청년마인드 링크의 상담 서비스는 이보다 더 낮은 9.9%였음

##### (마음건강상담 이용경험과 만족도)

- 마음건강상담 이용 경험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1%였고, 다른 서비스도 응답자의 약 1~2%로 상당히 낮게 나타남
- 이용 경험의 만족도는 이용 경험자가 현저히 적어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약간 도움된다'에 응답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서비스)

-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로 오프라인 정보 제공이 가장 많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온라인 마음건강 상담이었음
- 특히 응답자 특성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의 차이가 두드러져, 20대 여성을 하나의 집단이 아닌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줌
  - 동거가족이 없는 혼자의 경우 '자가검진'을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았고,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았음
  - '온라인 상담 제공'에 대한 필요가 높았던 집단은 20대 후반, 주 8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였음
  - 또한,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은 비혼이 아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또는 주부일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1)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상담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

- 대전시의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상담 서비스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마인드링크, 청년내일센터로 나누어 질문함
  - 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정신건강복지센터(15.5%)와 청년내일센터(15.5%), 청년마인드링크(9.9%) 순임
  - 마음건강 관련 상담 이용경험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년내일센터(1.2%)였음

**[표 3-55]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상담 인지도와 이용경험 및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인지도		이용경험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			
	안다	모른다	있었다	없었다	계	보통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80 (15.5)	435 (84.5)	11 (2.1)	504 (97.9)	11 (100.0)	4 (36.4)	6 (54.5)	1 (9.1)
청년마인드링크	51 (9.9)	464 (90.1)	3 (0.6)	512 (99.4)	3 (100.0)	2 (66.7)	0 (0.0)	1 (33.3)
청년내일센터	80 (15.5)	435 (84.5)	6 (1.2)	509 (98.8)	6 (100.0)	1 (16.7)	4 (66.7)	1 (16.7)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1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이용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2.1%였고, 이용 경험이 있는 자 중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는 ‘약간 도움된다’가 54.5%로 가장 많았음

- 청년마인드링크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9.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이용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0.6%였고, 이용 경험이 있는 자 중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는 ‘보통’이 66.7%로 가장 많았음
- 청년내일센터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질문한 결과,
  - 전체 응답자 중 15.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이용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1.2%였고, 이용 경험이 있는 자 중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는 ‘약간 도움된다’가 66.7%로 가장 많았음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표 3-56], 청년마인드링크는 [표 3-57], 청년내일센터는 [표 3-58]과 같음
- 해당 기관의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알고 있는지(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의 인지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이용경험이나 이용 만족도의 경우 응답자 수가 10명 이하로 분석을 제시하지 않음. 세부 표를 확인 바람)

(정신건강복지센터)

- 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 ‘연령대’의 경우 20대 후반(18.5%)이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24.6%로 가장 높았음.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38.1%)가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약 12~18%)에 비해 높은 편임
- ‘비혼여부’는 비혼 외(39.5%)가 비혼(13.3%)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37.0%)가 자녀가 없는 경우(14.3%)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4.2%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 하가 19.0%로 가장 높았고, 가구 기준도 하(16.4%)가 가장 높았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29.2%)이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약 10~15%)에 비해 높은 편임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없음(16.0%)이 직업 있음(15.2%)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32.0%)가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구직 활동/창업준비(21.6%)였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한 경우 (28.6%)가 가장 높았으나 해당 집단의 응답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가 인지도가 17.9%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41.7%)이 주간 8시간 이상(14.1%)보다 인지도가 높았음

(청년마인드링크)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마인드링크 사업의 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 ‘연령대’의 경우 20대 후반(14.5%)이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중구가 11.6%로 가장 높았음.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33.3%)가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약 5~18%)에 비해 높은 편임
- ‘비혼여부’는 비혼 외(32.6%)가 비혼(7.8%)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25.9%)가 자녀가 없는 경우(9.0%)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2.1%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 ‘주관적 소득계층’은 본인 기준 하가 11.9%로 가장 높았고, 가구 기준 상(19.4%)이 가장 높았음.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 이상 (12.5%)이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약 8~10%)에 비해 높은 편임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없음(10.0%)이 직업 있음(9.8%)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28.0%)가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근로자 (10.0%)였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다고 한 경우 (14.3%)가 가장 높았으나 해당 집단의 응답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인지도가 10.1%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이상(9.9%)이 주간 8시간 미만(8.3%)보다 인지도가 높았음

#### (청년내일센터)

- 청년내일센터에서 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지도는
- ‘연령대’의 경우 20대 중반(18.6%)이 가장 높았고, ‘자치구’는 대덕구가 23.0%로 가장 높았음. ‘동거가족’은 배우자와 함께 동거(38.1%)가 가장 높았음
- ‘비혼여부’는 비혼 외(37.2%)가 비혼(13.6%)보다 높았고, ‘자녀여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33.3%)가 자녀가 없는 경우(14.5%)보다 높았음
-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1.2%로 인지도가 가장 높았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하가 16.2%로 가장 높았고,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16.7%)이 가장 높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20.0%)이 가장 높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 있음(17.6%)이 직업 없음(12.8%)보다 높았고,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32.0%)가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28.0%)였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인지도가 17.9%로 가장 높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25.0%)이 주간 8시간 이상(17.3%)보다 인지도가 높았음

[표 3-56] 대전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마음건강상담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			
	안다	모른다		보통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연령대	20대 초반	24(14.1)	146(85.9)	3(1.8)	0(0.0)	3(100.0)	0(0.0)
	20대 중반	24(14.0)	148(86.0)	5(2.9)	2(40.0)	2(40.0)	1(20.0)
	20대 후반	32(18.5)	141(81.5)	3(1.7)	2(66.7)	1(33.3)	0(0.0)
자취구	동구	8(12.5)	56(87.5)	2(3.1)	0(0.0)	1(50.0)	1(50.0)
	중구	18(18.9)	77(81.1)	1(1.1)	0(0.0)	1(100.0)	0(0.0)
	서구	21(14.1)	128(85.9)	5(3.4)	2(40.0)	3(60.0)	0(0.0)
	유성구	18(12.3)	128(87.7)	3(2.1)	2(66.7)	1(33.3)	0(0.0)
	대덕구	15(24.6)	46(75.4)	0(0.0)	-	-	-
동거가족	혼자	14(17.7)	65(82.3)	4(5.1)	4(100.0)	0(0.0)	0(0.0)
	부모와 함께 동거	49(12.8)	334(87.2)	6(1.6)	0(0.0)	6(100.0)	0(0.0)
	배우자와 함께 동거	16(38.1)	26(61.9)	0(0.0)	-	-	-
	기타	1(12.5)	7(87.5)	1(12.5)	0(0.0)	0(0.0)	1(100.0)
비혼여부	비혼	63(13.3)	409(86.7)	10(2.1)	4(40.0)	6(60.0)	0(0.0)
	비혼 외	17(39.5)	26(60.5)	1(2.3)	0(0.0)	0(0.0)	1(100.0)
자녀여부	있다	10(37.0)	17(63.0)	1(3.7)	0(0.0)	0(0.0)	1(100.0)
	없다	70(14.3)	418(85.7)	10(2.0)	4(40.0)	6(60.0)	0(0.0)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24.2)	50(75.8)	3(4.5)	0(0.0)	2(66.7)	1(33.3)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9(11.8)	142(88.2)	2(1.2)	0(0.0)	2(100.0)	0(0.0)
	대학교 졸업	44(15.8)	234(84.2)	6(2.2)	4(66.7)	2(33.3)	0(0.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9(90.0)	0(0.0)	-	-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40(19.0)	170(81.0)	5(2.4)	2(40.0)	2(40.0)	1(20.0)
	중	39(13.5)	249(86.5)	6(2.1)	2(33.3)	4(66.7)	0(0.0)
	상	1(5.9)	16(94.1)	0(0.0)	-	-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9(16.4)	46(83.6)	3(5.5)	1(33.3)	1(33.3)	1(33.3)
	중	66(15.6)	358(84.4)	8(1.9)	3(37.5)	5(62.5)	0(0.0)
	상	5(13.9)	31(86.1)	0(0.0)	-	-	-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9(10.6)	76(89.4)	3(3.5)	2(66.7)	1(33.3)	0(0.0)
	200-300만원 미만	29(15.5)	158(84.5)	3(1.6)	2(66.7)	0(0.0)	1(33.3)
	300만원 이상	7(29.2)	17(70.8)	1(4.2)	0(0.0)	1(100.0)	0(0.0)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35(16.0)	184(84.0)	4(1.8)	0(0.0)	4(100.0)	0(0.0)
	직업 있음	45(15.2)	251(84.8)	7(2.4)	4(57.1)	2(28.6)	1(14.3)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9(12.2)	137(87.8)	2(1.3)	0(0.0)	2(100.0)	0(0.0)
	구직활동/창업준비	8(21.6)	29(78.4)	2(5.4)	0(0.0)	2(100.0)	0(0.0)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0(0.0)	-	-	-
	주부	8(32.0)	17(68.0)	0(0.0)	-	-	-
	근로자	39(14.4)	232(85.6)	5(1.8)	3(60.0)	1(20.0)	1(20.0)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6(24.0)	19(76.0)	2(8.0)	1(50.0)	1(50.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33(15.6)	179(84.4)	4(1.9)	0(0.0)	4(100.0)	0(0.0)
	없음 - 있음	7(17.9)	32(82.1)	0(0.0)	-	-	-
	있음 - 없음	2(28.6)	5(71.4)	0(0.0)	-	-	-
	있음 - 있음	38(14.8)	219(85.2)	7(2.7)	4(57.1)	2(28.6)	1(14.3)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5(41.7)	7(58.3)	2(16.7)	0(0.0)	1(50.0)	1(50.0)
	주간 8시간 이상	40(14.1)	244(85.9)	5(1.8)	4(80.0)	1(20.0)	0(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57] 대전 청년마인드링크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마음건강상담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		
	안다	모른다		보통	매우 도움된다	
연령대	20대 초반	14(8.2)	15(91.8)	1(0.6)	1(100.0)	0(0.0)
	20대 중반	12(7.0)	160(93.0)	1(0.6)	1(100.0)	0(0.0)
	20대 후반	25(14.5)	148(85.5)	1(0.6)	0(0.0)	1(100.0)
자취구	동구	5(7.8)	59(92.2)	0(0.0)	-	-
	중구	11(11.6)	84(88.4)	1(1.1)	1(100.0)	0(0.0)
	서구	12(8.1)	137(91.9)	0(0.0)	-	-
	유성구	16(11.0)	130(89.0)	1(0.7)	1(100.0)	0(0.0)
	대덕구	7(11.5)	54(88.5)	1(1.6)	0(0.0)	1(100.0)
동거가족	혼자	14(17.7)	65(82.3)	1(1.3)	1(100.0)	0(0.0)
	부모와 함께 동거	22(5.7)	361(94.3)	1(0.3)	1(100.0)	0(0.0)
	배우자와 함께 동거	14(33.3)	28(66.7)	1(2.4)	0(0.0)	1(100.0)
	기타	1(12.5)	7(87.5)	0(0.0)	-	-
비혼여부	비혼	37(7.8)	435(92.2)	2(0.4)	2(100.0)	0(0.0)
	비혼 외	14(32.6)	29(67.4)	1(2.3)	0(0.0)	1(100.0)
자녀여부	있다	7(25.9)	20(74.1)	0(0.0)	-	-
	없다	44(9.0)	444(91.0)	3(0.6)	2(66.7)	1(33.3)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8(12.1)	58(87.9)	0(0.0)	-	-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3(8.1)	148(91.9)	1(0.6)	1(100.0)	0(0.0)
	대학교 졸업	30(10.8)	248(89.2)	2(0.7)	1(50.0)	1(50.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0(0.0)	10(100.0)	0(0.0)	-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5(11.9)	185(88.1)	1(0.5)	1(100.0)	0(0.0)
	중	26(9.0)	262(91.0)	2(0.7)	1(50.0)	1(50.0)
	상	0(0.0)	17(100.0)	0(0.0)	-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4(7.3)	51(92.7)	0(0.0)	-	-
	중	40(9.4)	384(90.6)	2(0.5)	2(100.0)	0(0.0)
	상	7(19.4)	29(80.6)	1(2.8)	0(0.0)	1(10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7(8.2)	78(91.8)	1(1.2)	1(100.0)	0(0.0)
	200-300만원 미만	19(10.2)	168(89.8)	1(0.5)	0(0.0)	1(100.0)
	300만원 이상	3(12.5)	21(87.5)	0(0.0)	-	-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2(10.0)	197(90.0)	1(0.5)	1(100.0)	0(0.0)
	직업 있음	29(9.8)	267(90.2)	2(0.7)	1(50.0)	1(50.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3(8.3)	143(91.7)	1(0.6)	1(100.0)	0(0.0)
	구직활동/창업준비	2(5.4)	35(94.6)	0(0.0)	-	-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0(0.0)	-	-
	주부	7(28.0)	18(72.0)	0(0.0)	-	-
	근로자	27(10.0)	244(90.0)	2(0.7)	1(50.0)	1(50.0)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8.0)	23(92.0)	0(0.0)	-	-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21(9.9)	191(90.1)	1(0.5)	1(100.0)	0(0.0)
	없음 - 있음	3(7.7)	36(92.3)	0(0.0)	-	-
	있음 - 없음	1(14.3)	6(85.7)	0(0.0)	-	-
	있음 - 있음	26(10.1)	231(89.9)	2(0.8)	1(50.0)	1(50.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1(8.3)	11(91.7)	0(0.0)	-	-
	주간 8시간 이상	28(9.9)	256(90.1)	2(0.7)	1(50.0)	1(5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표 3-58] 대전 청년내일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마음건강상담 인지도,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응답자 특성별

구분	마음건강상담 서비스를		이용 경험이 있다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 마음건강상담 이용 만족도			
	안다	모른다		보통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연령대	20대 초반	20(11.8)	150(88.2)	4(2.4)	0(0.0)	4(100.0)	0(0.0)
	20대 중반	32(18.6)	140(81.4)	1(0.6)	1(100.0)	0(0.0)	0(0.0)
	20대 후반	28(16.2)	145(83.8)	1(0.6)	0(0.0)	0(0.0)	1(100.0)
자취구	동구	11(17.2)	53(82.8)	1(1.6)	0(0.0)	1(100.0)	0(0.0)
	중구	13(13.7)	82(86.3)	1(1.1)	0(0.0)	1(100.0)	0(0.0)
	서구	26(17.4)	123(82.6)	4(2.7)	1(25.0)	2(50.0)	1(25.0)
	유성구	16(11.0)	130(89.0)	0(0.0)	-	-	-
	대덕구	14(23.0)	47(77.0)	0(0.0)	-	-	-
동거가족	혼자	16(20.3)	63(79.7)	1(1.3)	1(100.0)	0(0.0)	0(0.0)
	부모와 함께 동거	46(12.0)	337(88.0)	5(1.3)	0(0.0)	4(80.0)	1(20.0)
	배우자와 함께 동거	16(38.1)	26(61.9)	0(0.0)	-	-	-
	기타	2(25.0)	6(75.0)	0(0.0)	-	-	-
비혼여부	비혼	64(13.6)	408(86.4)	6(1.3)	1(16.7)	4(66.7)	1(16.7)
	비혼 외	16(37.2)	27(62.8)	0(0.0)	-	-	-
자녀여부	있다	9(33.3)	18(66.7)	0(0.0)	-	-	-
	없다	71(14.5)	417(85.5)	6(1.2)	1(16.7)	4(66.7)	1(16.7)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21.2)	52(78.8)	1(1.5)	1(100.0)	0(0.0)	0(0.0)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22(13.7)	139(86.3)	4(2.5)	0(0.0)	4(100.0)	0(0.0)
	대학교 졸업	43(15.5)	235(84.5)	1(0.4)	0(0.0)	0(0.0)	1(100.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9(90.0)	0(0.0)	-	-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34(16.2)	176(83.8)	1(0.5)	1(100.0)	0(0.0)	0(0.0)
	중	45(15.6)	243(84.4)	4(1.4)	0(0.0)	4(100.0)	0(0.0)
	상	1(5.9)	16(94.1)	1(5.9)	0(0.0)	0(0.0)	1(100.0)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9(16.4)	46(83.6)	1(1.8)	1(100.0)	0(0.0)	0(0.0)
	중	65(15.3)	359(84.7)	4(0.9)	0(0.0)	4(100.0)	0(0.0)
	상	6(16.7)	30(83.3)	1(2.8)	0(0.0)	0(0.0)	1(100.0)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7(20.0)	68(80.0)	1(1.2)	1(100.0)	0(0.0)	0(0.0)
	200-300만원 미만	31(16.6)	156(83.4)	1(0.5)	0(0.0)	0(0.0)	1(100.0)
	300만원 이상	4(16.7)	20(83.3)	0(0.0)	-	-	-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8(12.8)	191(87.2)	4(1.8)	0(0.0)	4(100.0)	0(0.0)
	직업 있음	52(17.6)	244(82.4)	2(0.7)	1(50.0)	0(0.0)	1(50.0)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7(10.9)	139(89.1)	4(2.6)	0(0.0)	4(100.0)	0(0.0)
	구직활동/창업준비	3(8.1)	34(91.9)	0(0.0)	-	-	-
	구직/창업 포기	0(0.0)	1(100.0)	0(0.0)	-	-	-
	주부	8(32.0)	17(68.0)	0(0.0)	-	-	-
	근로자	45(16.6)	226(83.4)	1(0.4)	0(0.0)	0(0.0)	1(100.0)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7(28.0)	18(72.0)	1(4.0)	1(100.0)	0(0.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 -현재)	없음 - 없음	27(12.7)	185(87.3)	4(1.9)	0(0.0)	4(100.0)	0(0.0)
	없음 - 있음	6(15.4)	33(84.6)	0(0.0)	-	-	-
	있음 - 없음	1(14.3)	6(85.7)	0(0.0)	-	-	-
	있음 - 있음	46(17.9)	211(82.1)	2(0.8)	1(50.0)	0(0.0)	1(50.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3(25.0)	9(75.0)	0(0.0)	-	-	-
	주간 8시간 이상	49(17.3)	235(82.7)	2(0.7)	1(50.0)	0(0.0)	1(50.0)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2)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

-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이 1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17.7%)’,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13.4%)’ 순임

**[표 3-59]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

(단위: 명, %)

계	자가 검진	온라인 정보	오프라인 정보	온라인 상담	오프라인 상담	온라인 강연	오프라인 강연	전문의 상담비용 지원
515 (100.0)	59 (11.5)	62 (12.0)	101 (19.6)	91 (17.7)	65 (12.6)	69 (13.4)	27 (5.2)	41 (8.0)

주. 문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마음건강(우울, 스트레스, 자살생각 등) 관련 자가검진
2.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3.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4.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5.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6.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7. 마음건강 관련 대중 강연
8. 전문의(민간 기관) 상담 비용 지원

- 응답자 특성별 세부 분석은 [표 3-60]과 같음
-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보면,
  - ‘연령대’는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의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각각 21.2%, 23.3%)이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은 온라인 상담 제공(16.8%)이었음
  - ‘자치구’는 동구와 대덕구의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각각 28.1%,

- 23.0%)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중구, 서구, 유성구는 온라인 상담 제공 (각각 22.1%, 18.8%, 19.2%)이 가장 많았음
- ‘동거가족’은 집단별 차이가 뚜렷했는데, 혼자의 경우 자가검진 (26.6%)이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동거는 오프라인 정보 제공 (23.2%),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19.0%)이 가장 많았음. 두 번째로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혼자의 경우 온라인 강연(25.3%)이었고, 부모와 함께 동거는 온라인 상담 제공(19.8%), 배우자와 함께 동거는 오프라인 정보 제공(16.7%)이었음. 특히 혼자 거주하는 경우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관련 항목의 응답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비혼여부’는 비혼의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19.9%)이 가장 많았고, 비혼 외는 전문의 상담 비용(20.9%)이 가장 많았음
  - ‘자녀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19.7%)이 가장 많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문의 상담 비용(20.6%)이 가장 많았음
  - ‘교육정도’는 모든 집단이 오프라인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온라인 상담 제공이었음
  -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의 경우 전문의 상담 비용(23.5%)이 가장 많았고, 중은 오프라인 정보 제공(22.2%), 하는 온라인 강연(19.5%)이 가장 많았음
  -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은 상과 중의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각각 22.2%, 20.5%)이 가장 많았고, 하는 온라인 강연(20.0%)이 가장 많았음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경우 온라인 강연(25.9%)이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은 온라인 상담 제공(20.9%)이 가장 많았음. 300만원 미만은 오프라인 상담 제공(25.0%)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여부’는 직업이 없는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21.5%)이 가장 많았고, 직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담 제공(19.9%)이 가장 많았음

- '현재 직업종류'는 주부의 경우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28.0%)이 가장 많았고,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의 경우 온라인 정보 제공(28.0%)과 온라인 상담 제공(28.0%)이 가장 많았음. 그 외 집단의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이 가장 많았음
- '직업의 변화'는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와 지난해 직업이 없다가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정보 제공(각각 21.7%, 28.2%)이 가장 많았고, 지난해 직업이 있다가 현재 직업이 없는 경우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42.9%)이 가장 많았음. 지난해와 현재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 온라인 상담 제공(19.8%)이 가장 많았음
- '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미만의 경우 자가검진(25.0%)과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25.0%)이 많았고, 주간 8시간 이상의 경우 온라인 상담 제공(20.4%)이 가장 많았음

[표 3-60]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 : 응답자 특성별

구분		자가점진	온라인 정보 제공	오프라인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제공	오프라인 상담 제공	온라인 강연	오프라인 강연	전문가의 상담 비용 지원
연령대	20대 초반	21(12.4)	19(11.2)	36(21.2)	29(17.1)	22(12.9)	27(15.9)	7(4.1)	9(5.3)
	20대 중반	19(11.0)	24(14.0)	40(23.3)	33(19.2)	20(11.6)	19(11.0)	2(1.2)	15(8.7)
	20대 후반	19(11.0)	19(11.0)	25(14.5)	29(16.8)	23(13.3)	23(13.3)	18(10.4)	17(9.8)
자취구	동구	8(12.5)	8(12.5)	18(28.1)	5(7.8)	8(12.5)	7(10.9)	2(3.1)	8(12.5)
	중구	10(10.5)	8(8.4)	20(21.1)	21(22.1)	11(11.6)	10(10.5)	6(6.3)	9(9.5)
	서구	23(15.4)	19(12.8)	24(16.1)	28(18.8)	11(7.4)	25(16.8)	5(3.4)	14(9.4)
	유성구	13(8.9)	21(14.4)	25(17.1)	28(19.2)	22(15.1)	22(15.1)	9(6.2)	6(4.1)
	대덕구	5(8.2)	6(9.8)	14(23.0)	9(14.8)	13(21.3)	5(8.2)	5(8.2)	4(6.6)
등거가족	혼자	21(26.6)	12(15.2)	4(5.1)	10(12.7)	6(7.6)	20(25.3)	1(1.3)	5(6.3)
	부모와 함께 등거	33(8.6)	42(11.0)	89(23.2)	76(19.8)	53(13.8)	42(11.0)	21(5.5)	27(7.0)
	배우자와 함께 등거	3(7.1)	5(11.9)	7(16.7)	4(9.5)	4(9.5)	6(14.3)	5(11.9)	8(19.0)
비혼여부	가타	1(12.5)	3(37.5)	0(0.0)	1(12.5)	2(25.0)	0(0.0)	0(0.0)	1(12.5)
	비혼 외	5(6(11.9)	5(7(12.1)	9(19.9)	8(7(18.4)	6(1(12.9)	6(3(13.3)	2(2(4.7)	3(2(6.8)
자녀여부	있나	2(7.4)	2(7.4)	5(18.5)	3(11.1)	2(7.4)	1(3.7)	4(14.8)	8(29.6)
	없다	5(7(11.7)	6(10(12.3)	9(19(19.7)	8(8(18.0)	6(3(12.9)	6(8(13.9)	2(3(4.7)	3(3(6.8)
교육정도	고등학교 졸업 이하	6(9.1)	5(7.6)	18(27.3)	11(16.7)	5(7.6)	9(13.6)	5(7.6)	7(10.6)
	대학교 재학(휴학포함)	18(11.2)	24(14.9)	31(19.3)	29(18.0)	23(14.3)	22(13.7)	7(4.3)	7(4.3)
	대학교 졸업	34(12.2)	32(11.5)	51(18.3)	49(17.6)	35(12.6)	37(13.3)	13(4.7)	27(9.7)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1(10.0)	1(10.0)	1(10.0)	2(20.0)	2(20.0)	1(10.0)	2(20.0)	0(0.0)
본인 주관적 소득계층	하	28(13.3)	27(12.9)	34(16.2)	28(13.3)	28(13.3)	41(19.5)	9(4.3)	15(7.1)
	중	28(9.7)	33(11.5)	64(22.2)	60(20.8)	35(12.2)	28(9.7)	18(6.3)	22(7.6)
	상	3(17.6)	2(11.8)	3(17.6)	3(17.6)	2(11.8)	0(0.0)	0(0.0)	4(23.5)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	8(14.5)	7(12.7)	6(10.9)	7(12.7)	6(10.9)	11(20.0)	4(7.3)	6(10.9)
	중	4(6(10.8)	4(8(11.3)	8(7(20.5)	8(10(18.9)	5(6(13.2)	5(6(13.2)	2(2(5.2)	2(2(6.8)
	상	5(13.9)	7(19.4)	8(22.2)	4(11.1)	3(8.3)	2(5.6)	1(2.8)	6(16.7)
본인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3(15.3)	12(14.1)	14(16.5)	17(20.0)	3(3.5)	22(25.9)	0(0.0)	4(4.7)
	200-300만원 미만	21(11.2)	20(10.7)	36(19.3)	39(20.9)	24(12.8)	21(11.2)	14(7.5)	12(6.4)
	300만원 이상	1(4.2)	3(12.5)	4(16.7)	3(12.5)	6(25.0)	1(4.2)	3(12.5)	3(12.5)
현재 직업여부	직업 없음	24(11.0)	27(12.3)	47(21.5)	32(14.6)	32(14.6)	25(11.4)	10(4.6)	22(10.0)
	직업 있음	35(11.8)	35(11.8)	54(18.2)	59(19.9)	33(11.1)	44(14.9)	17(5.7)	19(6.4)
현재 직업종류	학생/휴학생 포함	1(6(10.3)	2(3(14.7)	3(2(20.5)	2(5(16.0)	2(5(16.0)	2(10(12.8)	7(4(5)	8(5.1)
	구직활동/창업준비	5(13.5)	2(5.4)	10(27.0)	5(13.5)	5(13.5)	3(8.1)	0(0.0)	7(18.9)
	구직/창업 포기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주부	2(8.0)	2(8.0)	5(20.0)	2(8.0)	2(8.0)	2(8.0)	3(12.0)	7(28.0)
	근로자	3(3(12.2)	2(8(10.3)	5(2(19.2)	5(2(19.2)	3(10(11.1)	4(15(15.1)	1(6(5.9)	1(9(19.7)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2(8.0)	7(28.0)	2(8.0)	7(28.0)	3(12.0)	3(12.0)	1(4.0)	0(0.0)
직업의 변화 (지난해-현재)	없음 - 없음	22(10.4)	27(12.7)	46(21.7)	32(15.1)	31(14.6)	25(11.8)	10(4.7)	19(9.0)
	없음 - 있음	2(5.1)	2(5.1)	11(28.2)	8(20.5)	4(10.3)	8(20.5)	3(7.7)	1(2.6)
	있음 - 없음	2(28.6)	0(0.0)	1(14.3)	0(0.0)	1(14.3)	0(0.0)	0(0.0)	3(42.9)
	있음 - 있음	3(3(12.8)	3(3(12.8)	4(3(16.7)	5(1(19.8)	2(9(11.3)	3(6(14.0)	1(4(5.4)	1(8(7.0)
근로시간	주간 8시간 미만	3(25.0)	1(8.3)	2(16.7)	1(8.3)	0(0.0)	2(16.7)	0(0.0)	3(25.0)
	주간 8시간 이상	3(2(11.3)	3(4(12.0)	5(2(18.3)	5(8(20.4)	3(3(11.6)	4(2(14.8)	1(7(6.0)	1(6(5.6)

주. 표의 결과값은 빈도(N)와 퍼센트(%)임



## 제언

1. 대전 20대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수행
2.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20대 여성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연계
3. ‘혼자가 아닌 가치’를 위한 정책 확대
4. 20대 여성청년에게 마음건강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시행



## 4장 제언

- 대전지역 20대 여성 마음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개의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함

### 1. 대전 20대 여성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수행

- 청년 여성, 그리고 20대 여성의 우울과 자살생각, 자살시도에 대한 증가는 여러 통계 데이터와 기사 등을 통해 그 심각성이 알려져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건강 정책 수립 및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함
- 하지만 20대 여성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등 마음건강 관련한 고통과 불안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부족함
- 이에 대한 기초연구로 본 연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여러 문항에서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두드러졌음
- 결과의 한 예로,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서비스로 오프라인 정보 제공을 꼽았지만, 응답자 특성별로는 차이를 보였음
  -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바탕으로 20대 여성 마음건강 정책 및 사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응답자 특성	대전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서비스 <sup>1)</sup>	정책 및 사업 제시(안)
혼자 거주하는 자	자가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대에게 익숙한 MBTI 등 심리테스트 방식을 활용한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li> </ul>
20대 후반 자영업/프리랜서/고용주 주 8시간 이상 근로자	온라인 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마음건강 상담 제공</li> <li>SNS, 메타버스 등 20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 활용</li> </ul>
아이가 있거나 주부	전문의 상담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우처 제공 또는 아이 성장발달과정에 맞춘 엄마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 제공</li> </ul>

1) 1순위가 아닌 타 집단에 비해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을 위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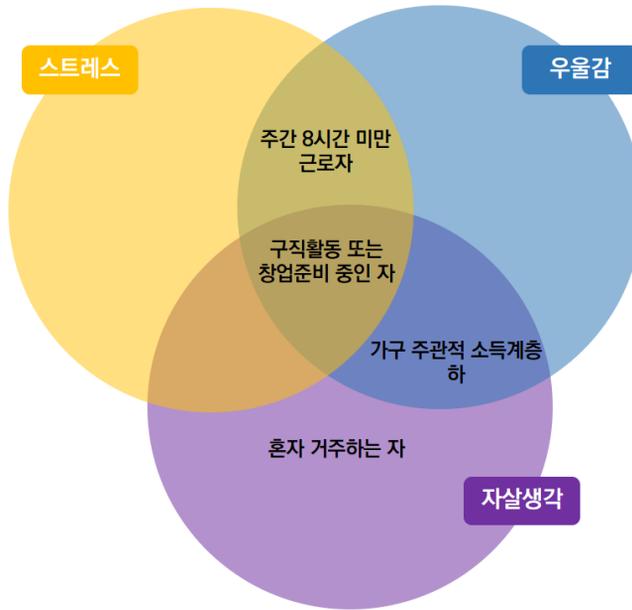
- 이 외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경우 '오프라인'인 서비스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면 서비스 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줌

○ 이처럼 대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지만, 각자 직면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대 여성을 하나의 집단이 아닌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2.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20대 여성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연계

○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집단(평균 3.5점 이상)은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자', '주간 8시간 미만 근로자'였고, 우울감이 특히 높은 집단(평균 3.0점 이상)은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자', '주간 8시간 미만 근로자',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 하'였음. 자살생각을 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자', '혼자 거주하는 자', '가구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였음

- 스트레스, 우울감이 높거나 자살생각을 한 적 있는 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 즉, 본 연구에서 대전 20대 여성 중 마음건강 관련 가장 취약한 집단은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자'였음
- 이들은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 모두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소득 없이 소비만 하고 있는 집단으로 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로 타집단에 비해 비용부담을 푼 비율이 높았음
- 또한 소속집단(학교 또는 직장)의 부재로 인해 마음건강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 등도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 중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할 때 마음건강 관련 심리적 안정 케어를 함께 고려해야 함
- 더불어 이들을 정책대상으로 한 일자리-보건-복지 부서의 사업 이행 시 부서 간 연계가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 3. '혼자가 아닌 가치'를 위한 정책 확대

- 조사 결과, 지지집단은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경우 80~90%에 달했으나 자살생각의 경우 약 50%로 지지집단의 부재가 드러남
- 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사회적 관계망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 자살 생각 모두 '친구'의 비중이 가장 컸고, 특이점으로 부모에 대한 비중이 스트레스(21.7%)와 우울감(19.1%)과 달리 자살 생각(32.5%)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20대 여성의 마음건강 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대상을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음. 즉, 정책대상 당사자 집단인 20대 여성만이 아닌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파악됨
- 더불어 부모가 부재한 청년들을 위해서 부모 역할을 대체할 지지집단을 조직하고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이 요구됨
- 또한,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에 관한 생각 모두 취약하게 나타난 구직 활동 또는 창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의 경우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에 관한 생각 등에 대한 해소 방법 또한 누구와 함께가 아닌 '혼자' 해소하거나 참거나 자는 등 '소극적인 해소방법'을 취하고 있음
- 이는 친구와 부모 외 지지집단의 심리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함을 보여줌

#### (가칭)'혼자가 아닌 가치(같이)'

- 마음건강 관련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지집단으로써 심리적 지지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존재를 연결해 줄 사업이 요구됨. 이런 사업은 상담 서비스나 강연과 달리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지지집단은 마음건강 관련 지속적인 교육 훈련(정보습득과 전문가 교육)과 수퍼비전을 통해 도움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 4. 20대 여성청년에게 마음건강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후 모니터링 시행

- 대전지역의 기관별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약 15%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이용경험 또한 약 1~2%로 낮았음
- 그리고 상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이유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다수였지만, 응답자 특성별로는 차이를 보였음
  - 구직활동 또는 창업준비를 하는 경우 비용부담,
  -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이용방법을 모름,
  - 20대 후반, 배우자와 동거, 주부의 경우 주위의 시선 때문이라는 응답비율이 타집단에 비해 높았음
- 이처럼 대상에 맞게 마음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용방법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방안,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함
- 무엇보다도 기관의 마음건강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또한 단발적인 홍보에 그치지 말고, 홍보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홍보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 때, 정책대상자인 청년들과 함께 논의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청년내일센터 및 기타 기관들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요구됨



## 부록. 설문지

	설문지번호	
ID		

### 대전광역시 20대 여성 마음건강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기관으로, 대전지역 20대 여성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대전시 20대 여성 마음건강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전시 청년 마음건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본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응답 내용은 관련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34조 (통계조사자 등의 의무)

통계조사자, 통계조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년 8월



※ 본 설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대전인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1992.9-2002.7 사이에 태어난** 분만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part I**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망**

**Q1. 현재 귀하는 본인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Q2. 귀하는 다음의 사람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십니까?** (제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소통 빈도					해당없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음	별로 이야기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이야기 함	매우 자주 이야기 함	
(1) 배우자 또는 연인	①	②	③	④	⑤	⑥
(2) 부	①	②	③	④	⑤	⑥
(3) 모	①	②	③	④	⑤	⑥
(4)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5)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6)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Q3. 귀하는 다음의 사람에게 얼마나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시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신뢰 - 지지 정도					해당없음
	전혀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별로 신뢰받고 있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받고 있음	매우 신뢰받고 있음	
(1) 배우자 또는 연인	①	②	③	④	⑤	⑥
(2) 부	①	②	③	④	⑤	⑥
(3) 모	①	②	③	④	⑤	⑥
(4)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⑤	⑥
(5) 친구	①	②	③	④	⑤	⑥
(6)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⑤	⑥

**Q4. 귀하가 위에 제시된 집단(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 형제자매, 친구, 직장동료) 이외에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집단입니까?**

- 예 → ① 이웃 ② 취미 모임(온라인) ③ 취미 모임(오프라인) ④ 지역사회 단체 ⑤ 정당 모임 ⑥ 기타( )  
 아니오

**Q5. 귀하는 다음의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사회적 관계의 원만한 정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1) 가정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또는 직장	①	②	③	④	⑤
(3) 전반적 사회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Q6. 귀하가 다음의 상황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그 중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항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 (1순위)	
	① 있다	② 없다	사람 수	
(1)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① 있다	② 없다	( )명	① 배우자, 연인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기타( )
(2) 우울할 때	① 있다	② 없다	( )명	① 배우자, 연인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기타( )
(3)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① 있다	② 없다	( )명	① 배우자, 연인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구 ⑤ 기타( )

part II 스트레스와 우울감

Q7. 다음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스트레스						우울감					
	(칭의: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 또는 긴장상태)						(칭의: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슬픔과 좌망감)					
(1) 빈도 (최근 1년 이내)	① 전혀 없다	② 년 1-2회	③ 년 3-4회	④ 월 1-2회	⑤ 주 1-2회	⑥ 거의 매일	① 전혀 없다	② 년 1-2회	③ 년 3-4회	④ 월 1-2회	⑤ 주 1-2회	⑥ 거의 매일
(2) 정도 (최근 1년 이내)	① 매우 낮았다	② 낮았다	③ 보통	④ 높았다	⑤ 매우 높았다	⑥	① 매우 낮았다	② 낮았다	③ 보통	④ 높았다	⑤ 매우 높았다	⑥
(3) 가장 큰 원인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건강 문제 ③ 외로움과 고독 ④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성적, 입시, 취업, 승진 등) ⑤ 대인관계의 갈등 →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 ⑥ 기타(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건강 문제 ③ 외로움과 고독 ④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성적, 입시, 취업, 승진 등) ⑤ 대인관계의 갈등 →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 ⑥ 기타( )					
(4-1) 해소 방법 (누구와) ※ 주로 하는 방법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혼자 ② 배우자 또는 연인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친구 ⑥ 직장동료 ⑦ 전문가(상담기관) ⑧ 기타( )						① 혼자 ② 배우자 또는 연인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친구 ⑥ 직장동료 ⑦ 전문가(상담기관) ⑧ 기타( )					
(4-2) 해소 방법 (어떻게) ※ 주로 하는 방법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참는다 ② 잔다(수면) ③ 본다(TV 또는 영화 등) ④ 먹는다 ⑤ 음주(술) ⑥ 운동 ⑦ 쇼핑 ⑧ 취미활동 ⑨ 여행 ⑩ 종교 ⑪ 상담기관 방문 ⑫ 기타( )						① 참는다 ② 잔다(수면) ③ 본다(TV 또는 영화 등) ④ 먹는다 ⑤ 음주(술) ⑥ 운동 ⑦ 쇼핑 ⑧ 취미활동 ⑨ 여행 ⑩ 종교 ⑪ 상담기관 방문 ⑫ 기타( )					
(5) 전문가의 상담 이용 경험 (의뢰기관 전문상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등)	① 있다 → (5-1)번으로 ② 없다 → (5-2)번으로						① 있다 → (5-1)번으로 ② 없다 → (5-2)번으로					
(5-1) 기관의 종류 ※ 충분한 경우 해당 문항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① 의료기관 ② 민간 전문상담기관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⑤ 기타( )						① 의료기관 ② 민간 전문상담기관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④ 학교 또는 직장 내 상담센터 ⑤ 기타( )					
(5-2)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①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② 이용 방법을 몰라서 ③ 주위의 시선 때문에 ④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⑤ 거리가 멀어서 ⑥ 시간이 없어서 ⑦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⑧ 기타( )						①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② 이용 방법을 몰라서 ③ 주위의 시선 때문에 ④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⑤ 거리가 멀어서 ⑥ 시간이 없어서 ⑦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⑧ 기타( )					

part III	자살에 대한 생각
----------	-----------

Q8. 귀하는 (지난 1년 이내)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Q9)로 이동

Q8-1. 있다면, 얼마나 자주입니까?

- ① 년 1-2회      ② 년 3-4회      ③ 월 1-2회      ④ 주 1-2회      ⑤ 거의 매일

Q8-2.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 어려움                      ② 건강 문제                      ③ 외로움과 고독  
 ④ 학업 또는 직장생활의 어려움 (성적, 입시, 취업, 승진 등)  
 ⑤ 대인관계의 갈등 →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  
 ⑥ 기타(                      )

Q8-3.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전문가의 상담이나 기관(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또는 직장내 상담센터 등) 이용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Q9)로 이동                      ② 없다 → (Q8-4)로 이동

Q8-4. 상담이나 기관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담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아서      ② 이용 방법을 몰라서      ③ 주위의 시선 때문에  
 ④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⑤ 거리가 멀어서                      ⑥ 시간이 없어서  
 ⑦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⑧ 기타(                      )

part IV	청년여성 마음건강 예방 정책 수요
---------	--------------------

Q9. 대전시의 마음건강 상담 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기관은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 경험이 있다면 그 도움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인지도		이용 경험		도움 정도				
	모른다	안다	없다	있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	약간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상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2) 대전청년마인드링크 마음건강상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3) 청년내일센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Q10. 20대 여성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마음건강(우울,스트레스,자살생각 등) 관련 자가검진
- ②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 ③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마음건강 관련 정보(원인, 증세, 치료법 등) 제공
- ④ 온라인(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의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 ⑤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타 기관 방문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 ⑥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한 마음건강 관련 강연
- ⑦ 마음건강 관련 대중 강연
- ⑧ 전문의(민간 기관) 상담 비용 지원
- ⑨ 기타( )

<b>응답자 정보</b>	
---------------	--

<b>연령(출생년도)</b>	_____년 _____월				
<b>거주 지역</b>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b>동거가족 (√ 중복체크)</b>	① 없음(혼자)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배우자	⑤ 친구    ⑥ 기타( )
<b>혼인상태</b>	① 비혼/미혼		② 기혼	③ 사별·이혼·별거	
<b>자녀유무</b>	① 있다		② 없다		
<b>교육정도</b>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일반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④ 전문대학/일반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⑥ 대학원 졸업
<b>(본인) 주관적 인식 소득계층</b>	① 하    ② 중    ③ 상		<b>(가구) 주관적 인식 소득계층</b>	① 하    ② 중    ③ 상	
<b>직업 여부 (지난해/2021년)</b>	① 직업 없음 -> <input type="checkbox"/> 학생/휴학생 포함 <input type="checkbox"/> 구직활동/창업준비 <input type="checkbox"/> 구직/창업 포기 <input type="checkbox"/> 주부				
	② 직업 있음 ->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프리랜서 <input type="checkbox"/> 고용주(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b>직업 여부 (현재)</b>	① 직업 없음 -> <input type="checkbox"/> 학생/휴학생 포함 <input type="checkbox"/> 구직활동/창업준비 <input type="checkbox"/> 구직/창업 포기 <input type="checkbox"/> 주부				
	② 직업 있음 ->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프리랜서 <input type="checkbox"/> 고용주(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b>(현재) 직업 여부 질문에 '② 직업 있음'에 응답한 자 중 '본인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입니까?</b>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b>직업 여부 질문에 '② 직업 있음'에 응답한 자 중 '본인'의 근로 시간을 적어 주세요</b>					
(주간) _____시부터 _____시 까지 (_____시간)    (주말) _____시부터 _____시 까지 (_____시간)					

■ 지금까지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참고문헌

- 김민경. 2013.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및 문제음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1(2): 29-38.
- 장숙랑·백경훈. 2020. 2019 청년여성의 자살문제, 사회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 장숙랑. 2021. “감염되는 절망: 청년여성의 정신건강, 페미니즘 연구 21(2): 235-247
- 김고은. 2021.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자의퇴원한 자살시도자의 특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22. 「2021년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건강 조사보고서」
- 질병관리본부. 2022.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보건복지부. 2022. 「국가응급정보망(NEDIS) 통계연보」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통계청. MDIS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